한국전력공사 공인협약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식당,병원,목욕탕,숙박업소, 관공서,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쏠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4월 7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17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고액의 법문비

3월23일 서울 번동, 교리공부를 위해 모인 S회의 회요정기법회. 이번 주엔 종단 고위직을 역임했던 H스님이 법사다. 두시간 남짓 법문을 듣고 스님에게 드린 법문비는 50만원.

"항상 고명한 스님을 모시고 싶지만 우리 회원이 20여명 정도라 매주 50만원씩 마련하는 것은 꿈도 못꿔요" S회 총무의 자조섞인 푸념이다.

학생회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D사. 학생회 법사로 학인스님을 모신다. 활동비는 한달에 30만원 정도. 하지만 시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준비가 충실치 못할 뿐더러 2년정도 하면 떠난다는 것이 사찰측의 설명이다.

재가법사나 대학교수의 법문비는 통상 15만원~20만원. 이름있는 스님들의 법문비는 30~50만원이다. 물론 돈 한푼 받지 않고 법문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스님들도 많다. 하지만 절에서 나름대로 큰스님들께 사례를 표하다 보니 금액기준이 생겨난 것이다. 회원이 많거나 신도가 많은 큰 절이라면 몰라도 적은 인원의 법회라면 법문비 때문에 난처함을 겪게 된다.

큰스님 초청법회 고액 거마비 부담

신도들로서는 큰스님을 친견하고 법문을 듣는 자체에 환희심을 낸다. 하지만 법문비를 마련하지 못해 큰스님을 모시지 못하는 사찰들이 모실 수 있는 곳보다 훨씬 많은 것이 문제다.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시며 80평생을 중생교화에 힘쓰신 부처님께 절을 지어 희사하고 대중공양을 마련하는 등 크고 작은 신도들의 정성은 이어졌지만 부처님께서는 차별없이 법을 듣고자 하는 온갖 곳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전법하셨다.

도심포교당이나 지방의 작은 사찰들에도 큰스님의 감로수같은 법문을 기다리는 불자들이 많이 있다. 법문을 듣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 법문공장은 차별없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알림 교계뉴스 매일 속보제공

불교종합정보센터 '부다피아'는 매일 교계뉴스 속보를 제공합니다. 인터넷 부다피아에 접속하셔서 매일 신속하고 정확한 교계 소식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

원로의원 · 총무원장등 19명 만장일치 추대

원로회의 의장에 탄성스님…부의장에 도원 · 종산스님

혜암(慧菴 · 80)스님이 조계종 제10대 종정으로 추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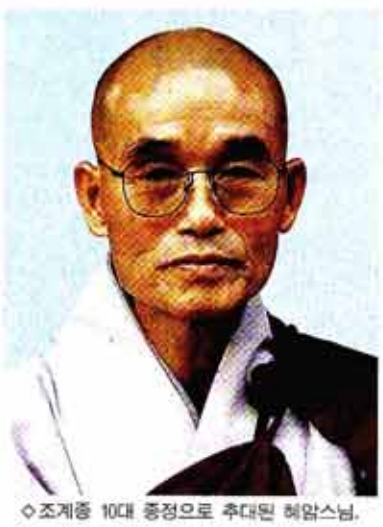
조계종 원로회의는 4일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종정추대를 위한 회의를 열고 혜암스님을 만장일치로 종정으로 추대했다. 추대법요식 일정은 추후 결정된다.

이날 종정으로 추대된 혜암스님은 1920년 전남 장성에서 출생, 일본 유학중 〈선관책진〉 등의 선어록을 보고 출가를 결심해 46년 해인사로 인곡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이후 태백산 동암과 지리산 상무주암 등 전국의 제방선원에서 수행에 전념했다. 93년 11월부터 98년 7월까지 방장으로 후학들을 이끌었으며, 94년 4월 개혁종단을 출범시키며 원로회의 의장에 추대됐다.

추대에 앞서 혜암스님은 원로회의 의장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해 종단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 종헌종법을 자키면 종단에 큰 일이 생기지 않는다"며 종헌종법 준수를 당부했다. 혜암스님은 회의 직후 해인사로 떠났다.

오후 2시부터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종정추대회의에는 원로의장 혜암스님과 비룡 응담 도천 운경 지홍 석주 도견 성수 탄성 종산 보성 정현 법전 녹원 도원스님 등 원로의원 16명과 당연직 중정추대위원인 총무원장 고산, 호계원장 월서, 종회의장 법등스님 등 모두 19명이 참석했다. 일타 숭산 청하 원담스님 등은 외국체류 등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백암스님은 이날 오전 청사에 나왔으나 회의에는 참석치 못했다.



◇조계종 10대 종정으로 추대된 혜암스님.

비공개로 진행된 종정추대회의는 종정추대 과정에서 의견상충이 있어 진통을 겪었으나 마지막에 혜암스님 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순조롭게 진행됐으며, 원로회의 의장단 선출은 30분만에 끝났다. 이에 앞서 녹원 성수 탄성스님 등 12명의 원로의원들은 1일 시내 앰배서더호텔에 묵으며 의견을 조율했다.

원로회의는 또 이날 원로회의 의장에 탄성(呑星 · 70)스님, 부의장에 종산(宗山 · 76)스님과 도원(道源 · 72)스님을 선출했다. 〈의장, 부의장 약력 3면〉

총무원장 고산스님과 호계원장 월서스님, 종회의장 법등스님은 원로회의가 끝난 직후 "조계종 10대 종정에 혜암 큰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혜암스님의 종정추대에 대해 교계 안팎에서는 조계종단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정화회의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지난 1일 정화회의에서 월하스님을 종정으로 재추대했다"며 "새 종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종정추대 이후의 조계종 - 혜암스님은 누구 - 종정스님에 바란다 3면

초파일 남북발원문 나온다

불추위, 조불련과 합의 교계대표 방북도 논의

올해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초파일 남북공동발원문이 발표된다.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상임집행위원장 명진스님)는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과 3월 29일 중국 북경에서 회담을 갖고 공동발원문 초안을 서로 전달했다. 양측은 빠른시일내 다시만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내용의 공동발원문을 채택키로 했다. 또 남측불교계 대표의 방북과 관련하여 조선불교도연맹은 6월 초순 방북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금강산 순례와 하안거등의 일정이 있어 어렵다는 남측입장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 방북이 이뤄지도록 상호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금강산 신계사 복원, 금강산 순례단 방문과 관련하여 조선불교도연맹은 행사나 사찰복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조불련과 사전에 상호긴밀히 연대하여 논의를 진행시켰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진각종 총무부장 회정 정사등은 2일 중국 북경시내 해당화음식점에서 조선불교도연맹 심상진 서기장, 류인명 책임지도원 등과 만났다.

경불협 대표단(단장 법타)도 3일과 4일 북경 시내 음식점에서 조불련 대표들과 모임을 갖고 제2차 LA 남북해외불교도 조국 통일기원 합동법회 개최 등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차주상보〉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문화부 종무실 현상태 유지"

김종필총리 1일 밝혀

김종필 국무총리는 1일 "문화관광부 종무실의 현상태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총리는 이날 총리실을 방문한 종교지도자협의회 대표단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 의장 지덕 목사와 고산 조계종총무원장, 김종수 천주교주교회의 사무총장, 한양원 민족종교협의회장, 장응철 원불교 서울교구장 등 종교계 대표와 신낙균 문화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 종무실 축소 방침의 재고를 요청했다.

정부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이달 말 정부부처 조직조정을 최종 확정한다.

김총리는 또 종교계에서 벌이고 있는 3·1현창운동에 정부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구산선문 모르고 한국불교 논할 수 없다"

'구산선문 참선기행'에 부쳐



정병조 (동국대 교수)

선문구산이 도입된 것은 9세기 초반의 일이다. 대부분은 마조도일(馬祖道一)의 계통이었지만, 순지(順之) 같은 인물은 중국 위앙종(爲仰宗)의 후예이다. 선문구산의 도입은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의미를 지닌다.

①중국 강남(江南) 불교의 유입이다. 7, 8세기까지의 한국불교는 북조(北朝) 불교의 강력한 영향권에 있었다. 왕즉불(王卽佛)과 같은 정권밀착적인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강남의 불교는 철저히 초세간적(超世間的) 경향을 지닌다. 이 점이 한국불교의 흐름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본다. ②중국불교사에서의 한계는 당말송초(唐末宋初)의 블랭크이다. 즉 이천년 역사위에 가장 빈약한 자료 때문에 이 시기의 중국불교는 안개속에 묻혀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문구산의 스승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중국불교의 허점을 메꾸어 갈 수 있다. ③선문구산이 신라하대의 불교계를 주도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 화엄종을 비롯한 교종의 기득세력과 선문구산의 관계는 반드시 밝혀야 할 문제점이다. 또 선문구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지선(智詵) 등 중국유학의 경험이 없는 독자적 선파(禪派)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불교는 선종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선 중심적인 면에서 선교융합을 슬로건으로 삼아 왔던 것이다. 따라서 최초의 선법인 선문구산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일뿐 아니라 핵심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뿌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지식인이 가진 긍지가 아닌가. 불교에 대한 이해없이 한국문화를 논할 수 없다. 선문구산에 대한 식견없이 한국불교를 말할수는 없다. 현대불교신문이 기획한 이 의미있는 '구산선문 참선기행'은 단순히 불교를 공동풍속 가치로 인식하려는 현대인들에게 경종일 수 있다.

무너진 주춧터에서 옛 영광을 떠올리고 그 사상의 편린들을 모아 역사의 공백을 메꾸는 일은 당연히 이 시대 불자들의 몫이다.

구산선문 참선 기행

4월 : 가지산문(보림사) - 운주사 · 쌍봉사

본사는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불교의 선맥을 따라 '구산선문 참선기행'을 떠납니다.

4월 첫 기행은 가지산문의 중심도량인 보림사와 와불로 유명한 운주사, 국보 철감선사부도탑이 있는 쌍봉사를 참배합니다.

구산선문에 대한 이해는 독자 여러분의 신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출발: 4월 24일(토) 밤10시 · 조계사 앞
◇안내: 황호균(전남대 박물관 학예연구사)
◇회비: 4만5천원(조식 중식 포함)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gva (주)건화종합건축사무소
GUN WHA ARCHITECT & GROUP CO., LTD
종합 건축설계 · 종합 감리전문 · 마스터플랜 · 엔지니어링 · 시뮬레이션 및 에니메이션 · 구조물 안전진단
02)3443-7851~5 · 02)555-1567~8

주식회사 아라종합건축 · 건설
건축 시공 · 견적 · 유지 관리 · 강구조(P.E.B)
02)3443-7891~3 · 02)555-1567~8

ARI 아리건영(주)
주택 건설사업 / 사업성 검토 / 부동산 컨설팅 / 인테리어 / 건축자재 무역업
02)3443-5155~6 · 02)555-1567~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8-9(정석빌딩3층) 대표이사 김 기 상



사 설

새 종정 모신 조계종

염화미소로써 정법안장의 진리를 전하신 부처님께서는 한 말씀도 없으셨지만 부처님의 제자들과 많은 중생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면서 그 법을 길이길이 계승하고 있다.

2일 조계종의 최고의결기관인 원로회의는 조계종 제10대 종정에 혜암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였다.

불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은 부처님이시다. 그러나 한국 불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은 조계종의 종정스님이다. 조계종은 한국 불교의 대표 종단이며, 종정은 조계종의 종통을 승계하고 최고 권위와 지위를 갖는다.

부처님 다음으로 한국 불교 지존의 자리에 계시는 종정스님은 한국 불교 천단 불자의 수행의 사표가 되며, 전 국민의 지도자로서 존경의 대상이 된다. 조계종의 종정스님은 살아있는 부처님의 대행자이다. 따라서 종정의 위의는 참으로 거룩하고 자비로워야 한다. 종정의 자리가 명리의 상징이 된다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조계종은 62년 통합종단이후 9대에 걸쳐 8명의 종정을 모셔왔다. 어떤 분은 부처님의 앞자리를 지키고 서서 종도들의 신망의 대상이 되었으며, 또 어떤 분은 모진 수난을 겪기도 하고 권력의 옆자리에서 전횡하기도 했다. 종정이라는 지존의 자리를 권좌로 이용했느냐, 사표로 나투었느냐에 따라 종정 추대 당시와 끝날 때의 모습이 판이하게 달라졌던 사실을 천만 불자와 4천만 국민들은 너무나 잘 보아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아의 사상으로 사상(四相)을 버리고 사무량심(四無量心)을 실천하는 것이다. 부처님 다음 자리로 존경받는 종정의 자리가 정치판의 권력에 이용되거나 파당과 독선의 권좌가 된 것을 보았을 때, 불자들의 마음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로 너무나 허탈하고 안타까웠다는 점을 명심하고 새 종정스님은 불자들의 정신적 스승으로 사회와 시대를 이끄는 사표로서 위의를 갖추도록 주변에서 잘 모셔야 할 것이다.

지난해 말 종단사태로 인해 사상최악의 수모를 겪으며 끝도 모를 나락으로 떨어졌던 조계종이 간신히 몸을 추스려 모처럼 안정을 찾고 있다. 자비와 무소유의 모습을 보여야 할 승려들의 유혈 투쟁, 총무원 청사를 뺏고 뺏기는 살벌하고 처절한 싸움의 모습의 잔영은 아직 국민들의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이제 다시는 종정의 자리가 멸빈의 징계를 당하는 어이없는 수모는 없어야 될 것이며, 종도들의 공의를 무시한 종정의 교시가 남용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이제 조계종이 전과를 참회하고 "초발심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 종도가 다시 출가하는 정신으로 수행 정진과 교육·포교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는 차제에 종단의 최고 어른인 새 종정을 모시게 됨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새로 추대된 혜암 종정스님은 수십년간 수좌계의 사표가 되어온 상징적 이미지를 되살리는 데 노력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개인적인 권위와 문중적인 차별에 치우치지 말고, 종도들의 화합과 무소유의 출가 정신을 철저히 준수하는 수행풍토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경책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종정스님의 덕화가 불교계에 두루 미쳐 청정한 승풍을 진작하고 불교개혁의 구심축으로서 또 불자들의 정신적 회향처로서 흔들리는 불교교단의 위상이 제대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 다시한번 혜암 종정스님의 추대를 경하하며 아픔을 겪은 조계종이 새 종정스님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사회의 빛이 되고 창조적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잘 모시고 잘 이끌고

불교TV 분담금 조정 중앙승가대 특위 구성

조계종종회 원로회의법등 3개 종법 개정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는 3월 29일 본회의를 속개해 원로회의법 등 3개 종법을 개정하고 종회 운영규칙 제정, 불교TV정상화대책원회 분담금조정 특위 중앙승가대운영특위를 구성하는 등의 활동을 마치고 31일 139회 임시종회를 폐회했다.

'영축총림 해제 건'은 총무원장 고산스님의 보류요청을 받아들여 차기 종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최근 부도위기에 몰려있는 불교TV를 구제하기 위한 특위는 정휴, 법안스님의 제안으로 총무원 집행부와 중앙종회 합동으로 구성했다. 위원은 정휴(위원장, 법제분과위원장) 원택(총무부장) 여연(사회분과위원장) 장적(종회의원) 정념(〃) 법안(간사) 양산(간사, 문화부장) 스님 등 7인이다. 불교TV특위는 7일 회의를 열어 불교TV 재정상태 현황파악과 함께 대책 마련에 들어간다.

분담금특위 분담금 조정을 위한 실태파악 특위는 분담금 조정 대상 사찰을 실사하고, 분담금 조정안을 만들어 집행부에 제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직영 및 특별분담금 사찰, 교구본사, 관람료사찰, 재정 우량 사찰 등 1백여 곳이 실태파악 대상 사찰이다. 위원장은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장 지명스님이 선임됐다.

중앙승가대특위는 총무원장 고산스님이 3월30일 종회에 출석, "김포학사 완공 이후 운영문제를 연구 검토해야 한다"며 특위 설치를 요청해 구성됐다. 위원은 종회의원 13명, 총무원 3명, 교육원 2명, 중앙승가대 2명 등 20명이다.

중앙승가대 김포학사는 완공까지는 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완공 후 매년 운영비만 최소 3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돼 종단 차원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종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로회의법: 원로의원 자격을 승랍 45년 이상, 연령 65세 이상, 80세 이하의 원로 비구로 한정했으며, 연령 초과 때부터 원로의원직을 상실한다. 법개정 과정에서 연령 상한선을 85세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거동이 불가능하기도 하고, 종단 위급시 판단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우세해 원안대로 통과됐다. 종헌과 상충됐던 종정추대 정족수를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했다. ▲중앙종회의원선거법: 직능대표 선출위원의 임기를 다음 대(代) 중앙종회 개원일 전일까지로 명시해 임기 조항을 신설했다. ▲본사주지회의법: 정기 중앙종회 및 결산종회 개회 1개월전 본사주지회의를 개회한다. 의장(총무원장)의 필요시, 재적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국제교류위원회령' 조계종 입법예고

조계종 총무원(원장 고산)은 3월29일 종무회의 의결로 '국제교류위원회령'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국제교류위원회령'은 국제교류 관련정보 취합, 국제대회 참가, 국제홍보물 발간 및 배포 등 종단 국제교류에 대한 자문기구 기능 수행에 따른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제2기 사찰환경보존위원회가 3월31일 공식 출범했다. 창립식과 함께 개최한 '사찰과 환경' 주제 토론회 모습.

"산사 오폐수문제 심각"

사찰환경보존위 토론회

공원내 사찰 383곳중 93곳만 오수처리 시설

조계종 제2기 사찰환경보존위원회(위원장 성조, 조계종 사회부장)가 3월 31일 조계종 총무원에서 창립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사찰환경보존위는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사찰환경 파괴를 효과적으로 막는 방법으로 사찰환경보존지역 지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본지 제216호 1면 참조〉

2기 조계종 사찰환경보존위 위원에는 유정길(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무국장) 김선희(국토연구원 연구원) 오구균(호남대 조경학과 교수) 이병인(밀양대 환경학과 교수) 오영석(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전재경(법제연구원 연구3팀장) 이영경(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윤여창(서울대 산림자원공학과 교수)씨 등이 위촉됐다.

창립식에 이어 진행된 '사찰과 환경'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병인교수(밀양대 환경공학과)는 "전국의 국·도·군립공원내 사찰 3백83군데에서 오수처리시설을 갖춘 곳은 93곳(24.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사찰 오폐수처리는 관광객들로 인한 오폐수 배출등 공공성이 크므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시설 설치시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종교편향 사례 백서' 발간

조계종, 이달 중순에

조계종 종교편향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원혜·현진스님)는 대책위 발족 1주년을 기념해 4월 중순경 〈종교편향 사례 백서〉를 발간하고 종교편향 사건의 당사자 들을 초청, 기념 좌담회를 열 계획이다.

종교편향대책위는 △종교편향 관련 총 추정피해액 △월·계절·시간대별 사건발생 현황 △훼불방화 도구 △훼불·방화 유형별 검거 실적과 미제 건수, 검찰 예방조치 지시건수 △전화 접수사례의 유형별(교육, 군대, 언론 등) 분석 △경찰청공문 분석 등을 담은 글과 주요 공문, 신문 기사, 사진, 포스터 및 유인물 등으로 5백여쪽 분량의 백서를 발간한다.

이와 함께 훼불사례 발생시 적용가능한 헌법 형법 공무원법 등 관련법률과 대응사례 및 방법 등을 담은 관련법규 매뉴얼을 하반기 중에 제작할 예정이다. 종교편향대책위는 이를 위해 추가로 개인이 소장한 종교편향 관련 사진·문건 등을 접수받고 있다. (02)7340-108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지방승가대 육성 논의 조계종 승가대학장 회의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3월 30일 지방승가대학장 회의를 열고, 지방승가대학 집중육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4월 중순까지 기초자료 수집과 평가도구 개발을 통해 5월~6월 기본교육기관 실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7월 평가 결과물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관계자, 종회의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본격화하게 된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조계종 재심호계원 정우 · 현소스님등 4명 멸빈

현호·법일스님 판결 보류

조계종 재심호계원(호계원장 월서)은 3월 31일 12차 심판부를 개정하고 정우 현소 원학 헌근스님 등 4명에 대해 멸빈의 징계를 확정했다. 현호 법일스님에 대해서는 자료불충분의 이유로 판결을 연기했다. 월탄 성문스님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음에 따라 멸빈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종걸)은 3월30일 22차 심판부를 열고 법타스님(은해사 주지) 공권정지 4년, 통광스님(도선사 주지) 공권정지 5년 등 20명에 대해 공권정지 1~10년의 징계를 내렸다. 종회의원직 사표를 제출한 인항, 진구스님에 대해서 심리연기 및 판결 보류했다.

오후 2시 총무원4층 회의실에서 열린 재심심판부는 호계위원 8명중 7명(현성스님은 사표제출)이 참석했으며,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심판을 마치고 나오는 호계위원들의 표정은 어두웠으며, 서로 "고생했습니다"란 인사 외에는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판결을 앞두고 총무원 주변에서는 '감형'을 예상했으나 멸빈이 확정되자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의 판결로 다시 냉기류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종회에서 벌어졌던 '변론 설전'도 강경분위기를 짐작케 해주는 대목이다. 몇몇 종회의원과 중앙종무기관장, 본사주지들이 징계대상자의 변호자로 접수하자 해종특위위원장 범종스님이 종회에서 변호자 교체를 요구했다. 징계대상자의 '선참회 후변론'-'과거 공적 인정' 의견이 괭괭한 가운데 한때 고성이 오가는 등 긴장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2시부터 열린 재심호계원 심판에는 변론자 없이 당사자의 변론으로 진행됐다. 호계원법 34조는 변호자는 심리절차에 참석하여 피제소인을 위한 변호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월탄스님 "징계 철회" 요구

한편 월하스님과 월탄스님은 3월 29일과 1일 각각 '교시'와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월하스님은 '교시'에서 "제2정화의 깃발을 드높이고 전국적으로 정화불사를 실천하라"고 밝혔다.

월탄스님은 기자회견을 통해 종도들에게 청정승가를 복원하자며 징계조치의 철회와 종정추대를 유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구속승려 석방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월탄스님은 정화개혁회의 관련자료집 〈정법구현〉 3권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정성운 기자

우룡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Ⅰ. 지성(至誠)으로 살자 Ⅱ. 불자의 살림살이
Ⅲ. 불자의 축원 Ⅳ. 불자의 기도
Ⅴ. 일체고액을 벗어나는 길 Ⅵ.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알기쉬운 불서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신국판 / 7,000원

관음신앙 · 관음기도법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이 책에는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이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B6 / 값 3,500원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불문 속에 우리나라 불교신앙의 진수가 담뿍 담겨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이요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이런저런 궁금증들……. 이 땅에 정착된 불교신행의 진수를 이 한 권의 책 속에 모두 담았습니다.

Ⅰ. 새벽예불 Ⅱ. 오분향례 Ⅲ. 부처님이시어, 크나큰 진리여
Ⅳ. 거룩한 사대보살 Ⅴ. 영산회상의 제자들
Ⅵ. 불법은 승보가 호지한다 Ⅶ. 자타일시성불도

신국판 /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해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대화합 구심점 확보

새 종정 추대이후 조계종

초파일 전 대사면 단행할 듯

조계종이 새 종정을 추대 종단의 정신적 구심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지난 해 종단사태의 상처를 씻고 안정을 바탕으로 화합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혜암스님은 원로회의 후 곧바로 해인사로 향해 종정으로서의 '일성'을 뒤로 미뤘으나, 이날 원로회의 인사말에서 지난 해 종단사태를 거론하며 '종헌종법에 따른 종단 확립'을 강조했다. 종단사태의 아픔을 치유할 대화합의 계기를 스스로 만들어야 하며, 그 기준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혜암스님이 94년에 이어 지난 해 종단사태 때도 일관된 입장으로 '개혁'을 향한 추진력을 보여줘 종단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종도들은 기대하고 있다. 더구나 혜암스님은 지난 해 종단사태 때 정화회의의 중심인 월하스님과 다른 길을 택했으므로 이후 종정으로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입장에 섰다.

그러나 이날 원로회의에 참석하려던 벽암스님이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정화회의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새 종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점을 알고 있는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종단 내부적으로 아직 풀리지 않은 점이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화합하려 한다.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부처님오신날 이전 대사면 조치를 염두에 둔 언급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 종정 추대를 위한 원로회의가 2일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열렸다. 〈사진=고영배 기자〉

종정 추대 이모저모

하루전 밤새 조율

○…원로회의 하루 전 원로의원들은 서울시내 앰배서더호텔에서 묵으며 조율을 시도했으나, 쉽게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진통을 겪었다. 한때 후보가 9명까지 거론됐다는 얘기가 전해 진통의 정도를 짐작케 했다.

호법부장 종고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재가종무원들은 호텔 곳곳에 배치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 종고스님은 취재진에게 "내일이면 궁금증이 모두 풀릴 것"이라며 스님들의 숙소가 있는 3층 접근을 차단.

혜암-벽암스님 동승

○…2일 오전 호텔에 묵은 원로의원들은 총무원에서 마련한 승용차편으로 총무원 청사로 향했다. 전날 월하스님 종정불신임과 관련 논란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 혜암스님과 벽암스님이 공교롭게 한 승용차 뒤좌석에 나란히 탑승. 그러나 서로 말없이 굳은 표정을 보였다. 벽암스님이 청사에 도착하자 한 스님이 "해종행위 징계대상자가 여기 왜 오냐"며 항의. 분위기가 나빠지자 고산스님의 지시로 호법부 스님들이 벽암스님을 앰배서더호텔로 모셨다. 벽암스님은 곧장 주석처인 공주 신원사로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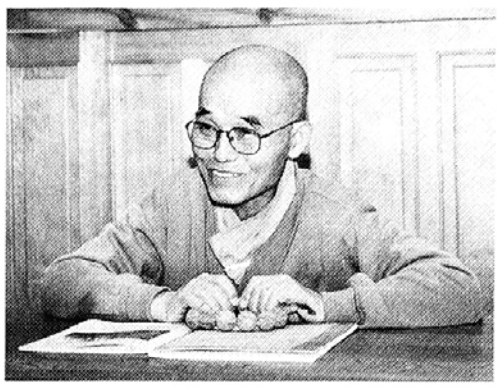
고령 원로들도 참석

○…회의시각인 2시가 가까워지면서 석주 비룡스님 등 원로의원들이 속속 도착. 석주스님은 90세의 노령임에도 회의장인 4층까지 걸어서 올라갔다. 운경 비룡스님은 호법부스님들의 등에 업혀 회의장으로 입장. 녹원 도원스님이 마지막으로 도착했으며, 원로회의 사무처는 5분간 사진촬영을 허용한 뒤 회의장 주변을 봉쇄.

50년 장좌불와 '선승'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은

'종헌종법 수호' 원칙론 중시
방장 · 원로회의 의장등 역임



두타행을 몸으로 실천해온 현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선승. 94년 조계종 개혁불사때 개혁파 스님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면서 한국불교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았던 현 한국불교의 큰 어른. 지난해 조계종 사태때는 '누구든 종헌종법을 수호해야 한다'는 강한 소신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원칙론자.

철저한 수행을 강조하면서도 어려운 종단현실에 처해서는 실천적 개혁의지를 드러냈던 혜암스님은 원칙과 소신, 미래에 대한 청사진으로 불교발전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죽비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94년 개혁불사때, 서암 전 종정스님과는 오랜 세월을 함께 한 절친한 도반임에도 사사로운 정을 의식하지 않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을 정도로 개혁의 열의가 높았다. 다소 고집스럽다는 평도 있지만 종정후보가 거론될 때마다 늘 불자들 입에 오를 정도로 혜안을 갖춘 큰스님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 혜암스님의 모습은 원칙을 고집하는 수행자 특유의 성품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출가 이후 줄곧 일중일식(日中一食)과 50년 장좌불와 참선수행을 실천해 오면서 청정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귀감이 돼왔다. 95년 해인사 방장에 오르면서 해인사의 가풍을 "하루 네시간 이상 잠자지 않고 선방수좌들이 오후에 불식하는 것"이라고 말한데서도 이같은 면모는 잘 드러난다. 혜암스님을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으로 꼽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혜암스님은 16세때인 1945년 해인사와 인연을 맺었다. 출가 후 전국의 대중선방을 다 돌아다니며 참선공부에 매달렸다. 또 수행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태백산 동암과 보조국사가 수행했던 지리산 상무주에서 오랜기간동안 토굴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때 혜암스님이 만든 '토굴생활 잘하는 사람의 기준'은 지금도 선방 수좌들에게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혜암스님은 금오 · 효봉 · 경봉스님 등 당대의 큰스님들로부터 남다른 총애를 받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큰스님들께 직언을 많이 하는 편이어서 "혜암이는 조실을 가르치러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다고 한다. 1947년 문경 봉암사에서 성철 청담 향곡스님 등과 함께 4년 결사안거를 수행한 혜암스님은 성철스님이 입적하고 나서도 돈오돈수를 지도한 성철스님의 뜻을 좇아 납자들을 지도해왔다. 그러나 돈오돈수의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이론보다는 실천을 더욱 강조해왔다.

1920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난 혜암스님은 46년 인곡스님을 은사로 득도, 48년 상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해인사 · 송광사 · 범어사 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용맹정진했다. 81년 조계종 정화위원회 부위원장, 85년 해인총림 부방장, 91년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93년 해인총림 방장과 94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에 오른 뒤 현재에 이르렀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종정의 자리

조계종 법통 잇는 최고의 어른

조계종 종헌에 따르면 종정은 조계종의 신성을 상징하며 종통을 승계하는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갖는다. 승랍 45년, 세수 65세 이상의 비구(比丘) 법계(法階) 대종사(大宗師) 가운데 원로의원(현재22명)과 총무원장, 중앙종회 의장, 호계원장이 모여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추대하도록 돼 있으며 임기는 5년에 한차례 중임할 수 있다. 특별한 권한은 없으나 전계대화상 위촉권, 포상과 징계의 사면 · 경감 · 복권권, 종단 비상시 원로회의 제청에 의한 중앙종회 해산권 등을 갖고 있다.

종정 최장수를 기록한 성철스님은 종헌에 규정된 법적 지위를 떠나 불자들의 정신적 스승이자 사회와 시대를 이끌었던 우리시대의 선지식으로 아직도 추앙되고 있다. 반면 그리 길지 않은 통합종단(1962년 이후)의 역사속에서 종정의 지위와 역할을 둘러싼 잡음은 때로 종단 분규의 불씨를 제공하기도 했다.

조계종 역대종정

초대	효봉스님
2 대	청담스님
3 대	고암스님
4 대	고암스님
5 대	서옹스님
6 대	성철스님
7 대	성철스님
8 대	서암스님
9 대	월하스님
10대	혜암스님

프로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탄성스님



탄성스님은 조계종 개혁불사의 공로자다. 지난해 조계종 사태때는 종도간 화해와 종단 안정을 이끌 수 있는 어른으로 팽팽히 맞섰던 양측 모두가 기대를 걸었을 만큼 대중의 폭넓은 신망을 받고 있다. 이런 평가에 걸맞게 스님은 1980년 10.27법난후 수습대책위원장, 1994년 조계종 개혁회의 총무원장, 지난해 조계종사태때 전국승려대회 대회장 등 종단이 혼란기에 처할 때마다 행정수반을 맡아 수습하는 역할을 무난히 수행해 왔다.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과 함께 항상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는 수행자로도 귀감이 돼온 탄성스님은 1928년 충남 신도안에서 태어나 8.15 직전인 44년 금오스님을 은사로 득도해 이듬해 3월에 사미계를 받았다. 55년 고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고 61년 수덕사에서 하안거 이후 15안거를 성만했다. 72년 법주사 주지를 지냈고 현재 괴산 공림사에 주석하고 있다.



원로회의 부의장 도원스님

도원스님은 1928년 경북 영천에서 출생. 41년 파계사에서 고송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49년 사미계를 51년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파계사주지를 지냈다. 현재 파계사 조실로 있다. 81년 학교법인 능인학원 이사장, 84년 조계종 선거관리위원장, 85년 제8대 중앙종회의원을 거쳐 90년부터 학교법인 동국학원 이사를 맡고 있다.



원로회의 부의장 종산스님

1924년생인 종산스님은 48년 광주 자운사에서 도광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후 49년 사미계, 54년 동산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44년 전남대 의대와 51년 자운사 대교과를 졸업했으며, 54년 통도사 수선안거 이후 41하안거를 성만했다. 충북 개심사 주지와 제9대 중앙종회 임시의장, 법제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청주 보살사에 주석하고 있다.

종정스님께 바란다

"사부대중 정신적 귀의처 되소서"

▲도업스님(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장)=종정이라는 자리는 불교 법통 그 자체로서 대중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자리다. 때문에 종정스님은 종단의 자질구레한 일에 관여하시거나 시정거리에 나오시기 보다 언행을 천금보다 무겁게 하시어 모든 중생들의 정신적 귀의처가 되어주셨으면 한다. 또 불교만을 보지 말고 천년 후를 보는 안목을 널리 펴시어 불자뿐 아니라 국민 대중, 더 나아가 전 인류의 사표가 되는 인류 공동의 선을 홍포해 주셨으면 한다.

또한 이 시대 아픈 곳을 감싸 안으시는 따뜻한 '산중의 호랑이'의 모습으로 소외된 계층에게 쌀 한됫박을 아낌없이 나눠주시는 따뜻한 출행(出行)을 보여주셨으면 한다. 종정 스님이 이렇게 법의 자리를 흔들림없이 지켜 주시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따뜻한 행동을 보여 주실 때 종단의 발전과 불교의 중흥이 있고 불교가 대중의 정신적 안식처가 되어줄 것이다.

▲정덕스님(자비의 전화 회장)=지난해 조계종 사태로 인해 상처입은 사부대중의 마음을 감싸안는 포용력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특히 새 종정스님은 높은 수행력으로 대중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시고, 종단의 대 소사에 관여하기 보다는 한국불교의 대표자로서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각 종단을 화합으로 이끌어 주셔야 할 것이다. 나아가 세계의 불교를 지도할 수 있는 대표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란다.

▲신근식 (삼보법회 이사장)=조계종 사태로 인해 불교의 위상이 많이 격하됐다. 새 종정스님은 이런 현실을 냉철히 인식해 새로운 승풍 진작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스님들이 출가본연의 정신으로 돌아가 철저히 수행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셨으면 한다. 또한 인재를 양성해 잘 활용해 주시길 기대한다. 그래야 양성된 인재들이 종단 행정기관이나 전국 교구 본사 등에서 불교 발전을 위해 신심있게 일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사찰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승 · 재가가 서로 불신하는 풍토를 일신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란다.

▲임완숙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조계종이 새 봄을 맞아 새로운 종정스님을 모시게 된 것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크다. 지난 겨울의 처참했던 아픔을 딛고 완전한 종단의 면모를 갖춘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 모셔진 종정스님은 부처님 이래로 전해져 내려오는 불교의 법통 자리를 흔들림 없이 지켜주실 것으로 믿는다. 법의 상징인 종정스님이 이판의 자리를 지킬 때 종단은 평온했고 그렇지 못할 때 시끄러웠던 점을 상기해 주셨으면 한다. 생활고에 허덕이는 우리 시대의 중생들에게 환한 법등을 밝혀 주실 분이 바로 종정스님이다. 새로운 천년은 법의 세기가 될 것이다. 물질의 한계는 이미 드러났다. 모든 중생들이 정신의 귀의처로 불교를 바라볼 때 그 앞자리에 종정스님의 주장자가 빛나고 있어야 한다.

"붓다가 살아 있다면 바로 이런 책을 썼을 것이다!"

입문에서 깨달음의 완성까지—
이 시대의 구도자 무산본각(無山本覺) 선생이 완벽하게 복원해낸 붓다 수행법의 완결판!

쉽게 풀어본
호흡수련과 氣의 세계 2
전통호흡수련의 폐단을 극복하는 '자연호흡'의 세계

"100% 체험"

호흡수련, 이젠 '자연호흡'으로 한다!
언제까지 지식(止息)과 폐기(閉氣)로 자신의 몸에 무리를 줄 것인가? 들숨과 날숨만으로 이루어지는 자연호흡으로도 얼마든지 氣가 생성되고 강화된다! 20년 수련 체험을 바탕으로 쓴 氣 수련의 새로운 지침!

■ 값 10,000원 | 서점에 있습니다.



지은이 全永光
오랜 공직생활(전 해양수산부 서기관)을 하였으며, 여러 국기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전호흡을 강의하고 있다. '97년 제1회 국제기공학학술대회 초청인사로 氣수련의 에커니즘에 대해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책의 전탄인 《호흡수련과 氣의 세계》로 많은 수련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마음닦기
깨달음에 이르는 붓다의 수행법

無山本覺 지음
값 12,000원(부록CD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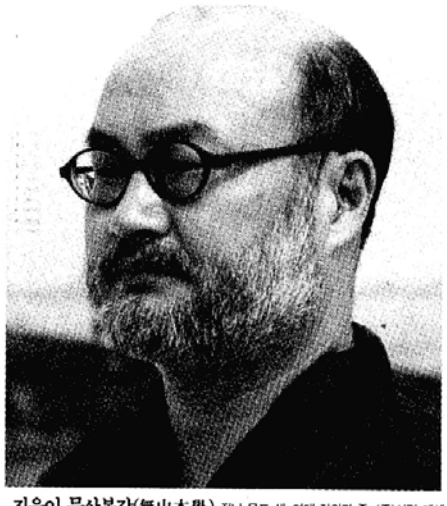
마음수련의 正道를 밝혀주는
모든 수행인들의 필독서!

· 2,600년 전 붓다가 깨달음에 이른 수행법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본격 수행 지침서.
· 방대한 경전과 논서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구체적인 수행법들이 체계적으로 기술된 수행 필독서.
· 일실된 수행법들을 복원하고, 북방 대승불교권의 간화선(看話禪) 전통까지 포용한 본격적인 수련 매뉴얼.
· 여러 종교의 수행법, 현묘지도(玄妙之道), 도가 등의 수련법을 종합하고 해석 · 비판 · 융해하여 재구축한 완벽한 수행 시스템.
· 영적 계발을 위해 직접 몸으로 체험한 실천적인 테크닉의 기록.
· 인류 정신발전의 정화(精華)가 함축되어 있는 최고의 수행서.

■ 저자 초청 특강 및 워크샵
1999. 4. 3(토) 오후 2:30-5:30/참가비 6천원(선착순 입장)

■ 12시간 집중수련 워크샵
4. 10(토) 오후 3시-10시/11일(일) 오전 10시-오후 5시
참가비 5만원(선착순 마감)
주최: 정신세계원(747-7033/비원 옆 원서빌딩/안국역 · 종로3가역)

특별부록 …… 精選으로 이끌어주는 CD
무산본각 선생의 육성 가르침. 듣기만 하면 깨달음을 얻는다!



지은이 무산본각(無山本覺) 진남 목포 생. 연대 정외과 졸. (주)신경 테헤란 지사장, 주(駐) 이란 한국상사협의회장 역임. 이란-이라크 전쟁중 테헤란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귀국하여 수행자가 됨. 영숙송림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보살계 받음.

이제는, 더이상,
《한단고기》를
부정할 수 없다!

단군조선은 78개의 속국을 거느린 대제국이었으며, 한반도는 삼한의 일부에 불과하였고, 고구려 · 백제 · 신라의 중심지는 현재의 중원 대륙에 있었다…!
한 고대사 연구가의 끈질긴 추적에 의해 마침내 긍지에 찬 민족사가 되살아난다—〈실증 한단고기〉.

《삼국사기》와 중국의 25사 등 방대한 문헌과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중국의 고지도들을 통해 단군조선 47대의 생생한 역사, 왜곡 · 축소된 고구려 역사의 실체를 낱낱이 고증하고, 백제와 신라의 대륙사까지 새롭게 밝힌다.

이일봉 지음
값 12,000원 | 서점에 있습니다.

實證 한단고기
단군조선과 고구려 · 백제 · 신라의 대륙역사



《한단고기》 임승국 주해|10,000원

정신세계사 전화 733-3135 | 팩스 739-8791

고산스님 서울시장·한적총재 만나

조계사 관광벨트 요구·북한비료 보내기 동참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3월30일 오후 서울시청을 방문, 고건 시장에게 △우정국 주변 문화관광벨트 조성 △연등축제 예산 증액 △청소년회관 건립 지원 △탑골공원 정화를 요청했다(사진 위).

이에 대해 고건 시장은 "올해의 연등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자연적으로 예산 증액이 가능할 것"이라며 "연등축제를 서울시의 관광자원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 시장은 또 우정국 주변을 도시계획 지구로 정해 조계사를 포함한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탑골공원 정화를 위해 관리청인 종로구에 15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고산스님은 이어 31일에는 북한 식량난 해소를 위해 비료보내기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정원식 총재의 예방을 받고 "아사지경에 이른 동포의 고통을 묵과할 수 없다"며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모금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은 3월 30일과 31일 고건 서울시장과 대한적십자사 정원식 총재를 각각 만났다.

"사찰 환경훼손 방지에 최선"

조계종 사찰환경위원장 성조스님



"사찰환경위의 다양한 역량을 모아 사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실천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3월 31일 창립된 조계종 제2기 사찰환경위원회 위원장 성조스님(조계종 사회부장)은 "무분별한 불사와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아 친환경적인 사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만큼 총무원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사찰의 보존가치를 정부에서도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종교적 신심하나로 사찰주변지역이 보존된 점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중심으로 풀어가는 것은 사찰환경보존에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스님은 정부에서 사찰 오폐수시설 설치를 전적으로 사찰에 떠넘기는 것은 잘못됐다며 사찰이 사람들의 문화와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은 만큼 공공시설로 보아 해결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위해 스님은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사찰보존위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여 내·외부적 요인을 분석하여 산사의 오폐수 처리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예비 국제포교사 연수 입재

비구니스님·교수·언론인등 20명 참가

포교원은 3월31일 오후 연등국제회관에서 포교부장 현진, 연등국제선원장 원명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포교사 연수 입재식(사진)을 가졌다.

이번 국제포교사 연수생들은 비구니 스님, 교수, 언론·방송인, 군종법사, 기업 임원 등 다채로운 이력을 지녀 눈길을 끌었다. △비구니스님은 경주 해동사 도겸스님(43), 인천 영덕사 혜연스님(39), 중앙승가대 3학년 정호스님(34). △대학 교수는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부 김종걸교수(48)와 한국방송통신대 가정학과 김외숙교수(46). △언론·방송인으로는 불교방송 자료실의 이송곤(38) PD 와 포교제작팀 강선문(31) PD, SBS 보도본부 편집팀 서쌍교(34) 뉴스편집기자 등이다. 이밖에 (주)아이비 에스 이숙경(51) 부역이사, 안중용 선무도·요가 강사 등도 시험에 합격해 관심을 모았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진각종 낙동 종합복지관 개관

진각종 진각복지회(대표이사 성초)가 부산시로부터 수탁한 강서구 낙동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이 3월30일 열렸다. 이날 개관식에는 성초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진각종 통리원장) 지광(회당학원 이사장) 휴명(종의회 의장) 일정(교육원장) 등 종단 관계자들과 배종무(국민회의) 한이헌(한나라당)의원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원융종 창종 18주년 기념 법회

원융종 창종 18주년 기념 및 제 6대 총무원장 취임법회가 26일 총본산 원융사 대웅전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는 종정 일공스님, 원로의원 법신스님, 승정원장 보인스님, 종의회 의장 성관스님, 사회부장 보광스님, 총무부상 체승스님, 중앙비구니회장 대월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간부와 신도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일승종 남양주 호국철마사 위문

일승종 총무원장 혜정스님 종회의장 혜덕스님(서초구사암련 회장)등 종단간부스님 10여명은 3월28일 남양주 철마부대 호국철마사를 방문, 3백여 장병들에게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혜정스님은 "나 한사람으로 인해 온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수 있다는 마음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국철마사는 이에 앞서 3월21일 법당 낙성 및 부처님 점안법회를 가졌다.

교차로

'원효 그 위대한…' 출판회



법흥 원효종 종정스님은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불교방송극 3층 대법당에서 '원효사상전집'(전7권) 제1권 〈원효, 그 위대한 생애〉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02)719-1855

불교전통의식대학 개교



송암 불교의식대학 학장(중요무형문화재 50호)은 3월28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부설 봉원사 범음대학 호남분교인 불교전통의식대학 개교기념식을 거행했다. (062)362-8604

천주교 신자대상 설법



오현 신흥사 조실스님은 10일 속초 청호동성당에서 천주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설법한다.

부산종교인 평화회의 4돌행사



정각 부산종교인평화회의 공동대표스님(미륭사주지)은 3월31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창립4주년 기념행사 및 고문회의 구성모임을 가졌다.

자비의 쌀 모으기 운동



성열 서울 강남포교원장 스님은 2층 법당에 항아리를 마련하고 자비의 쌀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다. 모아진 쌀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지며, 자비의 쌀 모으기 스티커도 배포한다.

공주 갑사주지에



장곡 스님(조계종 중앙중회의원)이 3월 16일 계룡산 갑사 주지에 취임했다. 스님은 73년 마곡사에서 득도, 관촉사·고란사 주지를 역임했다.

김혜성박사 초청 특강

송석구 동국대 총장은 6일 오후3시 동국대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예일대, 보스턴대 및 일본 교토대학 국제연구센터 교환교수를 역임한 김혜성 박사를 초청, '21세기에 한국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특강을 연다.



'한국불교조각의…' 개정판내



강우방 국립경주박물관장은 지난 95년에 출간한 〈한국불교조각의 흐름〉 내용을 보완 증면해 최근 4백50쪽의 개정판을 냈다.

첫 소설 '하얀달의…' 발표



천양희 시인은 최근 삶과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그린 38편의 단편소설을 담은 첫 소설집 〈하얀달의 여신〉(하늘연못)을 펴냈다.

"편의시설 확충·대외홍보 주력"

전국 저시력인 연대 초대회장 미영순씨



불자 저시력인으로 봉은사 청년회 지도법사를 맡고있는 미영순박사(중국학)는 최근 전국의 저시력인 1백여명이 결성한 전국저시력인 연대의 초대 희장을 맡아 4월 장애인의 달을 앞두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저시력인들의 열악한 실정을 알려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편의시설 확충 등 홍보 복지사업을 펴고자합니다."

미회장은 구체적으로 공부방 특수학교운영 교재제작에 나설것이라고 밝히면서 후원회원들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사무국(02)593-3396

위영란 기자



승가원 장애아시설 상락원 개원

승가원이 운영하는 장애아동요양시설 상락권(원장 보각) 개원식이 3월27일 봉행됐다. 상락원 장애아동요양시설은 연건평 412평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의료재활실, 교육실, 생활실, 강당, 자원봉사실 등을 갖추고 있다. 개원식에는 승가원 이사장 현성(중앙승가대 총장), 성조(조계종 총두원 사회부장) 스님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금어 일섭스님 25주기 다례

금어 김일섭스님 25주기를 기리는 다례가 1일 승주 송광사 명부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다례에는 일섭스님의 맥을 이은 제자들이 동참 "일섭스님의 예술혼을 이어 새 시대의 불교미술을 꽃피우자"고 발원했다. 다례에는 석정스님을 비롯 심현수 조정우 이정호 조찬웅 김광열 전영호 허길룡 김익홍 조기환 서광생 이철우씨등이 참석했다.



北 돕기 백두대간 종주 입재

부처님 출가재일을 맞아 3월 25일 지리산 천왕봉에서 북한 어린이돕기 백두대간 종주입재식이 열렸다. 사부대중 2백50여명이 참가한 이날 입재식에서 북한어린이 돕기 기금 1천만원이 모금돼 3월 29일 정진스님(보문사 주지)이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3월 25일 지리산을 출발한 종주팀은 7월 25일까지 1백23일간 지리산에서 백두산까지 도라지를 심고, 쓰레기를 치우며 통일을 염원하며 백두대간을 종주한다.

부처님이 탄생하신 네팔 룸비니동산 대성석가사에서

「1인 1등 1만원 동참 관등 불사 봉행 안내」

♣ 일시 : 기묘년 음력 3월 15일(양력 4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저녁시간까지
♣ 장소 : 불탄성지 네팔 룸비니동산
♣ 연락처 및 1만관등 불사 접수장소 :
서울 서초동 우면산 대성사 전화 : 582-0108 팩스 : 583-2700
♣ 송금 구좌번호 : 국민은행 임윤화 086-14-0009-164

네팔과 인도에서는 기묘년 음력 3월 15일이 부처님 탄생의 날 이라고 합니다. 세계 각국 4부대중 7중불자 30여만명이 운집하여 석가여래불세존님의 탄생을 찬양 찬탄한고 합니다. 이에 있어 룸비니원 대성석가사에서는 1인 1등 동참성금 1만원 1만 관등 불사를 봉행합니다. 이곳 룸비니원 대성석가사에서는 3층 법당을 건립중에 있는데 우선 1층 법당 규모가 1,016평이고, 기둥이 210개가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 관등불사 동참성금 전부를 법당 불사에 이바지하고자 하나이다. 부처님이 탄생하신 네팔 룸비니원 국제사원 구역내에서 제일 큰 법당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불교도 이시여, 우리나라 남 북한 전국민과 세계만방에 계시는 교포등이시여 이 국위선양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나이다.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 지도법사님과 회장님과 고문진을 모시고, 세계 각국 30만명의 성지순례자와 함께 이 관등불사 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이 불사에 수희 동참하시어 성불인연 지으시옵소서.

네팔 룸비니원 대성석가사 주지 법신은 이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부산 감로사 주지 혜총스님 감사합니다. 경주 남산인 금오산중 고위산 천룡사지 강 금강업 원감님으로부터 국제전화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손수 1백만원 성금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신도등에게 관등불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간절히 이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내에 계시는 모든 스님이시여 불탄성지를 잘 가꿀 수 있도록 관련된 신도등에게 동참 선근 인연을 짓게하여 주시옵소서

룸비니원 국제사원구역내에서 일본절은 돈으로 짓고 중국절, 태국절, 미얀마절은 국비로 지으며 월남절은 피땀으로 짓고 한국 대성석가사는 백용성조사 유훈을 받들어서 확고부동한 신심과 불퇴전의 원력으로 지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팔 루판데히 룸비니동산
국제사원구역내 한국사원인 대성석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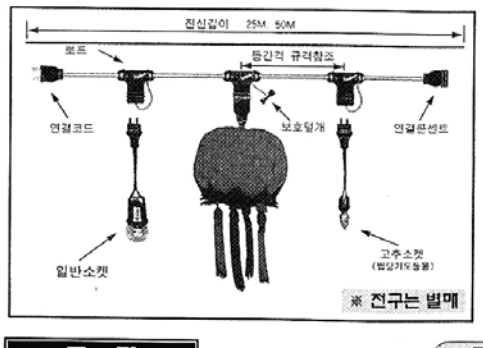
주지 석가여래계대법(釋迦如來系代法) 제78세 각현 법신(覺賢 法信)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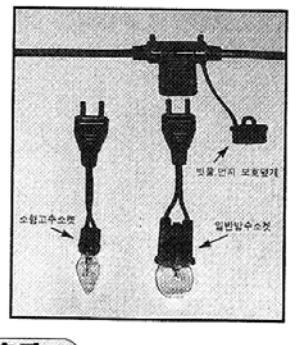
▶주소 : KOREAN BUDDHIST MAHABODHI SOCIETY
DAESUNG SHAKYA SA TEMPLE
BHABRAHAWA RUPANDEHI
LUMBINI, NEPAL.
▶전화겸 팩스 : 001-977-71-80123

불자기업에서 제작되는

봉축연등,사찰·법당기도용 T형 플러그식 안전 배선

(봉축연등·사찰·포교원 법당 기도등, 각종 연등전선 제조·납품)





규 격

⊙ 등간격 : 30cm, 50cm
1M, 2M, 3M, 5M 기타 주문제작
⊙ 모 델 : DW-101(2mm) DW-202(2mm)
DW-305(3.5mm)

※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특징 및 효과

⊙ 소켓이 분리되기 때문에 설치, 수거, 보관이 매우 편리합니다.
⊙ 조명이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 소켓이 파손되어도 교환이 가능해 반영구적입니다.
⊙ 일반 전구소켓은 물론 소형 고추소켓도 생산하므로 병행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원기업 代表 吳大權(光明) 合掌

본사영업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FAX : (032)571-9470
A/S : (032)583-4023

서울영업소 : 서울시 중구 수표동 56-6 (대한지공빌딩 222호)
TEL : (02)2276-0235
H.P : 019-262-9830 · 017-259-4471

부산·김해대리점
경남 김해시 구산동 302-7
TEL : (0525)322-3929 휴대폰 : 011-833-8018

영·호남지사
경남 진주시 칠암동 496-5(조일B/D 3층)
TEL : (0591)757-6411, 757-3331
FAX : (0591)757-3626 휴대폰 : 011-869-4854

직장직능단체 대표자회의 연다

6~7월경…정보교류·조직활성화 모색

포교원에 법사추천·지원팀 상설화 요청

IMF 경제한파 이후 과중한 업무와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활동이 주춤했던 직장직능법회 활성화와 조직화 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직장직능 신행단체 상호간 유대강화 및 현황파악을 통해 조직화사업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직장직능 신행단체 대표자 대회'가 6월~7월경 1박2일의 일정으로 열린다.

전동차정비창법우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 대한불교제과인회,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등 직장직능 15개 신행단체 대표 20여명은 3월30일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이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결의하고 6인의 준비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6인의 대회실무위원은 조정봉 서울시청불심회 지도법사, 대한불자가수회 남강수 회장, 이순형 한국전력반야회 사무국장, 김동연 감사원불자회 총무, 김태경 한국세무자불자회 총무 등.

대회준비실무위원회는 9일 오후 7시 포교원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갖고 대회 장소 및 일정, 프로그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각 단체별 정보교류와 신행활동의 경험을 나누고, 단위법회 및 연합조직 모범사례 발표, 지역별·동일업종별 법회 활성화와 조직화 방안을 모색하는 선에서 대표자대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직능 신행단체장들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포교원에 직장직능법회 지원팀을 상설화해 통일 의식집 및 초심자교리책자 발간, 초청법사 추천, 행정적 지원을 전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은 "원활한 직장직능 법회 운영은 불교를 대중화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며 "예산이 넉넉하게 책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직장직능법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 거리의 포교사' 운불련 회원들이 25일 금산사에서 영호남 친선교류 연합법회를 봉행하고 기념촬영했다.

영호남 화합 나선 거리포교사

운불련 금산사서 연합법회

불자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이 영·호남 화합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전주지역회(회장 최병식)는 3월25일 금산사에서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등 운불련 21개 지역회, 전북지역 23개 신행단체 대표 및 회원 3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호남 친선교류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제 2건국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최병익 회장은 "정치판에서 조장된 지역감정이 사회적 병폐로 지적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면서 "'거리의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운불련 회원들이 영·호남 화합을 다져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도필선 기자

정부 6개기관 합동 수련

27·28일 영천 은해사서

감사원, 보건복지부, 국세청, 경북·전북도청, 영천시청 등 3개 정부부처와 3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불자회가 3월27일~28일 은해사에서 합동 성지순례법회<사진>를 가졌다.



1백여명의 회원들은 거조암 선본사를 참배하고 발우공양 습의 등 사찰예절에 관한 강의를 받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감사원불자회는 28일 감사원 법당에 모실 은해사 괘불탱화(보물 1270호) 축소제작품 점안식 및 이운식을 갖기도 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부경연등회 창립 1돌 법회

새정치국민회의 부산경남연등회(회장 사상호)는 창립 1주년을 맞아 9일 오후 6시 국제신문사 대강당에서 '21세기를 준비하는 국민화합 대법회'를 봉행한다.

사상호 회장은 "지역간, 계층간 갈등구조의 불교적 해결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혜암스님이 증명법사로 자리를 함께하는 이날 법회에는 범어사 주지 성오스님, 백양사 주지 다정스님, 송광사 주지 현지스님을 비롯해 연등회 박상규 회장, 조선대 김종호 회장은 "법당 거원을 계기로 클럽운영의 활성화는 물론 보다 적극적인 반야행을 결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모임에선

김홍명 총장, 부산고등법원 안문태 법원장 등 1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반야라이온스 선원 열어

부산반야라이온스클럽(회장 김종호)은 3일 수영구 광안동에 반야선원을 개원했다.

김종호 회장의 전액보시로 개원된 반야선원은 부산라이온스클럽 전용법당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청소년 포교와 상담, 일반불자의 신행공간으로 활용된다.

불자가수회장 남강수씨

대한불자가수회는 28일 오후 3시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갖는다.

이날 이취임식에서는 임기만료된 명국환씨가 회장에서 물러나고 남강수씨가 신임 회장에 취임한다.

대한불자가수회는 이에앞서 오후 2시 가수회와 불교방송후원회, 일반불자 등과 함께 4월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옹고집 없는 선객 화두없는 선객"

지허스님의 선방일기 (13)

〈지난 호에 이어〉

니체는 탄식했다.

"언제나 나는 나의 입이 노래하면 나의 귀가 들을 뿐이로다."

이 얼마나 잔혹하리만큼 절절하게 표현한 고독의 극치인가. 고독속에서 고독을 먹고 고독을 노래하면서도 끝내 고독만은 낳지 않으려는 의지가 바로 선객의 의지이다. 화두는 거북이 걸음인데 세월은 토끼뜀질이다. 어찌 잠시라도 화두를 놓을 수가 있을까.

선객은 옹고집과 이기와 독선으로 뭉쳐진 아집(我執)의 응고체라고 흔히들 비방삼아 말한다. 그러나 비방이 아니라 사실이며 또한 실상이어야 한다.

불교는 가르치고 있다.

"아집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그렇다면 나(如來)만이 그(衆生)를 제도할 수 있다는 아집까지 버려야 할까. 그래서 수보리(須菩提)는 물었다.

"여래는 여래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원한다면 아상에 떨어지고 원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중생을 건지나이까?"라고.

아집없는 선객은 화두없는 선객과 같다. 견성하지 못하고 선객으로 머무는 한 아집은 공고히 하고 또 충실해야 한다.

잠자리에 들었을 때 옆에 누운 지객스님이 조용히 말을 걸어왔다.

"연륜을 더했군요."

"그렇게 되었네요."

"지난해엔 제자리 걸음도 못한 것 같아요. 금년엔 제자리 걸음이나 해야 할텐데 별로 자신이 없군요."

"어려운 일이지요. 평범한 인간들은 시간을 많이 먹을수록 그것으로 인해 점점 빈곤해지고 분발없는 스님들은 절밥을 많이 먹을수록 그것으로 인해 점점 나태와 위선을 쌓아가게 마련이지요. 나아가지 못할 바에야 제자리 걸음이라도 해야 할텐데…."

■1월3일 단식기도

생식을 하는 스님이 산신각에서 단식기도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생식을 시작한 지 6개월이 된다고 하는데 몸이 무척이나 약했다. 상원사에서 처음 만났을 때보다도 더 두드러지게 약해 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입산했다는 스님인데 독서량이 지나치게 많아 정돈되지 못한 지식이 포화상태를 지나 과잉상태다. 그래서 두루 깊이없이 박식하다. 극히 내성적이어서 집념이 강하고 몸이 약하니 극히 신경질적이고 여러가지로 박식(?)하기 때문에 오만하고 위선기가 농후하다.

절밥을 오른손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의 햇수밖에 먹지 않았는데도 도인행세를 하려고 하니 구참 선객들에게는 꼴불견이다. 틀림없는 삐에로다. 남과 얘기할 때는 상하나 선후 구별없이 가부좌를 한 채 눈을 지그시 감고 말을 느릿느릿 짐짓 만들어서 하고 걸음걸이도 느릿느릿 갈지자로 걷는다. 그러다가도 누가 자기 자존심에 난도질을 하면 신경질이 발작하여 총알같은 말씨로 갖은 제스처를 써 가면서 응수한다. 생식은 공부하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하나의 상(相)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의 언행이 대변해 주고 있다. 지기를 싫어하는 뒷방 조실스님도 이 스님에게는 손을 들고 말았다.

약간 병적인 그의 언행이 대중들로부터 지탄을 받다가 끝내는 버림을 받았다. 개밥에 도토리격이 된 그가 마지막으로 자기는 아무래도 대중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과시해보려고 착상한 것이 바로 단식기도이다. 그의 건강으로 보아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 엄동에는 더구나 안 될 일이다.

점심공양을 마친 나는 처음으로 그 스님과 마주 앉았다.

"스님, 단식기도를 하신다면서요? 이 엄동에 냉기 감도는 산신각에서…."

"예, 모두가 따뜻한 방안에서 시주밥이나 얻어먹고 망상만 피우면서 시비만 일삼으니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입니다."

기가 콱 막힌다. 그러나 시비할 계제는 못된다. 그와 나는 여러가지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님이 우매한 대중의 업장을 도맡아서 녹여볼까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단식하면서요."

"고마운 생각이오. 하지만 스님, 〈장자경〉을 독파했다니 한단지보(邯鄲之步)를 기억하시지요? 연나라 소년이 조나라 도성인 한단에 가서 조나라 걸음걸이를 배우려다가 조나라 걸음걸이를 배우기 전에 자기나라 걸음걸이까지 잊고 필경 네발로 기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고사 말이외다."

"예, 알고 있지요."

나는 서서히 그의 허를 찔러 상을 벗겨보기로 했다.

"서시빈목(西施矉目)을 기억하시지요? 미인 서시가 병심(病心)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고 마을을 지나가는 것이 예뻐 보이자 그 마을 추부(醜婦)도 흉내로 눈살을 찌푸리고 다니니 부자는 폐문한채 외출을 금하고 빈자는 처자를 이끌고 그 마을을 떠나갔다는 고사말이외다."

"그것도 기억하고 있지요."

'그는 아니꼽다는 듯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스님, 누워서 한시간 취하는 수면은 앉아서 취하는 세시간의 수면보다 승하고, 서서 취하는 다섯시간의 수면보다 수승할 것입니다. 자성(自性)을 무시하고 인간의 작위에 성명(性命)을 맡기는 자는 언제나 허위에 사로잡히기 마련이오. 구도자를 표방하고 고행을 한다면 양생(養生)을 외면하는 행위는 종교적 의식으로 재계(齋戒)는 될지언정 심적 재계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고행은 끝내 자기학대가 아니라 자기위주가 아닐까요."

"무서운 양도논법(兩刀論法)이군요. 마치 문턱에서 두발을 벌리고 입(入)이냐 출(出)이냐를 묻는 것과 같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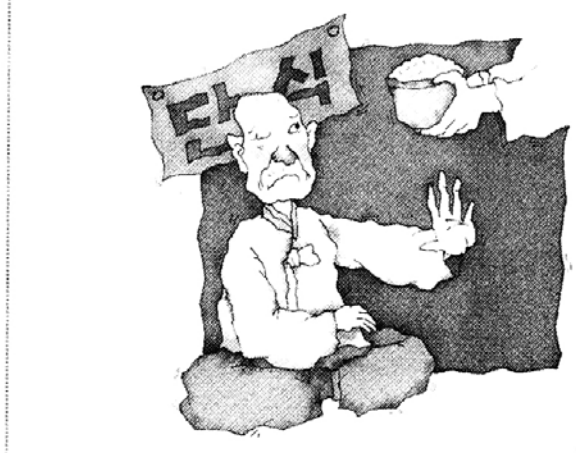
"논리적인 시(是)와 비(非)를 떠나 시비를 가려 보자는 거요."

"표준의 상대성 때문인가요."

"아니요, 다만 언어의 한계성 때문이지요."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지요. 고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학대임에 틀림없습니다. 자기학대는 자기 훼손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노자도 언급했습니다. '위도(爲道)함에 일손(日損)이니 손지(損之) 우논지(又損之)하여 이지어무위(以至於無爲)하면 무위이무불위의(無爲而無不爲矣)'라고. 손(損)에 손(損)이 거듭하여 손함이 없을때 비로소 득도할 수 있음을 말하는게 아니겠어요. 자기위주면 타인은 벌서 안목 밖이 아니겠어요."

〈계속〉



그림·이준석

분발 없으면 절밥 먹을수록 위선만 쌓여
자성 무시한 단식강행은 자기 학대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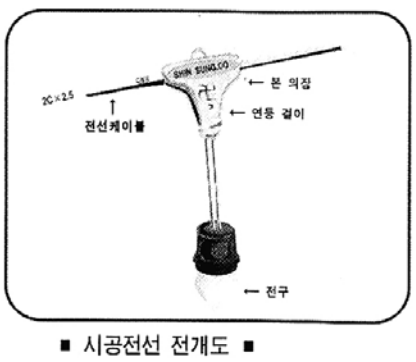
봉축연등 · 법당 기도등용 일체형 전기배선

(기존의 제품에 비해 전선은 굵고 크기는 작게 **"T형 일체형 전선"** 탄생)

{의장 제 16525호}



▲ 전기배선 시공한 법당



■ 시공전선 전개도 ■

▶ 규격

· 법당용 - 30cm, 40cm, 50cm
· 외부용 - 1M, 1.5M, 2M, 3M

▶ 사용용도

· 사찰 연등용

▶ 특징

1. 일체형으로서 접촉 불량이 없습니다.
2. 연등 설치시 편리하게 연등고리를 만들었습니다
3. 불자 기업으로서 卍 표시를 하였습니다.
4. 재료 절감과 청교한 제품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5. 설치 수거하실 때 기존의 제품과 비교해 한층 더 수월합니다.

안전하게 제작에서「시공」까지 깔끔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신성기획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397-17호
TEL: 02)3141-3789 / 02)332-3786
H.P: 019)380-3786 FAX:02)322-3785

경기 북부 대리점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청평리 317-4
TEL 0356)584-5663 FAX 0356)584-6300
H.P 011)758-7329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생리때가 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번 지어 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했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영재 박사의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괘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자신도 몰라 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해당되는 증상에 (O)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유고 연방 공습이 계속되면서 가족과 고향을 잃은 코소보 난민들의 비탄에 잠긴 모습이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나토의 공격으로 세르비아인들은 알바니아인에 대한 잔혹한 인종청소를 시작했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하루에 수만명의 알바니아인들이 코소보를 탈출하고 있다. 전쟁은 당사자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이다. 전쟁의 확산을 막기위해 세르비아인은 인종학살을 중단하고, 나토도 폭격대신 외교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쟁은 살생을 부추기고, 평화를 깨뜨린다. 그리고 궁극에는 인류 삶 전체를 뒤흔든다. 유고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극이 하루빨리 수습되길 기대하면서 전쟁과 관련한 경전속의 가르침을 되새겨 본다.

〈편집자 주〉

이렇게 들었다

전쟁 **"다툼으로 다툼 그치게 못한다"**

▨다른나라 군대가 침범해 왔을때, 그 강약을 잘 관단한 다음에 방편으로서의 지혜를 써서 평화리에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런 사람은 의당 천주(天主)가 될 것이다. 〈제법집유경〉

▨아난이 존나라는 사문에게 말했다. "외도가 분쟁을 일으키려 한대도 같이 싸우지 말라. 분쟁을 일으키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고뇌를 맛보게 할 것이며, 심지어 모든 천인들에게까지도 이로움이 없을 뿐 아니라 고뇌를 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식쟁인연경〉

▨적과 싸워 무기로 해치면 동조옥(銅爪獄)에 떨어진다. 〈육취윤회경〉

▨무기를 드러내 사람들을 위협해 서로 해칠 경우에는 교화해서 화합케 하여 정법으로 인도해야 한다. 〈대반열반경〉

▨다툼으로써 다툼을 그치려 하면 필경 그치지 못한다. 오직 참아야 능히 다툼을 그치느니라. 〈중아함경〉

▨부처님께서 사우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코살라국의 파사익왕은 마가다국의 아사세왕과의 사이에 알력이 생겨 아사세왕이 코살라국을 쳐들어왔다. 파사익왕도 군사를 이끌고 벌판에서 싸움을 벌였으나 결국 패하여 사위성으로 피신했다. 마침 성안으로 걸식을 나갔다가 이러한 소식을 들은 비구들이 부처님께 돌아와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싸워 이기면 원수가 많아지고, 패하면 누워도 편치 않다. 이기고 짐, 이 두가지를 함께 버리면 자나 깨나 고요한 즐거움이 있다. 〈잡아함경〉

▨싸움이란 참으로 이상한 것이다. 이기면 다시 이겨야 하고 항복받으면 다시 항복받아야 하며, 해치면 다시 해쳐야 한다. 〈중아함경〉

▨물이 항상 넘친다면 우물 때문에 다투지 않는다. 〈소부경전 자설경〉

▨싸움터에 나가 천번 싸우고 천명의 적을 이기느니보다도, 자기에게 이기는 자야말로 최상의 전사이다. 〈법구경〉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에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하지 말라. 〈법구경〉

▨모든 생명은 안락을 바라는데 폭력으로 이들을 해치는 자는 자신의 안락을 구할지라도 뒷세상의 안락을 얻지 못한다. 〈법구경〉

▨산 것을 몸소 죽여서는 안된다. 또 남을 시켜 죽여서도 안된다. 그리고 죽이는 것을 보고 묵인해도 안된다. 난폭한 짓을 두려워하는 모든 생물에 대해서 폭력을 거두어야 한다. 〈숫타니파타〉

▨불자들은 칼이나 몽둥이, 활, 화살, 창, 도끼 등 싸우는 기구를 마련해 두지 말라. 그물이나 올가미나 덫과 같이 산것을 잡는 기구도 마련해 두어서는 안된다. 보살은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에게도 원수를 갚지 않는데, 하물며 아무 죄도 없는 중생을 죽여서 되겠느냐. 〈범망경〉

▨증오는 절대로 증오로써 쉬게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사랑에 의해서만 쉴 수 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아함경〉

▨욕심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혹은 죽고 혹은 두려워하며, 지극히 심한 고통을 받는다. 〈중아함경〉

▨전쟁에서 수백만을 정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정복한 사람은 정복자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이다. 〈아함경〉

▨어떠한 원한도 원한을 갚음으로써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원한은 원한을 용서함으로써 해결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아함경〉

▨칼과 몽둥이 등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항상 바른 지혜에 입각한 방법과 수단으로 모든 악을 쫓아야 한다. 〈대반열반경〉

열린마당

'출가정신과 재가연대' 심포지엄

잦은 종단분규의 방지책을 모색하고 불교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종단을 이끌어가는 스님들이 부처님출가정신으로 돌아가야 하며 재가단체들이 연대한 재가연대는 이를 지켜보고 종단개혁에 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포지엄이 열렸다.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공동대표 박광서 임완숙 임동주) 창립기념으로 27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출가정신과 재가연대'를 주제로 이중표 전남대교수가 '98년 조계종사태와 부처님 출가의 의의' 최연씨(대불련 총동문회 사무총장)가 '재가연대의 조직과 활동방향'에 대해 발제, 종단 분규를 막고 청정교단을 이룰수 있는 방안과 출·재가와 관계, 재가연대의 활동방향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발제와 토론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주〉

"출가정신으로 분규 막자"

발제 이중표 〈전남대 교수·철학과〉



한국불교가 침체 일로에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종단의 분규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 62년 통합종단이후 98년까지 조계종에는 36년동안 무려 28차례의 총무원장 교체가 있었다. 이중 20여번은 분규에 의해 교체됐으니 평균 1.8년에 한번꼴로 종단분규가 있은 셈이다.

조계종분규가 반복되는 것은 종단내부에 분규를 막을 스님들의 정신적 변화나 제도적 변화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규를 막기위해선 스님들의 의식과 생활이 변하고 종단운영과 조직이 부처님 가르침에 걸맞게 돼야 한다. 출가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본분사에 전념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으므로 현재의 총무원이 이 점을 깨닫고 스스로 개혁하여 부처님 가르침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문제 해결이 있을 것이다.

사실 종단을 누가 장악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종단의 구성원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가 중요하다. 즉 종단구조가 아니라 구성원의 의식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부처님의 출가의의를 되새기기 위해서라도 출가자의 걸식을 공식으로 제안한다.

스님들은 부처님 출가정신으로 돌아가 여법하게 수행하고 재가자들은 그러한 출가자를 본받아 살아갈 때 종단분규가 종식되고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 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청정교단 만들기 역점"

최연 〈대불련 총동문회 사무총장〉 **발제**



재가연대의 공식출범은 조계종사태 당시의 비상국면에만 자신의 존재의미를 안정짓지 않고 완결성을 지향하여 상설단체화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순히 지난해 일어났던 조계종사태의 해결에만 머무르지 않고 '조계종의 일상을 개혁하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본다. 재가연대는 불교내외의 상황에서 부처님의 정신에 맞는 새로운 대안을 중심으로 한 불교개혁의 과제를 제출하고 풀어갈 수 있는 새로운 개혁세력의 형성에 초석을 다지는 것에 존재이유를 두어야 한다. 재가연대는 △재가불교의 단일 대오 형성을 위해 지도력있는 재가중심을 형성 △신행 혁신과 주인의식 고취 △재가와 출가의 진정한 화합으로서의 사부대중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재가연대의 활동방향은 △재가불자 신행혁신 △청정교단 만들기 △대중공의 모으기 △사회참여 회향 등으로 집약된다.

재가연대는 청원과 비판, 감시를 뛰어넘어 참여속의 개혁운동이 되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위해 말사의 사찰운영위원회나 각 교구의 종회, 본사운영위원회 그리고 중앙종회나 행정부의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재가연대가 긴밀하게 연결돼 움직여가야 한다.

이와 함께 불자로서 수행 화합 단결의 모범적인 모습을 찾는 것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토론

파문승려 관리 철저 ▲윤원철(서울대 교수)=한국불교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재가불자를 제대로 이끌 선지식과 승려본분에 합당치 않는 승려를 구분하고 이를 공론화해야 한다. 파문당한 승려임에도 버젓이 승복입고 드러내 활동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또 여건이 되는 사찰에서는 스스로 농사를 짓고 이러한 '일일부작 일일불식'의 청규를 스님들에게나 재가신도들에게 중요한 일상의 수행방편으로 널리 권장했으면 한다.

종단운영 스님 집중 ▲성재도(부산불교교육원장)=한국불교의 문제는 스님의 수행부족과 종단운영권이 스님들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기인한다. 또 청정하게 교단을 외호하는 재가불자의 조직 결여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스님들이 여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안거 의무연한제 시행 △법계제도 확립 △불자들의 수행자 존중풍토 조성 △삼보정재 수호에 대한 책임감 확립 등도 시급하다.

재가의 전문성 인정 ▲손혁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재가연대는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재가불자들의 전문성을 불교계로 회향 할 수 있는 통로가 됐으면 한다. 이런 작업이 없었기에 불교의 사회적 실천이 미약했고 종단문제에도 재가불자들의 의사가 반영되기 힘들었다.

재가연대는 출가와 재가의 대립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출가수행자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해야 한다. 종헌에 규정된 사찰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 재가역량을 결집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재가와 출가가 함께 고민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방안도 도출해야 한다.

비판보다 계몽 활동 ▲윤남진(조계종 포교계장)=재가연대는 조직의 허리와 지도급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야 하고 집행지도력(조직의 허리)간의 전국적인 의사소통구조를 갖추고 재가연대 프로그램의 공동마련과 공동시행을 위해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활동방법에 있어서도 선동 비판보다는 사표와 모범을 지향하며 대안제시가 중요하다. 계몽적 활동가를 지도부의 중심에 두고 활동하는 것도 필요하다.

목탁소리

정 성 운 〈취재 1부 차장대우〉

무자격자 수계?

무자격자가 비구계를 수지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이 문제가 처음으로 공식 거론됐다.

종회 교육분과위원회에 따르면 모두 35명이 무자격 비구계 수지자로 나타났다. 안거방함록 미기록, 가족관계 유지, 기본교육 미이수 등이 이유라는 보고였다. 승려법과 계단법에는 강원을 마쳤거나, 선원에서 8안거를 성만해야 비구계 수계 자격이 주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자격자가 비구계를 수지했다 함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문제를 제기한 스님의 표현대로 계단은 "승단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여법한 수계로부터 위계질서가 세워지고 승가공동체가 확립되는 것이다.

신자들의 입장에서 스님은 귀의처이다. 부처님과 같은 거룩한 존경의 대상이기도 하다. 무자격자의 비구계 수계는 신도와 스님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 이르면 이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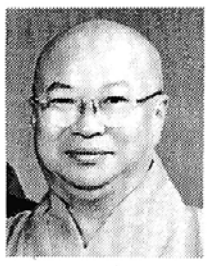
이미 수계를 했으므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조계종 139회 종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며 "다음부터 철저히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분명히 종법에 어긋난 것이므로 수계를 박탈하고, 관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비구계는 인정하되 승납은 일정 기간 산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법대로'에는 미흡하지만, 승단의 질서를 바로세우려는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는 평가다.

이제는 '무자격 수계'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고 차후 이같은 문제 발생을 막자는 것이다. 교육분과위 보고에 따르면, 총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재가종무원들이 서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서류심사는 갈마위원회 소관이다"는 이유를 댔다. 계단위원회는 "계를 설(設戒)하고 신체갈마를 하면 된다. 어떻게 서류를 모두 볼 수 있느냐"는 입장이다.

아무튼 두 차례의 종회를 거치며 무자격자 구족계 수계 문제는 일단락됐다. 승단의 위계는 교단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중시해 교육분과위의 다음과 같은 제안이 제안으로만 머물지 않기를 바란다. "종법에 미비한 심사규정을 종령으로 규정해야 하며, 서류 심사에 대한 종법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swjung@buddhapia.com)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 본사 생산제품 ·

솔선식(2개월 ₩500,000), 솔효소정액(2월 ₩500,000)

익수영진고 (2개월 ₩1,000,000), 치신왕기환(3개월 ₩500,000)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영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범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솔선식(松仙食)」,「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익수영진고」,「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랑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티벳 불교미술박물관 9월 개관

한빛문화재단, 서울 이태원에 탕카 · 불경 · 불구류 상설전시 최근 '탕카의 예술' 제2권 출간

티벳 불교미술의 진수를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문박물관이 9월에 문을 연다.

한빛문화재단(이사장 한광호)이 서울 이태원동에 200여평 규모로 꾸밀 화정박물관은 티벳 불교미술의 진수인 탕카는 물론 불경과 불구류 등을 상설 전시한다. 탕카란 티벳등 밀교를 신앙하는 나라에서 밀교의 교리에 따라 여러 가지 채색으로 천에 그림을 그려 사원과 법당을 장엄하는 걸개그림으로 우리나라의 탱화에 해당된다. 불보살도와 만다라도등을 포함하는 불교회화의 총칭인 셈.

한빛문화재단은 한광호 이사장이 지난 40여년간 수집한 티벳 불교미술품을 비롯 동남아 각국에서 수집한 불교관련 고미술품 수천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세계 각국의 고미술품을 상당량 소장하고 있어 박물관이 개관되면 주제별 기획 전시도 할 계획이다.

9월 중순 화정박물관의 개관을 기념하기위해 '티벳의 불교미술'을 주제로하는 개관전시회도 갖는다. 이 전시에서는 불화 50여점과 불경 불상 불구류 등 150여 점을 엄선해 선보인다. 한빛문화재단 한광호 이사장은 "40여년전부터 불교 고미술품에 관심을 갖고 수집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일본의 고대사학자 에가미 나미오(江上波夫) 박사의 권유로 티벳 불교미술품을 중점적으로 수집했다"고 밝혔다. 한 이사장은 "수천 점의 미술품을 수집하고 보니 혼자 감상한다는 것이 한국의 불자들에게 미안해 박물관을 열기로 결심했다"며 "티벳을 포함한 동남아 각국의 불교미술을 두루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광호 이사장

화정박물관의 개관은 티벳 탕카를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감상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탕카는 중국 명 청대의 불화와 함께 우리나라 불화를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의 관심도 적지 않다.

한빛문화재단은 지난해 '탕카의 예술' 제1권을 간행한데 이어 최근 제2권을 출간했다. 제2권은 탕카예술을 형식별로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됐으며 만다라, 여래도, 보살도, 나한도 등100여 점의 탕카를 소개하고 있다. 수록된 탕카의 선정과 해설은 한빛문화재단의 학술고문인 일본의 티벳불교 전문연구가 타나까 키미아끼(田中公明) 박사가 맡았다.

임연태 · 김중근 기자(ytlim@buddhapia.com)


◇ '탕카의 예술' 제 2권에 소개된 탕카. 9월에 문을 여는 화정박물관은 동남아 불교 관련 고미술품도 수천점 소장하고 있다.

문화 단신

선암스님 연꽃사진전

연꽃 사진을 찍어 온 선암스님의 사진전이 23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롯데백화점 겔러리에서 열린다.

'연꽃의 4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연꽃이 피기전부터 스러지기까지의 전과정과 한겨울 연밭의 정취를 담은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백현순씨 선무 발표

'무아'와 '공'의 세계를 춤으로 형상화 시켜 온 백현순(동국대강사)씨가 '見-나를 보다'란 주제의 선무를 선보인다.

9일(오후7시30분)과 10일(오후6시) 이틀간 신촌 포스트극장에서 공연되는 백씨의 작품은 자신의 진면목을 보기 위한 구도자의 고뇌와 깨침으로 얻어지는 희열들을 묘사하게 된다. 이번 작품은 김응기교수(동국대국악과)가 연출했으며 이기향교수(한성대의류직물학과)가 의상을 맡았다.

동국기획 '명무명인전'

김천흥, 이생강, 이애주, 임이조, 이춘희씨 등 불자 국악인들의 농익은 예기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된다.

동국예술기획이 17년째 기획한 '명무명인전'. 4월 13일과 14일 오후7시 30분 호암아트홀에서 열리는 이 명인전에는 각 분야에서 대가를 이룬 명인들이 대거 참여한다. 정상급 출연진이 선사할 프로그램도 궁중무용에서 민요까지 다양하다. 승무, 태평무 등 대표적 춤사위와 민요 산조등 기악이 어우러지게 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궁중무용의 최고령 춤꾼인 김천흥(91세)옹의 '춘앵전'이 볼만한 프로로 꼽히고 있다.

봉축 순회사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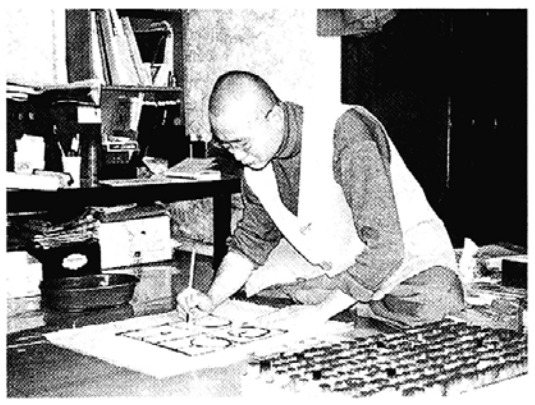
한국불교사진연합회(회장 이병운)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순회전시회를 갖는다.

전시회는 4월 30일부터 6일간 부천 문예전시관에서 첫 테잎을 끊고 서울(5월15~22일) 광주(5월29~6월6일) 등지에서 열린다.

김주성교수 첫 서예전

새로운 한글서체를 개발한 김주성교수(한국교원대 사회교육과)가 첫 전시회를 갖는다.

1일부터 7일까지의 일정으로 인사동 백악예원에서 선보이고 있는 김교수의 서예전은 한글초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한글흘김체'라 이름 지어진 김교수의 서예작품들은 한글로도 자유자재의 서법을 구사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반야심경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혜천스님.

선화로 읽는 반야심경

혜천스님, 낙관-선화로 空 해석

초파일쯤 작품집 펴내

반야심경을 그림으로 읽는다.

600개의 낙관과 270장의 선화, 그리고 문구별로 새긴 낙관과 화두를 던지는 듯한 해설. 혜천스님(손모음선원주지)이 반야심경을 그림으로 풀었다. 큰 주제는 '선화로 보는 반야심경'.

'나의 주인공'을 찾아 떠난 한 구도자가 깨달음에 이르고 다시 자신의 참모습을 찾기 위해 부단히 수행하는 과정을 반야심경의 의미에 대비시켜 푼 것.

"글 보다는 그림이 빠르게 와 닿는다는 점에 착안해 그림과 낙관 새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반야심경을 의미로만 읽기보다는 그림을 통해 더욱 간절하게 되새겨 보자는 겁니다."

'무(無), 공(空), 행(行) 심(心) 선(禪)' 결국 공도 없고 행함도 없고 마음도 없는 곳이 선의자리이며 그 선의 자리마저 없는 곳에서 깨달음의 법열을 체득할 수 있다는 것이 혜천 스님의 작업이 주장하는 핵심이다. 수품으로 구성된 이 작품들은 책으로 묶여질 계획이다. 도서출판 밀알이 부처님 오신날을 전후해 혜천스님의 작품을 한 권의 책으로 펴내게 된다.

임연태 기자

禪소설 '선종' 펴낸 이기호씨

"만공스님 이 시대 사신다면…"

13년전 교도소에서 등단했던 소설가 이기호씨. 역사소설이나 폭력의 세계를 다룬 소설집 20여권을 내는 왕성한 활동을 했던 그가 불교에 귀의했다. 신앙적으로 귀의했을 뿐 아니라 경허선사의 대를 이어 근대 한국불교의 큰 선맥을 이룬 만공스님을 환생시키며 귀의했다.

소설 '선종(禪宗)', 만공스님을 환생시켜 놓고 환생한 만공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세간과 출세간의 온갖 행태들을 그려내고 있다.

"감옥에 있는 나를 등단시켜 준 현재훈 선생님의 한 마디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반드시 불교를 공부해서 불교소설을 쓰라고 하셨는데 그간 자신도 없고 먹고사는 일을 좇아 다니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불혹의 나이에 이르러서야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을 파고들어 왔고 소설을 쓴다는 일이 자꾸만 허전해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만공스님이 이 시대에 살아 오신다면 어떨까?'였고 작업에 매달렸다.

"이번 소설을 쓰면서 행복했습니다. 또다른 작품을 구상하고 써나갈 힘도 생겼고 참다운 불자로 귀의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의 두 번째 불교소설 '서장'도 완성단계에 있다. 서장은 요즘도 강원에서 사집과의 한 교재로 쓰이는 책으로 중국의 대혜종고 스님이 쓴 선관련 서적이다. 고요한 곳에서의 선수행보다는 시끄러운 곳에서의 수행을 강조한 이 책의 내용을 이기호씨는 어떻게 소설로 가공했을까. 평탄치 않은 젊은 시절을 보낸 한 작가가 불교에 귀의하며 가슴에 보듬고 들어 온 신작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연태 기자

EBS '우리문화 세상보기'

최완수씨 강의 '인기'



최완수씨(간송박물관 학예실장)가 EBS-TV '우리문화 세상보기'(담당PD 손복희)를 통해 한국 불상 및 고미술의 유래와 신비로운 예술적 가치 등에 얽힌 의문점을 풀어 주는 TV 강의실을 열었다.

이 프로에서는 인도와 중국을 거쳐 한반도로 건너와 꽃을 피운 한국의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에 대해서 조명해 본다. 또 한국 미술사상 회화가 가장 발전했던 조선시대 진경 산수화의 예술적 가치와 함께 우리 민족 문화의 저력도 소개된다.

특히 26일 방송될 '붓 끝에 담긴 혼'에서는 우리 민족의 서체를 추사체 이전과 이후로 나눠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지혜를 현장감 있는 슬라이드 필름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준다. 5일 '한국으로 건너온 불상'편에 이어 △12일 조선의 그림은 말한다 △19일 조선의 회화(진경산수화) △26일 '붓 끝에 담긴 혼' 등의 순으로 방송된다. 저녁7시20분.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지도 한장에 경기문화유적

경기도박물관 '유적지도' 비지정문화재도 총망라

지도 한 장으로 경기도의 문화유적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박물관(관장 장경호)은 경기남부 14개 시군지역의 지정 · 비지정문화재를 총망라해 누구라도 쉽게 문화재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경기문화유적지도-1〉를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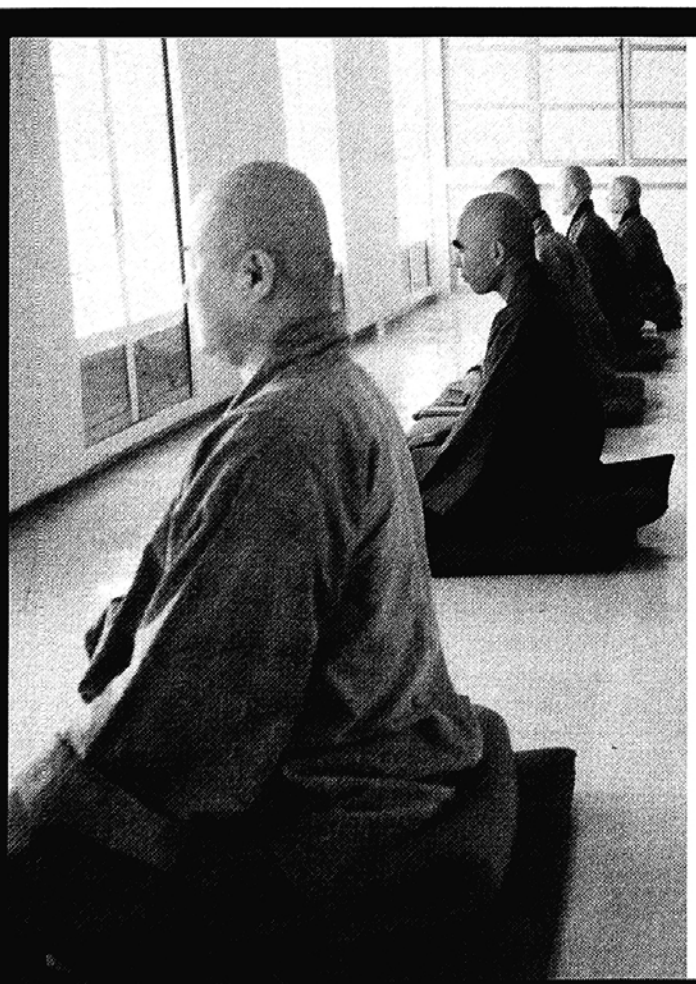
지도제작사인 (주)대한항업과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 조사팀에 의해 제작된 이 지도는 수원 · 안양 · 부천 · 광명 · 평택 · 안산 · 과천 · 오산 · 시흥 · 군포 · 의왕 · 용인 · 안성 · 화성등 14개 지역의 문화유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국가 · 경기도 · 시군의 지정문화재뿐 아니라 현재까지 알려진 매장문화재를 포함해 모든 비지정문화재를 포괄하고 있으며 현지조사과정에서 새롭게 찾아낸 유적까지도 함께 수록했다.

이를 위해 박물관측은 〈문화유적총람〉과 각 시 · 군지, 각종 학술조사보고서등 문헌자료를 참고해 유적의 목록과 현황을 작성했으며, 현장조사와 수정작업을 거쳐 우선 5천분의 1 기본도에 위치를 기록하고 이를 2만5천분의 1지도로 옮겼다.

경기도는 경기 중부와 북부지역에 대한 문화유적지도도 연차적으로 펴낼 계획.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주머니 속 대장경 303 - 선(禪)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한형조 교수의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선(禪)은 논리와 변증을 극도로 싫어한다. 상징과 역설로 비틀다가 성에 안 차면 직접 행동으로 나선다. 코를 비틀고 발등을 찧으며, 몽둥이 세례를 주고 손가락을 자른다.

그 동안 선(禪)을 지나치게 교(敎)의 〈혁신〉의 측면에서만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선은 교(敎)의 〈연장〉이기도 하다. 선의 혁명은 소승에서 대승에 이르는 난만한 교학의 발전 그 정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점을 놓치면 선의 활발발한 거래를 정당하게 읽을 수 없다. 이 글은 선이 〈언어를 버리기까지〉의 고민과 배경을 살피고, 그 불가해한 언설에 담긴 이론과 맥락을 탐색해 나간다.

선의 문헌은 역설쩐이게도 방대하기 그지없다. 그 가운데 수행자들의 실지 수련을 위해 간명하게 정리한 화두(話頭)집인 『무문관(無門關)』을 통해 선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는다. 『무문관』은 선의 궁극적인 화두, 즉 "너는 누구냐"라는 실존적 물음에 대한 선의 전형적 접근을 담고 있다.

『무문관』은 엄밀한 의미에서 책이 아니다. 학인들을 위해 독자적으로 제시했던 화두들을 끌어모아 엮은 것일 뿐이다. 그 편집의 체제를 존중하여 강의 또한 굳이 역사와 사승의 선후를 정리하지 않았고, 또 선의 정신에 입각해 해설 또한 단평과 감상을 주조로 했다. 이런 두서없는(?) 강의에 불편해 할 사람들, 즉 선을 역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군데군데 장문의 해설을 끼워 넣었다. 이들을 기축으로 나머지 강의를 참고하면 선의 대강을 가늠할 수 있다.

이 글은 〈번역〉과 〈해설〉 부분으로 되어 있다. 두 부분 모두 근대교육을 받은 세대들을 위한 온전한 현대어역이다. 필자 자신 한문을 외국어로 익힌 한글세대로서 당연한 선택이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한형조 지음/ B6 변형 334쪽 /값 6000원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23 전화 :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

화제의 책

21세기의 참사람 성철·서옹스님 외

큰 스님 14인의 감로 법문 모음집



세계 지성들은 다가오는 천년을 종교의 세기, 정신문화의 시대, 변화의 세기라 예측하고 있다. 변화와 새로운 문명의 전개를 이끌어갈 사상으로 선사상이 매우 비중있게 떠오르고 있다.

근대 한국불교사의 한 획을 그었던 경허스님부터 천운스님에 이르기까지 선사 14명의 감로수와 같은 법문을 모은 〈21세기의 참사람〉이 나왔다. 경허스님의 '진흙소의 울음', 경봉스님의 '네 가지 큰 지혜' 등은 읽을 수록 감동이 커지는 명법문들. 구산스님이 "마음을 깨쳐 살 때 몸과 마음이 화합하여 건전한 정신에 건전한 육체로 살아갈 수 있다"고 설한 것처럼 이 책은 독자들의 마음에 안온과 삶의 희망을 얻기에 충분하다. 〈솔과학, 7천5백원〉

화제의 책

밀린다왕문경 정안스님 지음

문답형식으로 푼 불교의 궁금증



2천년전 불교 근본에 대한 동·서양의 지성을 대표하는 두 현인의 대화가 있었다.

인도를 지배한 그리스 밀린다왕과 아라한과를 증득한 나가세나존자. 이들의 대론을 문답형식으로 묶은 것이 〈밀린다왕문경〉. 나가세나존자와 밀린다왕 전생이 설해지는 서장, 3일간이나 이어졌던 두사람의 끝자리에서 밀린다왕이 나가세나에 설복되는 부분, 수행자가 지켜야 할 덕목과 맺는 말을 설하는 결론부분 등 3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충남 태고사 정안스님이 새로운 필치로 엮어낸 〈밀린다왕문경〉은 평이한 문체와 대화의 형식을 사용하여 윤회, 교단, 출가와 재가의 생활 등 불교의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우리출판사, 1만원〉

화제의 책

불교 선수행의 핵심 송위지교수 옮김

사념처 수행의 모든것 쉽게 설명



부처님의 가르침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을 알고 조절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염처이다. 염처는 대상을 인식하기 위한 기본 기능이다. 염처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같은 일상적인 문제에 흔들림이 없다.

송위지 외국어대교수가 번역한 〈불교 선수행의 핵심〉은 〈사티팟타나 숫타〉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념처 수행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1부에서는 염처의 방법, 목적을 비롯 마음을 조절하는 법과 호흡법인 안반념을, 2부에서는 염처의 기본경전인 〈마하 사티팟타나 숫타〉를, 3부에서는 선과 관련된 다른 경전을 소개하고 있다. 스리랑카 냐나포니카 스님 지음. 〈시공사, 값7천원〉

새로나온 책



▲묘법연화경=대승경전 가운데 꽃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유명한 경전. 김성규 영남대학교 교수가 화엄사상과 함께 함께 중국불교학의 쌍벽을 이루었던 구마라즙의 〈묘법연화경〉을 번역했다. 7권 28품을 번역한 이 책은 원문과 함께 해설이 곁들여져 묘법연화경의 핵심이 회삼귀일(會三歸一)과 구원성불(久遠成佛)의 사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이사금, 1만5천원〉



▲한바탕 멋진 꿈이로구나=월하 관응 혜암스님 등 새로운 세기를 열어가는 전환기의 한국 선을 이끌고 있는 선사 25명의 삶과 깨달음의 법문을 모았다. 불교신문에 연재됐던 〈한바탕 멋진 꿈이로구나〉는 선사들의 법문을 통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감로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양, 7천원〉



▲알기쉬운 한문해석법=〈반야심경〉을 교재로 한문법의 문장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문 해석서. 심재동씨가 펴낸 〈알기쉬운 한문해석법〉은 한자 유래와 변천에서부터 한자의 특성, 한자어의 구조, 한문장의 구조와 형식에 이르는 한문 문법까지 정리한 입문서.〈운주사, 1만2천원〉



▲종교의 위기=현대라는 시대에 지극히 중요한 영역이면서도 본질적인 논의에서는 곧잘 소외되버리는 종교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논의로서, 현대의 종교를 둘러싼 문제에는 어떤 인류사적인 의의가 있는지 등을 조망하고 있다. 일본 우에다 노라유키 지음 양억관 옮김. 〈푸른숲, 5천8백원〉.



▲여성적인 동양이 남성적인 서양을 만났을 때=영국이 기대한 인도의 이미지와 그에 대응하는 인도인에 의한 인도의 얼굴을 그렸다. 영국 식민정부가 공식적으로 '여성적인 인도와 남성적인 영국'이라는 이분법적 성의 구분을 표명한적은 없었다. 저자 이수순씨는 19세기 강하고 남성다운 힘을 발견하는 인도의 심리적 궤적을 추적한다. 〈푸른역사, 8천원〉

월운스님 고희논총 단행본으로

'대장경의 세계' 나왔다



역경불사에 매진해 온 월운스님 불교학논총을 찾는 경학자들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불교학계의 대표적 학자들의 논문을 집대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2월 월운스님 고희기념으로 2천권을 펴낸 불교학논총은 3개월만 절판됐으며 갈 수록 찾는 학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불교학논총을 재발간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자 동국대 역경원을 비롯 향림회, 훈문회 회원들이 논의를 거쳐 재간을 결심했다.

〈대장경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재출간된 이 책에는 경학사상, 불경번역의 방법, 불교와 문학, 한역 대장경의 형성과 현황, 불경의 언해와 국어학, 동국역경원의 어제와 오늘 등 총 9부로 44편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동국역경원, 값 5만원〉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읽은불서 · 새책 한권씩 절로 보내자

현대불교신문은 올 한해 동안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월1회 기획기사를 통해 도서관과 불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서실 만들기·운영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아울러 도서실 만들기를 구체적으로 돕기 위해 '우리절에 불서 보내기' 운동도 펼칩니다. 모든 불자들이 다 읽은 불서 또는 새로나온 불서 한권씩을 다니는 절에 법공양 한다면 많은 절들이 도서실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주지스님을 비롯 교계인사, 신행단체, 불자 여러분이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참안내: ①도서실 만들기에 뜻이 있는 주지스님들은 본사 캠페인팀과 상담해 주십시오.
②불자 여러분은 소속 사찰에 읽은 책 또는 새 책을 보내거나 본사 캠페인팀과 법공양을 의논하시면 됩니다.
△상담전화: (02)737-8881 출판부장
후원: 조계종 포교원,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관음종
협찬: 교계 출판사
(사찰도서실 법공양 불서 30% 할인)

현대불교신문사

차향 가득한 茶書 잇달아 출간

햇차 시즌을 한들여 앞두고 차와 관련된 책들이 잇따라 출간되고 있다. 최근 간행된 차관련 서적은 다도의 정신을 일깨우는 고전들을 해석하거나 다도의 기원을 탐구하는 등 교과서적인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알고 마시면 시와 선을 아우르고, 모르고 마시면 그저 목이나 축이는 차. 차 이야기를 담은 서적을 통해 차향기 속의 진리를 찾아보자.

▲차문화고전= 중국 당대의 육우선생이 최초로 다도정신과 다례를 집대성한 다경(茶經)을 비롯 초의스님의 차신전, 동다송 등에 이르기까지 차문화 원전 14권을 현토(懸吐)해 묶은 책이다. 선혜스님이 현토한 이 책은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박사과정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차문화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다인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 〈전통문화, 값1만2천원〉

▲한국다도의 속멋=다도(茶道)가 일부 계층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정신적인 뿌리를 내리도록 이끌어주는 책이다.

장영동씨가 펴낸 〈한국다도의 속멋〉은 차에 관한 방대한 자료에 독특한 해석을 곁들여 선인들의 지혜와 생각과 차를 노래한 다시들은 다선일미의 참맛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편안함까지 느낄수 있게 한다. 이처럼 이 책은 참된 사람이 되고서 마시는 차, 겉멋이 아닌 속 멋을 지녀 품위나 여유를 가지는 사람들이 배우는 차로 이끌고 있다.

한편 이 책에는 〈동다송〉을 저술하는 등 다도의 정립자로 알려진 초의스님의 전신도가 처음으로 공개돼 주목을 끌고 있다. 〈빛남, 값 1만원〉

▲중원의 茶=우리민족의 국속·민속이었던 차례의 기원을 고문자를 통해 밝히고 다도란 용어가 처음 쓰여진 시기, 다자의 시작에서부터 변천과정 등이 수록됐다. 이 책에서는 다(茶)의 역사는 우리 겨레가 중국대륙 중원의 주인이었을 때 고조선 개국과 더불어 시작됐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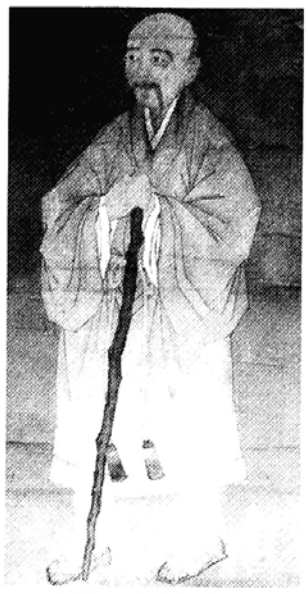
또 숙제로 남아있던 다도란 용어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하여 쓰여졌는가, 다자의 시작에서부터 각 시대를 거치면서 변천하여 온 음(音)과 방언(方言), 차 생활에서 차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차호(茶壺)에 관하여 어느 때 누구에 의하여 시작되고 이어져 왔는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다움, 값1만2천원〉

김중근 기자 (gamja @buddhapia.com)

▲차문화 고전
茶經등 원전 14권 현토

▲한국다도의 속멋
다선일미 참맛 느끼는 법

▲중원의 茶
차의 역사 샅샅이 소개



◇최초로 공개된 초의스님 전신도.

관음의 품으로 이끄는 시어

현호스님 시집 '고향의 숨결'



하늘벽 사이/한 줄기 감로수가/마음길/샘물이 되어 흐른다/하늘 못에서 떨어지는/폭포가 되어/해탈의 지혜와/자비를 일깨운다.(관음폭포 중에서)

승려시인 현호스님의 두번째 시집 〈고향의 숨결〉이 나왔다. 이 시집 1부에서는 우리들 마음의 고향을 찾아 가면서 통일의 희망을 갖게 한다. 2부에서는 달마를 보게 함으로서 시공을 초월하여 대자대비한 관음의 품으로 인도한다. 3부에서는 모두가 하나되어 마음의 고향으로 귀향하게 한다. 〈정화사, 값 5천3백원〉

한국전통음악 체계 한눈에

윤소희씨 '국악창작곡 분석' 펴내



동국대학교에서 분석과 작곡을 강의하고 있는 윤소희씨가 펴낸 〈국악창작곡 분석〉은 음악도들이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풀어 쓴 책이다.

국악관련악곡 분석을 통해 한국전통음악을 현대음악 창작과 전통악기 전반의 구성과 조화에 대해서도 이해를 높이고 있다.

〈국악창작곡 분석〉은 해당 분석곡의 작곡자와 작품배경 설명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작품목록을 장르별로 정돈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자료로서 실용가치가 높다.〈어울림, 1만2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등쪽나라
2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 형 조	여시아문
3	불교입문	조계종편집부	조계종출판사
4	보살의 마음 중생의 마음	일 타	민 족 사
5	입산	재 연	문학동네
6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불교다라니
7	경허 길위의 큰스님'	한 중 광	한 길 사
8	원효(영원한 새벽)	남 동 신	새 누 리
9	티베트의 지혜	소갈린포체	민 음 사
10	위빠나사 33일	법 산	우리출판사

구입문의:(02)737-0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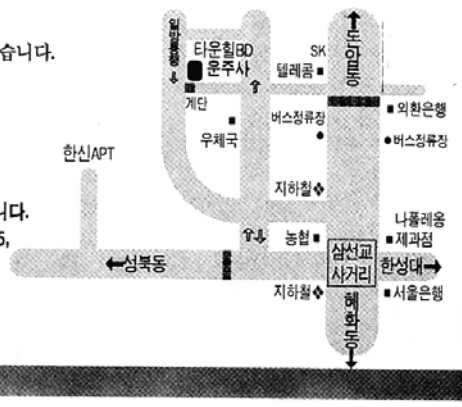
4월 6일

불교서적총판

운주사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전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3층
전 화 : 3672-7181~5 팩스:3672-7186

저희 불서총판 운주사를 아껴주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로지 '불교서적의 보급과 유통'의 한길만을 고집해온
저희 운주사가 매장 및 사무실을 이전합니다.
금번 이전을 계기로 명실상부 국내 최고, 최대의
불교서적 전문총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더욱 성실하고 체계적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채찍을 부탁드립니다.



☆교통 :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 버스 : 2, 3, 5, 5-1, 6, 8, 12, 13, 16, 20, 25, 34-1, 69, 84, 85, 205, 222, 361, 701, 725 삼선교 하차
· 지하철 : 4호선 한성대입구역(삼선교)

솔판시대 전화 : (02)3443-4307 팩스 : (02)3443-4308

법보시용으로 구입하실 경우 할인해 드립니다.
전국 주요서점에 있습니다.

나를 깨우치는 팔만대장경 108가지 이야기



무엇을 웃고 또 기뻐하랴. 생각은 늘 불타고 있도다.
너희들은 여전히 암흑 속에 있으면서 어찌하여 등불을 찾지 않고 있는가.
몸뚱이를 완전하다 생각하여 그것에 의지하여 편안함을 구하는구나.
너더분한 잡념은 병을 가져 오나니 왜 진실 아닌 것을 모르고 있는가.
몸이 무너지면 정신도 떠나니 마치 낡은 수레를 버리는 것과 같아
살은 썩어 문드러지고 뼈도 흩어지나니 이 몸을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신간
無我 | 무아 |
팔만대장경 속의 108가지 비유를 통해 '무아無我'의 참뜻을 가르쳐주는 책!
• 진현종 지음/신국판 변형/368면/값 7,000원

3쇄!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 끝은 왜 보고있나
효봉, 청담, 성철 스님 등 역대 종정들의 삶과 가르침을 한데 모은 역저!
• 김정휴 편지/신국판/456면/값 15,000원

<불교방송> 교리강좌 교재로 채택!
밀교강좌
한국불교와 밀교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밀교 안내서!
• 혜정 지음/신국판/336면/값 12,000원

불갑사 복장유물 '월인석보' 권23
월인천강지곡 495·496곡 수록

97년 전남 영광 불갑사 팔상전에서 나온 복장유물에 포함되어 있던 〈월인석보〉 권23은 〈월인천강지곡〉 495곡과 496곡 등 알려지지 않았던 2곡을 수록하고 있어 불교문학 연구에 새 지평을 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0일 열릴 서지학회(회장 배현숙) 춘계학술대회에서 강순애 교수(한성대)는 '무량사 번각본(飜刻本) 〈월인석보(月印釋譜)〉 권23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다.

〈월인석보〉 권23을 통해 처음 발견된 〈월인천강지곡〉 495곡과 496곡을 분석한 강교수는 이 두 곡이 미륵보살과 현겁보살이 정법을 말고 십육나한과 백억나한이 불법을 지니며, 인생 팔만세에 미륵이 올 것을 예고하는 노래라고 밝혔다.

〈월인석보〉 권23은 순창 구악산 무량사 번각 잔본(연세대 소장)과 일부 결락이 있는 원본(삼성출판박물관 소장)이 발굴된 이후 처음으로 알려지는 번각완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복장본이라 보관상태는 좋지 않지만 원본에서 알 수 없었던 15장의 내용을 확연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강순애 교수는 〈월인석보〉 권23이 다른 권질에 비해 그 구성과 저본경전에 있어 미륵사상을 큰 줄기로 삼은 점과 대장경에 편입된 정장경 이외에 유통경전인 〈목련경〉이 편입된 점 등을 들어 번각완본으로서의 서지학적인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직지심경' 세계최초 금속활자本

중국주장 '御試策' 日서 목판원본 발견

1377년 제작된 〈불조직지심체요절〉이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임이 입증됐다.

이는 중국이 최고의 금속활자본이라 주장했던 〈어시책〉 원본이 조병순 관장(성암고서박물관)에 의해 일본 미쓰비시 재벌 도서관인 정가당(靜嘉堂) 문고에서 발견되면서 밝혀졌다. 〈어시책〉 원본이 1341년 중국 강서성에서 유인초 등에 의해 편찬된 목활자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에 원본이 발견됨으로써 북경도서관에 소장된 〈어시책〉은 16세기 조선시대 중종 연간에 편찬된 목활자본임도 드러났다.

원본의 발견으로 〈어시책〉이 한국의 〈직지심체요절〉보다 앞선 금속 활자본이며 중국이 세계 금속활자의 종주국이라는 중국의 50여년에 걸친 주장은 허위로 돌아갔다.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을 놓고 자존심 싸움을 벌였던 한국과 중국의 논쟁은 97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주최로 열린 '동서 인쇄문화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한 반길성 교수(중국 과학원)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반교수는 "〈어시책〉은 세계 최고의 활자본으로 1341년~1345년 사이 중국 북방에서 편찬됐으며 이는 한국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심체요절〉 보다 32년~36년 정도 먼저 출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혜봉 교수(성균관대)는 "〈어시책〉은 16세기 전반기에 인쇄된 목활자본이고 중국에서 금속활자인쇄를 실제로 성공한 사례는 명나라의 15세기 〈금수만화곡〉(錦繡萬花谷)"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의 금속활자 인쇄술이 중국보다 2세기 앞선다"며 반교수의 주장을 일축했다.

원본 〈어시책〉이 목판본임이 밝혀짐에 따라 성암고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삼장문선〉 5~6권이 가장 앞선 금속활자본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일본에서 발견된 〈어시책〉 원본. 목판본으로 밝혀졌다.

유네스코, '직지심경' 한-프 공동등재 요청

유네스코가 작년 11월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중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을 한국과 프랑스 공동명의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할 것을 양국에 요청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에대해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이미 불가방침을 통보했으며 한국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견해가 일부에서 대두되고 있다. 국내 문화재관계자들은 한국과 프랑스 정부간 외규장각 도서반환 협상을 비롯한 해외유출 문화재 반환운동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재산보호차원 신생종단 생겨"
김방룡씨 '한국불교 신생종단 성립과 사상'

"불교계의 신생종단은 기존 전통종단에 대한 철저한 반성 내지 새로운 불교로서의 모습을 지향하고 출발했다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변화나 불교계 내부의 이권 다툼의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사찰과 암자를 유지하려는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가 펴낸 〈한국종교〉 23집에서 김방룡씨는 '한국불교계 신생종단의 성립과 사상'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씨는 불교계 신생종단은 전통종단과 교리 사상적인 면에서 구분지을만한 특징이 모호하고 시대의 흐름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신조류에 대처하기 위해 불교계 신생종단이 해야할 노력으로 자신의 교리와 신앙체계에 대한 입장 정리를 통해 신도들에게 구체적인 신앙형태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지연 기자

"日아스카지역 백제인 정착"
이노구마 교수 주장

"일본불교 초전지 아스카의 불교 전래는 한반도의 경우처럼 스님이 직접 전한 것과는 달리 백제 관리들에 의해서 전해졌다."

용인대 문화재보존학과 주최로 3월26일 열린 춘계학술세미나에서 이노구마 가네가쯔 교수(일본 다치바다여대)는 아스카의 지형이 공주 부여와 몹시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고 주민의 80~90%가 도래인이라는 기록이 남아있는 등 백제 멸망 후 도래인들의 정착지가 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노구마 교수는 일본 최초의 사찰 아스카사는 백제 기술자들이 건립했고 고구려 왕이 보낸 금괴를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아스카사에서 출토된 연화문이나 사카다사의 연화문 등은 백제형 연화문과 유사해 백제 기술자들이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림사지탑과 같은 형식은 일본에서는 목탑형으로 변형된 것도 특징으로 들었다. 또 12세기에 이르면 불교가 전파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탑을 조성하고 그 주변에 백제왕을 모시는 신사를 건립한 것도 증거로 주장했다.

이노구마 교수는 7세기 중반 백제가 멸망한 후 아스카에 수백에서 수천명에 이르는 백제인들이 도래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50여개 정도였던 절이 백제인 도래 후 7백여개로 늘어난 것도 백제인들의 불심의 영향이라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유럽 불교사 불교단체 활동 자세히 소개
유럽불교연합

만약 불자네티즌이 유럽의 불교사와 현황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찾고자 한다면 유럽불교연합(Europe Buddhist Union)에서 개설한 사이트를 방문하면 된다.

유럽에서는 순수한 학문적 대상으로 불교가 연구되다가 19세기 말에 이르러 종교로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남방 상좌불교(Theravada)의 스님들이 영국과 독일에 입국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영국에서는 에드윈 아놀드와 올코트 등이 불교와 부처님의 일생에 대한 책을 저술하기 시작했고, 독일에서는 프리드리히 짐머만이 '수하드라 비구'라는 필명으로 불교에 관한 책을 저술했다. 또 영국의 리스 데이비스와 독일의 헤르만 올덴베르그 등이 부처님과 그의 가르침이 담긴 팔리 경전을 유럽의 독자들에 [illegible]적으로 소개했는데, 이 [illegible] 근대 불교학의 시초라 [illegible] 수 있다. 당시 올덴베르그는 팔리 율장을 편집했고, 1881년 리스 데이비스는 팔리경전협회를 설립해 팔리경전의 번역과 출판을 시작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서구 불교인들의 수행이 왕성해 지는데, 영국 사람 앨런 베넷 맥그리거는 실론을 여행한 후, 1902년 버마에서 출가함으로서 최초의 유럽인 스님이 됐다. 2년후 랭군에서 독일의 바이올린 거장 안톤 괴트가 출가함으로써 두번째 유럽인 스님이 됐다. 그는 냐나틸로카라는 법명으로 불교학과 수행에 있어 세계적인 권위자가 된다. 냐나틸로카는 스리랑카에서 대부분의 일생을 보냈는데 1911년에 스리랑카에 사찰을 세워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제자들이 와서 수행하도록 했다. 금세기 불교 석학으로 꼽히는 냐나포니카도 그 제자들 중 한사람이다.

▲독일불교

독일불교계의 대표적인 불교단체는 단연 독일불교연합(German Buddhist Union)이다. 1958년에 세워진 이 단체는 독일불교사회(German Buddhist Society)를 전신으로 하고 있다. 독일불교는 역시 상좌부 불교가 주를 이루지만 다른 종파들도 들어와 활동하고 있다. 1947년 라마 고빈다가 티벳 불교의 전통을 따르는 '아리야 마이트레야 만달라'라는 재가불자교단을 결성했다. 이 교단에 입문하기 위하여는 금강승(Vajrayana) 전통의 특정 의식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최근 선종이나 정토진종을 포함하는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작은 불교단체들도 하나씩 생겨 나고 있는 추세다.

▲영국불교

영국의 불교는 1907년 불교협회(Buddhist Society)가 창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영국의 불교는 독일에 비해 불교의 여러 다른 전통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며, 대부분의 단체들이 비종파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영국의 단체들은 아직 인터넷을 통한 활동이 상대적으로 더딘 형편이다. 전국에 매우 많은 기관과 단체들, 지역별 소모임 형식의 신행활동들이 있지만 이에 관한 정보들을 찾아 보기는 어렵다. 영국 불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들도 아직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곳이 많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유럽불교연합 http://www.sbg.ac.at/budd/EBU.htm

"신라 부석사 창건 민중포교 새전기"
정석기씨 '청람사학'에 논문

"신라시대 부석사의 창건은 민중을 조직적으로 포섭하는 진정한 의미의 교단 형성이 이루어지는 불교교단사의 새로운 전기이며, 화엄이라는 시대 최고의 학문을 발전 홍포함에 있어 구심체 역할을 함과 동시에 통일 후 민심의 안정과 민중의식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

〈청람사학〉 제2집에 실린 논문 '신라시대 부석사의 사회·종교적 기능'에서 정석기씨(영주고 교사)는 신라 중대의 사찰이 끼친 사회적 영향 등을 분석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정씨는 왕이 주는 노복(奴僕)을 거절하고 축성(築城) 중지를 요청하는 등 보살행을 실천한 의상대사가 부석사를 창립함으로써 빈민 출신도 제자로 받아들이는 등 민중적 기반을 다지고 불교교리에 입각한 교단을 이루었다는 의의를 부여했다. 강지연 기자

학술단신

불교분과 월례 발표회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 월례발표회가 10일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개최된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이종철 교수(정신문화연구원)가 '종관사상에 대한 몇가지 오해'를, 이병욱씨(고려대 강사)가 '삼론종에 대한 천태의 비판'을 발표한다.

성철硏 연학위원 모집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묵정배)은 설립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연구원 사업을 평가하고 새로운 사업 방향의 정립을 위하여 연학위원을 20일까지 모집한다. 연학위원이 되면 연구원 사업에 우선적으로 초대되며 운영위원들이 진행하는 강독회에 참가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올해 학술연구비를 지원할 우수연구논문 6편 및 윤독회 5팀도 모집한다. (02)2265-5215

한국 신종교학회 창립

한국신종교학회(회장 황선명)가 3월27일 창립대회를 열고 창립했다.

한국신종교학회는 우리나라에서 개항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하거나 유입된 천도교 증산교 대종교 원불교 통일교 일련정종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 연구하기 위해 발족했다.

정기 현장답사 학술발표회 개최 외에도 학회는 앞으로 학술지 및 관련학술서적 발간, 정기학술회의 및 강연회의 개최, 국외 신종교학회와 공동답사 및 공동학술회의 개최, 관련 교육기관 설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사학사학회 창립

한국역사가 그동안 어떻게 연구돼왔는지를 연구하는 한국사학사학회(회장 조동걸)가 3월27일 창립됐다.

지난해 정년퇴임한 조동걸 교수(국민대)와 정구복 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이 창립을 주도한 이 학회는 이날 서울 방송통신대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조교수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 단체에는 이만열(숙명여대), 서중석(성균관대), 방기중(연세대), 박찬승(목포대), 도진순(창원대), 신형식(이화여대), 이기동(동국대), 한영우(서울대) 교수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우리 역사학계에서 사학사 관련 학회로는 처음인 이 단체는 '우리 역사가 어떻게 기술되고 연구돼 왔는지 그 역사를 연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서양식 역사관이 아닌 우리식 역사관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창립취지문을 채택했다. 강지연 기자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⑩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⑪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⑫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
④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⑤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⑥ 특별 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⑦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⑨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⑩ 특별 천도재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신" 불자님께서는……

"영가천도의 중요성"과 "생활풍수의 실생활적용"에 대한 법회에 참석해 보십시오.

◎ 영가천도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비법 및 효험사례와 풍수지리(음택·양택)의 미스테리한 작용 및 그 적용방법에 대한 혜천법사의 명쾌한 해법 설명회가 매주 2회에 걸쳐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본회 법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2년여에 걸쳐 불자님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린 "영가천도의 중요성" 책자와 풍수에 관한 "12품팔상탑주" 책자를 받아보신 전국 6만여세대의 불자님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질문과 방문상담을 받고 그 궁금증을 직접 설명해 드리는 별도시간을 갖는 것이 시간절약상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로 일자를 정하여 영가천도와 풍수에 관한 개요설명과 책자에 나와있는 비밀스런 방편들의 조성동기 설명을 함께 드리고 참석하신 불자님들께서 현재 겪고 계시는 어려움과 문제점등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직접 들어보고 그 방법등을 제시해 드리는 상담시간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책자를 보셨던 안보셨던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거나 현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의 운세와 운명을 바꾸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로 삼고 싶으시면 아무런 부담없이 일단은 이 시간에 오셔서 직접 들어보시고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혜천법사님과 개별상담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회 내용

●영가천도에 대한 설명●
① 영가천도의 개념 및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 주어야만 하는가?
② 수없이 영가천도를 했어도 영가의 장애라고 생각되는 일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영가천도가 잘 안되는 원인은 무엇때문일까?
③ 영가천도가 잘되면 집안에 일어나는 좋은 일들은 어떠한 일들인가?
④ 현재의 어려운 형편과 여건이 영가천도가 확실하게 되면 실제로 좋은 여건으로 바뀌고 원하는 소원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⑤ 현재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중에 어느부분이 영가들의 장애때문인가?
⑥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들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도방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를 지낸 불자로서 본인이 느끼는 만족도는 어느정도인가? 또한 효험을 체험한 불자는 100명 중에 몇%인가?
⑧ 기타사항

●풍수에 대한 설명●
① 풍수는 음택(산소)풍수와 양택(주택, 사무실, 가게등)풍수로 나누는데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쪽이 더 강한가?
② 현재 본인이 겪고있는 모든일들이 조상님의 산소나 살고있는 주택의 풍수적인 영향때문인가?
③ 집안에 풍수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거나 개선시켰을때 실제로 효과를 보거나 효과를 본 사례는 어느정도인가?
④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은 주택풍수상 어느정도의 운기가 있는 집인가?
⑤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이 풀리지 않는다. 이것도 풍수적인 영향 때문인가?
⑥ 같은 업종이라해도 장소에 따라 불티나게 물건이 잘 팔리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온종일 파리날리는 자리도 있다. 길지와 흉지의 차이는?
⑦ 앉아있는 자리의 위치때문에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잘못된 책상의 위치, 의자의 위치가 기의 흐름을 막아 일이 잘 풀리지 않을수도 있다. 그렇다면 사무실, 가게, 공장, 회사에서 책상의 배치나, 사장, 중역, 경리, 직원들의 자리는 어느자리로 앉아야 되는가?
⑧ 사찰에서도 출입문의 방위에 따라 화장실의 위치가 잘못되었을때 불사가 잘 안되고 신도들이 잘 모이지 않는다. 어느 방위가 좋은가?
⑨ 자녀의 교육과 대학진학이 걱정될때 자녀방의 위치와 책상의 방향, 잠자리의 방향은 어느쪽이 좋은가?
⑩ 성공한 남편, 화목한 가정을 원할때 집의 모양과 방향은?
⑪ 상업운이나 금전운, 부부금슬, 자녀운에 대한 풍수적인 조치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⑫ 집안에서 식구들이 거주하는 방은 어느방위가 좋은가?
⑬ 잠잘때 각 식구가 어느방위에 머리를 두고 자야만 운기를 받을 수 있는가?
⑭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중에서 어느것이 산소영향이며 어느것이 주택의 영향인가?
⑮ 상기 모든 여건이 간단한 풍수적인 조치로서 어느정도 개선시킬 수 있는가?
⑯ 기타 제반 풍수적인 조치 등.

법회 일시 ①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2시~오후4시(2시간) (정각에 시작되므로 가능한 2시까지는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② 오후 4시~오후 6시까지 개별 상담

❖화요일과 금요일 법회에 오시기 어려운 불자님은 사전에 본회로 전화를 주시어 상담일자를 정하시도록 해주십시오.

관음포교원 부설 :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합장

선정통해 부처님 설법 확인

경전 속의 禪 사상 13

"보살은 어떠한 相에도 집착 말아라"

대승 초기반야경…선종의 소의경전

금강경 ①

글쓴이



정 호 영

〈충북대 철학과 교수〉

금강경은 대승 최초기에 성립된 반야경들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서 잠시 반야가 무엇이며, 반야경은 어떻게 성립되었는가 그리고 금강경은 그러한 반야경 가운데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반야는 일상적인 용어로는 지혜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지혜라고 바꾸어 말한다고 하여 그 의미가 명료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른바 '삶의 지혜'라고 할 때 이것이 오랜 경험을 통해 누적된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면, 그 지혜는 단순히 세간적 지식이 쌓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반야는 세간적 지식이 아무리 훌륭한 것일지라도 그러한 지식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다. 반야는 세간적인 사유방법을 뛰어 넘은 새로운 인식의 세계 즉 깨달음의 세계를 담고 있다. 상식의 잣대로는 반야경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러 반야경에는 "오는 것도 아니며, 가는 것도 아니며, 머무는 것 또한 아니다"(不來不去 亦不住)는 말씀이 나온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전의 말씀은 가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오고 가는 것이 아니니 머무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면, 경전은 머무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반야는 이러한 사실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그래서 반야의 앎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 선다.

그러면 이러한 반야는 어떻게 하여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깊은 명상의 체험을 통해 얻어진다. 한때 대승비불설 즉 대승경전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여 반야경을 포함한 대승경전의 가치를 부정하는 주장이 있었다. 확실히 대승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육성의 말씀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깊은 종교체험의 의의를 간과하는 것이다. 반주삼매(般舟三昧)라는 것이 있다. 번역하여 관불(觀佛)삼매라고도 한다. 깊은 선정에 잠겨 있는 동안 부처님을 친견하는 체험을 말한다. 반야경은 이러한 관불삼매의 경험을 통해 확인한 부처님의 설법을 기록한 문헌이다. 다시 말하면 반야경 그 자체가 선적 체험의 결과라는 것이다.

금강경, 정확히 말하여 능단금강반야바라밀경(能斷金剛般若波羅蜜經)은 반야경들 가운데 가장 일찍 성립된 경전 중의 하나로 간주된다. 금강경에는 다른 반야경들에 빈번히 등장하는 공이라는 말이 없으며, 산스크리트본에는 대승(mah y na)이라는 말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전의 형식도 지극히 간결하며, 부처님의 설법 장소에 모인 사람들을 설명하는 대목도 매우 간단하다. 그러면서도 금강경은 반야사상을 매우 명료하게 담고 있다.

금강경은 부처님과 수보리의 문답의 형식을 취한다. 수보리는 부처님께 "보살의 길로 나아가는 선남자 선여인은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라고 질문한다. 보살의 생활과 수행과 마음가짐에 대해 묻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부처님 말씀은 무집착으로 요약된다. 무주상(無住相)보시도 그 한 예이다.

어떠한 상(相)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철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되기도 한다. "수보리여, 보살마하살에게는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며, '중생'이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며, '생명'이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며, '개체'라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수보리여, 이들 보살마하살에게는 물건(法)이라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물건이 아니라(非法)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수보리여, 그들에게는 생각하는 일도 생각하지 않는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를 요약하면 보살은 아(我), 인(人), 중생(衆生), 수자(壽者)의 네 가지 생각과 법·비법의 두 가지 생각 그리고 상(想)·비상(非想)의 두 가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앞의 네 가지는 인아(人我)를, 중간의 두 가지는 법아(法我)를, 그리고 마지막의 두 가지는 마음의 작용을 가리킨다. 금강경은 이러한 방식으로 인무아·법무아를 설하고 나아가서는 생각과 생각하지 않음을 가르는 미혹된 생각조차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금강경은 여래가 수많은 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하지만, 실은 열반으로 인도하는 여래도 열반으로 인도된 중생도 없다고 한다.

금강경은 금강경이 성립된 인도에서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도 많은 사본을 남길 정도로 매우 대중적인 경전이었다. 특히 중국의 경우 여러차례 번역이 되면서 당나라 때에 이미 800여종의 주석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선종의 6조 혜능스님의 깨달음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면서 금강경은 선종의 주된 소의경전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에드워드 콘즈의 지혜의 길 12

반야바타밀다 문헌 ②

"결코 오온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음식이 뜻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공과 무상과 무집착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의 자취는 찾기 힘들다
마치 하늘을 나르는 새의 자취처럼"
— 우다나(udana)중에서

"집착하지 않으면 새처럼 자유롭다"

열반은 생각하거나 추론할수 없어 직접 경험해야 할 불교의 궁극목표

다섯가지 덕을 수행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초월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라는 두 가지의 상이한 존재의 수준에 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수행자는 스스로를 유의적인 것에서 이탈시키며 '초월적인 것'을 추구한다.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견해의 근본이 되는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그 자료들은 지각에 의에 얻어진 것이며, 무위인 것은 그것들 속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수행자가 가고자 하는 초월의 경지는 바로 '열반(Nirvana)'이다. 그러나 열반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명하는 사람을 만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열반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반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있을 수 없으며, 우리 스스로 경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열반에 대한 모든 개념은 착각이며, 세간의 추리로는 그것에 가깝게 접근할 수 없다.

그러면 수행자들이 어리석은 범부들보다 열반에 훨씬 가깝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일까?

우선 명백한 것은 평범한 사람들은 실제의 열반에 대해서 명확한 관념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안다고 믿는 것은 그들이 만일 열반에 한 번 도달하면 그들은 행복해질 것이고 지금보다 덜 고통스러우리라는 것이다.

오랫동안 부처님의 명상을 지속해온 수행자는 이 세계에는 고(苦)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되고, 이 세상과 반대인 것으로 향하는 충동은 더욱 강렬해진다.

반면 범부들은 이 세계의 결점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유위적인 것들 위에 자신의 삶의 근거를 두면서, 모든 유의적인 것의 반대인 열반에 마음을 기울이고 그것을 향해 뛰어간다. 오랫동안 그는 열반에 대해서 일시적이고 기초적인 관념을 갖게 된다.

처음에 그는 열반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매력없는 모든 것과 반대라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의 매력있는 것들이 미래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거나 고통을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의 반대가 열반이라고 믿는다. 그 다음에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과 반대되는 것이 열반이라고 생각한다. 즉, 열반은 그 모든 것과 반대라고 생각한다.

이 모든 과정이 세상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는 정도에 달려 있다. 이 세상에 대한 혐오가 명백해질 때까지 아무도 열반을 향해서 실제로 다가갈 수 없다. 유의적인 것은 위안을 줄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매달려 있는 희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가지 덕을 닦아 밝아진 지혜의 눈은 우리의 견해를 완전히 변형시킨다. 하나가 멈출 때 다른 하나는 생겨난다.

번역=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과학산책

텔레포테이션

멀리 떨어진 장소에 물체 전송 이론 가능 국제 과학자 6명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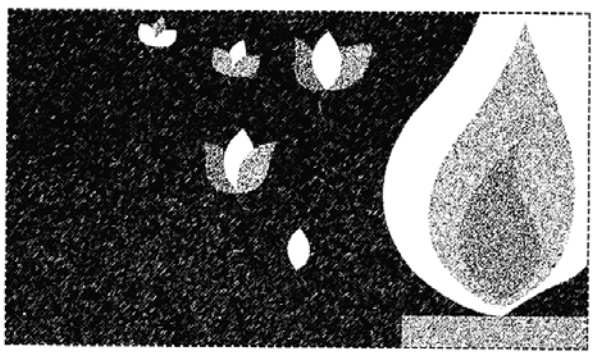
텔레포테이션 (teleportation) 이란 접두어 tele (멀다)와 transportation (운송)의 조합어 이다. 공상과학작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이름으로 어떤 장소에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분해해서 다른 장소에다 순간적으로 완벽하게 복사하는 기술을 말한다. 소설이나 스타트랙과 같은 영화에서는 물체를 위에서부터 쭉 읽어들여(scan)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어내고는 가고자 하는 곳에다 이 정보를 전달한다. 전달된 정보는 그곳에서 완벽히 복사된 물체를 만들어 낸다. 이렇게 복사된 물체는 원본 물체를 구성하는 원자 그 자체로 구성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다만 같은 종류의 원자로 구성될 것이다. 결국, 텔레포테이션 기계는 팩스 기계와 비슷할 것이다. 단지 문서뿐만 아니라 3차원 물체에도 적용된다는 점과 팩스와는 달리 비슷한 전송물이 아닌 똑같은 복사물을 만든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또한 원본은 파괴된다는 점도 다르다.

원본이 파괴되지 않는 텔레포테이션은 불확정성 법칙에 의해 불가능함이 이미 밝혀져 있다. 불확정성 법칙에 따르면 한 물체에 대한 정보를 정밀하게 추출하면 할수록 이 과정에 의해 이 물체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영향은 물체의 원래 상태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계속되는데 이 상태에 이르더라도 완벽한 복사품을 얻기에 충분한 정보를 얻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텔레포테이션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1993년 IBM 연구원인 벤넷(Charles Bennett)이 포함된 6명의 국제 과학자 그룹은 원본이 파괴된다면 완벽한 텔레포테이션이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과학 소설 작가들의 영감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6명의 과학자들은 EPR(Einstein-Podolsky-Rosen) 효과라고 알려진 양자역학의 괴이하고도 유명한 특징을 이용하여 탈출구를 마련했다.

과학자들은 광자나 전자와 같은 작은 입자를 이용하여 텔레포테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하고자 했다. 1997년 12월 오스트리아의 인스브룩크 대학(University of Innsbruck)의 실험소에서는 빛을 구성하는 알갱이인 광자(photon)를 텔레포테이션 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들은 특정 장소에 있는 광자들을 파괴하여 약 90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이들의 복사품을 완벽하게 만들어냈다.

이 실험은 떨어져 있는 거리와 무관하게 자연의 기본 입자인 광



자들 간에 물리적인 특성이 전달되는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처음으로 증명하였다. 과학자들은 원자 간의 텔레포테이션은 몇 년 안에, 분자간은 10년 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람은 언제 가능해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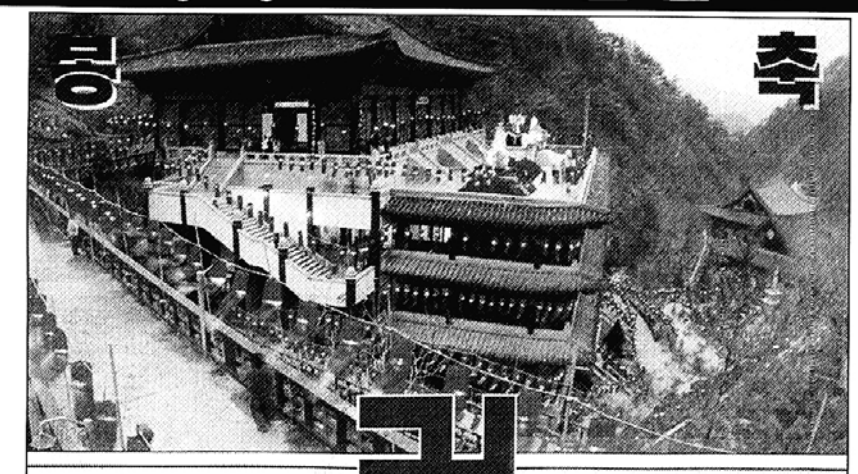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처음으로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제안한 벤넷도 부정적이다. 그에 의하면 십지어 박테리아와 같은 단순한 생명체를 텔레포테이션 하는 것도 현단계에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려해 볼 가치가 없다. 모으고 보내야 할 정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IBM과 같은 연구소에서는 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을까? 이들은 운송수단으로서의 텔레포테이션보다는 컴퓨터의 속도를 혁신적으로 빠르게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다. 컴퓨터를 이루는 작은 입자들 간에 텔레포테이션을 사용하면 지금의 컴퓨터보다 상당히 빠른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

A 자체만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것이기에 여기에 C라는 새로운 매개체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했다. 어둠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어둠의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는 촛불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고의 원인 그 자체를 찾는 노력보다는 무한한 자성을 깨닫는 노력을 삶에 도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연·등·용·전·기·배·선·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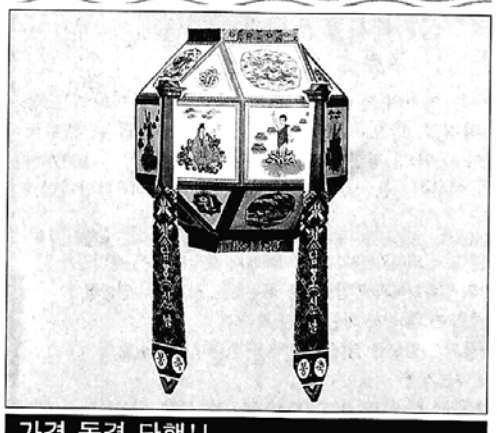
등 간격 (주문 생산)
연결 코드
전원 코드
전선길이(주문 생산)

작은 차이가 능률을 높이고 생명과 재산을 지킵니다.

연결배선! 일일이 피복을 벗겨 테이프로 감고, 설치·수거·보관 하시는데 얼마나 번거로우셨습니까? 안전하고 편리하게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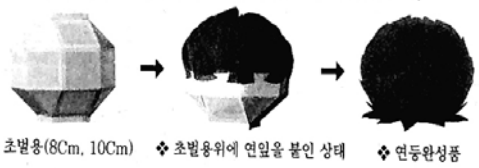
제일안전공사
☎(02)525-5801
※휴일없이 24시간 전화 가능합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 경제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 초벌용(8Cm, 10Cm) ❖ 초벌용위에 연잎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02)2277-1548 H:(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난장으로 풀발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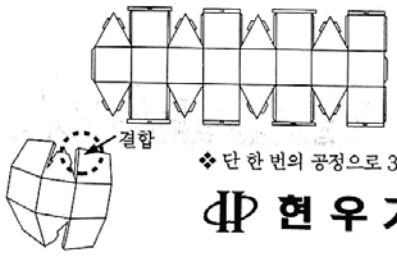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원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격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겉지 합지 방식)



결합

❖ 단 한 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우리 가락 어깨춤에 불심도 '들썩'



◇천안 불광사 남도소리 · 풍물 강습에는 2백여명씩 참가하고 있어 포교에 큰 효과를 얻고 있다.

문화포교 현장 2곳

전통문화도 배우고 신심도 다지는 포교현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천안 불광사(주지 대일)와 대전 우리문화예술원(원장 법우)은 지역 문화의 활성화와 포교 마당 확장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는 곳. 남도민요와 풍물, 작법과 민속무용 등 전통문화를 매개로 하는 포교현장에서는 배우는 즐거움으로 뭉쳐진 불심이 이웃을 향한 봉사의 손길로도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편집자 주〉



◇대전시가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대흥동에 자리한 우리문화예술원은 불교의식무와 전통춤으로 포교하는 도량이다. 법우스님은 28일 대전 우송회관에서 공연을 갖는다.

천안 불광사 '풍물놀이 강좌'

현재 두달과정 7기생 '공부'
1년동안 8백여명 배출
봉사활동등 자비실천도

"덩 덩 덩더쿵, 덩 덩 덩더쿵…."

"아, 그게 아니지요. 왼손을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덩 덩 덩더쿵…."

3월 29일 오후2시, 천안시 쌍용동 아파트촌 한자락에 자리잡은 불광사 지하법당. 50여명의 불자들이 둥글게 둘러앉아 장구 기본가락을 배우느라 열기가 상기돼 있다.

오늘은 불광사 풍물놀이패 '얼'의 제7기 수강생들의 첫 수업. 이들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장구와 징, 꽹과리, 북으로 형성되는 사물의 기본 장단을 익히고 남원산성이나 제주도 타령, 남도성주풀이 같은 남도민요도 10여 곡 익히게 된다. 중급반이나 고급반으로 올라가면 웃따리 가락과 선 풍물을 배울 수 있다. 민요는 호남가나 사철가, 강상풍월 같은 단가까지 배운다. 자신의 노력여하에 따라 전통 가락과 남도소리에 일가견을 가질 수도 있는 이 강습에 첫발을 내딛은 50여 불자들은 무엇을 배운다는 기대감에 마냥 들떠 있다. 대부분 주부들이지만 초로의 신사들도 어깨를 들썩이며 어설픈 장단을 익히기에 바쁘다.

첫 강좌에 나온 불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풍물과 소리를 배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전통가락을 배우며 강습생들이 각종 봉사활동을 펼치기 때문이다.

불광사는 작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풍물과 남도소리를 가르치며 큰 포교효과를 얻고 있다. 2개월을 단위로 강좌를 여는데 6기까지 8백 여명이 다녀갔다. 초급반에 들어 온 사람들은 중급 고급으로 반을 높여가며 실력을 쌓는다. 전통문화 강좌를 인연으로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불광사의 일요법회에도 관심을 갖게되고 자연스럽게 불자가 된다. 6기 수강생 중에는 시각장애인도 7명이나 있었고 타종교인들이 개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전통문화 강좌는 단순한 강습의 자리가 아니라 인간애를 나누고 불심을 가꾸는 수행의 도량이기도 한 셈이다.

주간반과 야간반,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나눠지긴 했지만 2백 여명의 수강생들이 마음을 모아 결식아동과 소년소녀 가장을 돕기 위한 기금을 모으고 무의탁 노인들을 찾아가 빨래봉사와 밑반찬 보시를 하고 있다. 이미 강좌를 다 마치고 제법 역량을 다진 선배 불자들은 한 단계 더 높은 봉사를 한다. 정월대보름에 중앙시장에서 대동놀이를 하고 양로원이나 경로당 등 노인들이 모인 곳을 찾아가 풍물공연도 연다.

이들이 풍물과 남도소리로 마련하는 노인잔치는 천안지역 노인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얼'이 자랑하는 대외활동 중의 하나는 종교간 화합을 위한 이벤트다. 종교간의 대화와 이해를 위해 불광사 '얼' 가족들은 타종교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량의 김치를 보시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나 성당에 성탄축하 방문을 하기도 한다.

불광사 인근 아파트에 사는 조남순, 박미경 주부는 "노인잔치를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받아 우리도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소리와 풍물도 가르쳐 준다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라며 "아직은 어색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일요일 법회에도 다닐 생각"이라 말했다.

전통문화도 배우고 불심도 기르는 불광사 풍물과 남도소리 강좌는 천안지역 신도시의 아파트 포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대전 우리문화예술원

법우스님 범패등 강의
5월부터 민요 · 다도교실
강습생 신행조직화 계획

'대전의 명동'이라 불리는 대흥동 골목.

요즘은 대전의 주요 상권이 둔산지구로 옮겨가는 바람에 대흥동 골목이 조금 쓸렁해지만 대전시는 이 골목을 전통문화의 거리로 개발할 계획이다.

대전지역의 새로운 문화 거리가 될 이 골목의 남쪽 끝에 자리잡은 우리문화예술원. 불교의식무와 민속춤 등 전통문화를 포교의 매체로 활용하는 포교 전진기지다. 송암스님에게 범패와 바라춤 나비춤등을 사사 받고 이매방 선생에게 승무와 살풀이춤을 이수 받은 법우스님(현불사주지)이 불교 전통춤을 통해 문화포교의 장을 열고자 3월 중순에 문을 열었다.

현재는 10여명의 주부들이 매일 오후 2시에 모여 스님에게 전통무용의 기본 동작을 배우고 있다. 잘 단장된 문화원 마루 바닥에서 "하나 둘 셋 넷…"을 반복하며 손놀림과 걸음걸이를 연습하는 중년의 수강생들은 진지하기만 하다. 각 동작과 몸의 움직임을 세심하게 지도해 주는 스님의 정성도 보통이 아니다. 30여 평의 마루바닥을 수 없이 오가며 몸 동작을 익히지만 힘지는 않은지 자세를 교정해 주는 스님의 손은 바쁘기만 하다. 그러나 가르치는 스님이나 배우는 수강생들이나 모두 즐거운 표정이다.

우리문화 예술원은 주부나 직장인들을 위한 강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통무용을 전문가들만의 것으로 여기고 있는 인식의 벽을 먼저 허물고 포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법우스님은 "전통무용의 원류가 불교에서 파생됐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포교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강습에 참여하고 있는 주부들은 한결같이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스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씩 동작을 배워나가는 재미에 빠져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단체로 정기적인 강좌를 여는 외에도 스님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한다. 또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는 스님들을 위한 개인교습 시간을 내기도 하는데 포교의 방편이므로 수강료는 따로 받지 않는다. 다만 예술원 운영을 위한 약간의 회비를 시주 받을 뿐이다.

법우스님은 요란하게 소문을 낼 시간도 없었는데 벌써 10여명의 수강생이 모여 든 데서 문화포교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다. 스님이 직접 강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수강생들은 20여 년간 농익은 스님의 무용을 쉽게 배울 수 있다. 이곳에서 배울 수 있는 춤은 법고춤, 바라춤, 나비춤, 승무, 살풀이, 선비춤, 허튼춤 등이다. 5월부터는 민요와 대금 단소등 기악 강좌와 다도교실을 차례로 열 계획. 각 파트별로 강습생들을 묶어 신행조직을 꾸릴 계획도 세우고 있다.

법우스님은 예술원을 홍보하고 결식아동을 돕기 위해 28일 대전 우송예술회관에서 춤판을 벌일 계획이다. 원명스님(서울 홍원사주지)과 김명자씨등 범패와 승무 살풀이춤의 이수자들이 우정출연하는 이 공연을 계기로 전통무용을 통한 포교의 마당을 넓혀 가겠다는 의지다.

글=임연태 기자 (ytl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포교엔 여러 방편 있어요"



불광사주지 대일스님

"사람들을 절로 오게하고 절에 온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나가 전법을 하도록 해야 제대로 포교가 되죠. 이 같은 효과를 다 얻기 위해서 전통문화를 매개로 삼은 것입니다."

천안 불광사주지 대일스님은 "전통문화야말로 포교의 방편으로 가장 적합한 요소"라 강조했다. "처음 시작할때는 '그저 이렇게 해보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기대로 시작한 풍물과 남도소리 강좌가 인근 아파트 촌의 명물이 되었다"는 대일스님은 "솔직히 저도 매일매일 놀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간섭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만들고 수강생들간의 친목도모 기회도 만들어 내는 모습이 고맙기만 하다"고 털어놓았다.

"한 동작 한 동작이 곧 수행"

불교전통무 강습 **법우스님**



이제 막 문화포교의 출발선을 떠난 법우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시대라 말 하는데 포교 방법은 아직 시대를 앞서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진단하며 "생활의 패턴이 복잡해지고 다양 해질수록 사찰은 정서를 순화하고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불교 전통 의식무는 스님들만의 공부가 아니라 불자들이 이해하고 직접 시연할 때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확신한다.

"불교의식무를 한 동작씩 배우는 그 자체가 수행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수행의 체험을 통해 신심도 다지고 우리의 전통문화도 이해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 몸 태워 광명의 세계로

불화와 성화비교 33장면 31

촛불



◇해인사 감로탱 중 '일곱여래와 제단(부분)', 1723년.

촛불은 예배 축하 탄생 결혼 죽음 등 경건한 의식에 사용된다.

불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고 광명이 환하게 밝혀진다. 제 몸을 태워 빛을 내는 촛불은 그래서 무명과 탐욕을 몰아내고 어두운 사바세계를 밝혀 지혜를 일깨우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상징물로 쓰이고 있다.

불은 원시종교 이래로 종교의식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생명의 존립을 위해 물과 불이 갖는 중요성이 종교의식에서 신성에의 귀의나 염원의 매개체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촛불은 그러한 불 숭배정신의 축소판으로 종교의식에서 원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톨릭축제에는 촛불 예배인 촛불의 행진이 있고 부활절이나 촛불미사에서 '밝히는 촛불은 그리스도의 영원불멸한 신성의 표시이다. 초를 태우는 광심은 그 혼, 불꽃은 신성으로 해석한다. 기독교에서는 악마가 나타나 촛불을 끄면 천사가 다시 불붙여 준다고 믿는데 이때의 초는 불멸의 순교정신을 상징한다.

왼쪽 그림은 불단에 놓여진 다기 과일 꽃 쌀 등 각종 공양물과 함께 촛불이 켜진 모습이다. 오른쪽 그림은 성모 마리아의 입종모습을 그린 그림인데 성경책과 묵주, 촛불이 켜져 있다. 학림(예천 법화암 주지)



◇반 클레베작 '성모 마리아의 임종(부분)', 1520년경, 뮌헨미술관 소장.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⑭

8. 진심은 사의(四儀:걷고, 서고, 앉고, 누움. 즉 행동 일체)에 있다(眞心四儀)

或曰前說息妄 未審 但只坐習
혹왈전설식망 미심 단지좌습
亦通行住等耶
역통행주등야
曰經論 多說坐習 所以易成故
왈경론 다설좌습 소이이성고
亦通行住等 久久漸成純熟故
역통행주등 구구점성순숙고

물었다. "앞에서 망심을 쉰다고 말씀하셨는데, 앉아서만 공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니거나 머물 때에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답했다. "여러 경에, 앉아서 하는 공부를 많이 말한 것은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역시 가거나 머물 때에도 통하는 것이니 오래하다보면 차츰 익혀지기 때문이다.

起信論云 若修止者 住於靜處
기신론운 약수지자 주어정처
端坐正意 不依氣息 不依形色
단좌정의 불의기식 불의형색
不依於空 不依地水火風
불의어공 불의지수화풍
乃至不依見聞覺知
내지불의견문각지
信心增長 速成不退 唯除疑惑
신심증장 속성불퇴 유제의혹
不信 誹謗重罪業障
불신 비방중죄업장
我慢懈怠如是等人
아만해태여시등인
所不能入 據此則通四儀也
소 불능입 거차칙통사의야

〈기신론〉에 보면 '지(止:생각을 쉼. 참선하는 방법)를 닦는 사람은 고요한 곳에서 단정히 앉아 생각을 가다듬어야 하되 호흡에도 의지하지 말고 형색에도 의지하지 말고 공(空)에도 의지하지 말고 지·수·화·풍(地水火風:인도에서는 옛날부터 인간의 육체나 일체 물질의 원소를 네 가지로 보았음. 여기에 空을 합하면 5大가 되는데 이는 일체의 법을 생성시키는 근원을 뜻함)에도 의지하지 말며 나아가서는 보고 듣고 깨닫는 일에도 의지하지 말며 일체의 모든 생각은 버려야 하되 버린다는 생각까지도 버려야 한다. 이 모든 법은 본래 생각자체가 없으니 생각이 생기는 것도 아니요 생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마음을 따라서 밖으로 대상을 생각한 뒤에야 마음으로써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말고 마음이 만약 밖으로 달려가려 하면 응당

"일체의 모든 생각은 버려야 하되 버린다는 생각까지도 버려야 한다"

一切諸想 隨念皆除 亦遣除想
일체제상 수념개제 역견제상
以一切法 本來無想 念念不生
이일체법 본래무상 염념불생
念念不滅 亦不得隨心 外念境界後
염념불멸 역부득수심 외념경계후
以心除心 心若馳散 卽當收來
이심제심 심약치산 즉당수래
住於正念 是正念者 當知唯心
주어정념 시정념자 당지유심
無外境界 卽復此心 亦無自相
무외경계 즉부차심 역무자상
念念不可得
염념불가득
若從坐起 去來進止 有所施作
약종좌기 거래진지 유소시작
於一切時 常念方便 隨順觀察
어일체시 상념방편 수순관찰
久習純熟 其心得住 以心住故
구습순숙 기심득주 이심주고
漸漸猛利
점점맹리
隨順得入眞如三昧 深伏煩惱
수순득입진여삼매 심복번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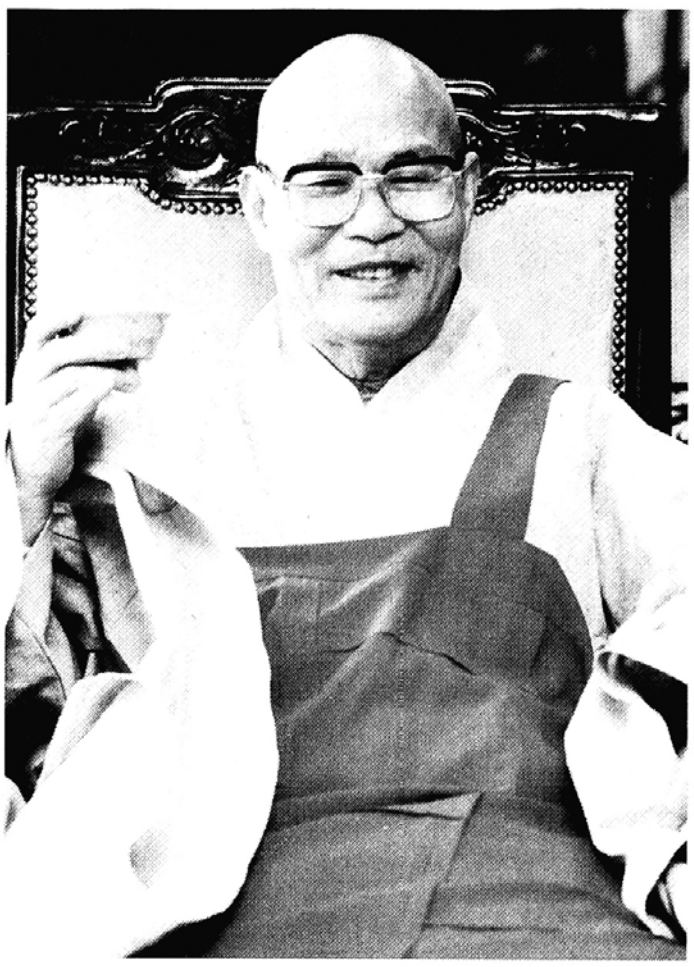
거두어 들여 바른 생각에 머물도록 하라. 이 바른 생각이라는 것은, 오직 이 마음은 바깥 경계란 없는 것이며 역시 이 마음은 모양도 없어서 생각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아는 것이니라. 만약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고 오고 전진하고 그치는 등 모든 행위를 할 때에 항상 방편을 생각하며 순리에 따라 관찰하되 오래 익혀서 익숙해지면 그 마음이 안주(安住)하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이 안주하게 됨으로써 점점 총명해져서 순리에 따라 진여삼매(眞如三昧:법계가 平等一相이라는 진리를 관조하여 망념을 없애는 삼매)에 들어서 번뇌를 누르고 신심이 더욱 늘어나 물러섬이 없는 지위를 빨리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의혹과 불신·비방·중죄(重罪)와 업장(業障)과 아만과 게으름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능히 들어갈 수 없으니 제외한다' 하였으니 이 말씀에 의하면 역시 사의(四儀:걷고, 서고, 앉고, 누움. 곧 행동 일체)에 통한다고 할 것이다.

김원각〈시인·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남의 허물을 탓하기 보다

녹원스님 〈직지사 주지〉



약력
- 1928년 경남 합천 生
- 41년 탄옹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 46년 강원 대교과 졸
- 46년 한암스님 계사로 비구계
- 58~84년 직지사 주지
- 76년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 84~86년 조계종 총무원장
- 85년 스리랑카 국립푸리베다대학 명예철학박사
- 92년 일본 다이쇼 대학 명예문학박사
- 현재 동국학원 이사장,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은사이신 탄옹스님은 말보다 행이 먼저였고 하심과 과묵을 강조 하셨죠"

'춘래불사춘'이란 말이 있습니다.

요새 봄이 왔다는데 피부로 느끼는 날씨는 쌀쌀합니다. 그래서 봄은 온 것 같은데 봄을 느끼지 못하겠어요. 우주의 질서에는 어김이 없습니다. 올 때가 되면 오고, 갈 때가 되면 가고, 오고 감이 어김이 없어요. 예전에 누가 봄은 왔다는데 봄을 느끼지 못하자 봄을 한번 찾아야겠다 해서 산으로 들로 강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래도 봄을 찾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데 집 앞에 매화가 덩그러니 피어있더래요. 그러자 봄을 찾으러 멀리 들로 산으로 돌아다닌 자기가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느낀 것이지요. 진리는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진리를 찾으러 출가한지 벌써 60년 가까이 됐습니다. 나는 전생부터 불법과 인연이 깊었었나 봅니다. 절에 가면 무조건 좋았고 스님을 뵈면 환희심이 났어요. 어려서 해인사에서 처음으로 부처님을 친견하고는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 기억이 납니다.

나는 14세에 출가했습니다. 그때 농촌에서는 살림이 어려워 공부하기 위해 절에 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형님이 탄옹스님에게 출가했는데 형님이 출가를 권해 나도 탄옹스님을 은사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은사 탄옹스님은 말보다 행이 먼저였어요. 수행자는 언제나 하심(下心)하라고 가르치셨고 말을 많이 하면 실행하지 못하니 항상 과묵하라고 하셨지요.

은사스님에게서 무심으로 정진하는 자세와 검약, 철저한 시간관념을 배웠습니다. 은사스님은 남의 허물을 탓하기 보다는 자기허물을 탓했고 모든 일에 집착을 갖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님의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모두 선(禪)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한번은 추운 겨울날 화로를 지폈는데 화롯불을 조이시다가 참선삼매에 드신 거예요. 화로의 잿불이 손에 닿아도 모르고 계셔서 흔들어 깨울 정도였어요. 이처럼 무념무상 무욕의 자세로 살아가신 은사스님의 모습은 언제나 귀감이 됐지요.

또 포교에도 관심이 높으셔서 부처님 팔상도를 연극으로 만들어 대구에서 연극포교도 하셨지요. 사실 사람의 정서에 호소하는 예술로 포교하는 일은 무엇보다 효과가 큽니다.

누구나 행자때 가장 열심히 살았다고 회고합니다. 옛날 행자들은 지금 행자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고되게 일을 했어요. 지금이야 출가하더라도 공부하는 납자들의 뒷받침을 잘 해줍니다. 옛날에 비하면 아주 편한 거지요. 처음 행자로 와서는 어른 시봉부터 빨래 공양주 노릇에 능숙할 정도로 일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절에 보살들이 어른거리는 것은 상상도 못했기에 절살림을 다 맡아해야 했지요. 그러나 그렇게 어른시봉 뿐 아니라 불교예식, 절 사무, 법문 다 잘하게 되면 수행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비구계를 받는 일이 너무 쉬워진 것이 아닌가 해요. 어렵게 스님이 되어야 앞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온갖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갈수 있다고 봅니다.

불교는 원초적으로 세속과 떨어져 있는 종교가 아니고 세속이 곧 불교이고 불교가 곧 세속입니다. 불교는 철저한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달나라나 천왕성까지 갔다올 수 있는 문명을 창출해 냈지만 인간은 문명이 발달할 수록 점점 갈등이 심해지고 인간관계는 점점 소원해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오늘날 화두가 되었지요. 21세기를 맞이해서는 물질문명에 의지해서는 안되겠다, 이제는 내면세계로 찾아나서야 겠다 하는 비판이 일었어요. 이걸 표면적으로 얘기해서는 문화의 세기가 열린다고 하는데 문화의 세기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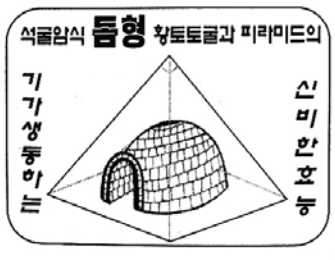
부처님은 룸비니동산에서 탄생직후 철저한 인본주의 사상을 선언하셨어요. 천상천하에 유아독존, 하늘 아래 땅 위에서 내가 가장 홀로 높다, 이것은 생명의 본질보다 더 신비한 것은 없고 생명의 근원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불생불멸이라고 했지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꺼지고 없어지는 것도 아닌 것이 생명의 원초적인 본질입니다. 이것은 지구가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했어요. 부처님은 3천년전에 이미 우주에 성주괴공(成住壞空)이 있다고 설파하셨지요. 이루어져서 어느 한계까지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파괴되고 그리고 공무(空無)가 된다는 것이지요. 유정물들은 어떻게 되느냐. 생노병사(生老病死), 낳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입니다. 우주가 성주괴공하는 것과 생물들이 생노병사하는, 네가지 과정이 똑같아요.

사람들은 다 육체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육체의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고 살고 있어 알려고도 안해요. 또 의심도 안해요. 그러면서도 바깥으로 시비만 하고 남의 일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놀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들이 놀음에서 벗어나 생명의 본질에 돌아가 안온함을 얻도록 하고자 교화를 한 것입니다. 생로병사는 왕이나 거지나 다 똑같아요. 교수를 하느니 대통령을 하느니 하지만 결국 보면 평생 이 몸뚱이 하나 치닥거리 하고 먹여살리느라고 한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나고 죽는 것이 없는, 생명이 홀로 완전히 드러나서 고금이 없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생명의 존재물들, 이것을 불교에서는 진여라고도 하고 자성 진아 참자기 라는 등 여러가지로 표현합니다.

황토 집(토굴)

생명의 친화성을 가진 흙중의 흙 - 황토!
황토 토굴은 오랫동안 한곳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맑은 정신과 편안함을 주며 생체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황토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직접
느낄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물질"인 것입니다.



황토집(토굴)
원하시는 평수대로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현장 방문 환영!! 황토집

우리 황토 토굴 사업부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합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FAX: 0551)283-6531
H.P: 017)585-6045/ 017)566-9969/ 017)582-7116

삼존불 개금불사와
후불탱화 지장원불 봉안법회



삼보에 귀의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두루 충만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장기도 도량인 『공덕원』에서는 지난해 8월 19일부터 240일 지장기도를 회향하면서 회주 석용산 큰스님을 모시고 "삼존불 개금·후불탱화 불사·지장원불 봉안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합니다.

불사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지장보살님의 기피력이 항상하시기를 발원하면서 봉안법회에 동참하시는 인연으로 업장소멸·인간성숙·소원성취 되는 법석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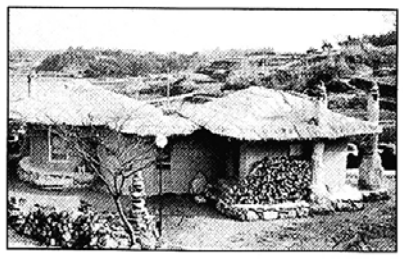
귀 일시 : 불기 2543년 4월 12일 월요일 오전 11시
귀 장소 : 부산공덕원 대법당
귀 문의 : 대구공덕원 (053)741-0077, 0088
부산공덕원 (051)625-2253, 2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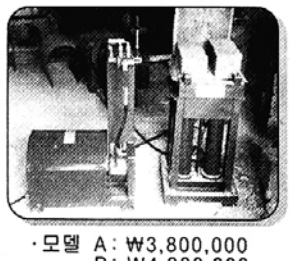
불교교육회관 공덕원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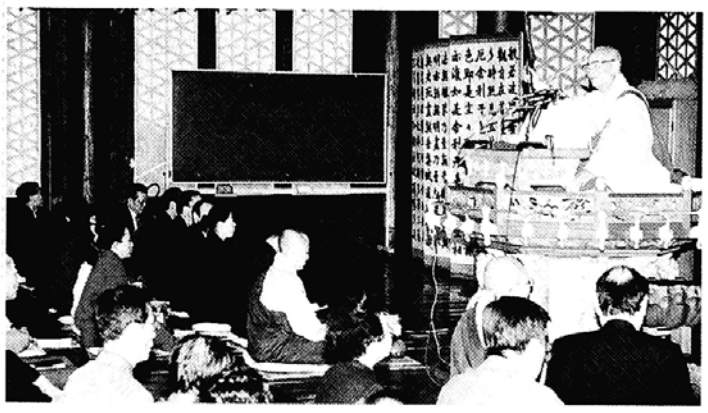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큰스님 수행한담

자기 허물 먼저 보세요”

“망상속에 사는 고통의 중생살이 상락아정의 세계로 가려면 부처님 법에 의지 정진해야”



◇3월23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개강법문을 하고 있는 녹원스님. 녹원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동국대가 지구촌을 향해 힘찬 나래를 펼쳐 고통받는 이들을 감싸주고 지혜를 줄수있는 사명감으로 정진하자고 설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집착을 끊으려면 초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초연한 마음은 망상심이 쉬어야 나옵니다. 망상심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안개와 같고 구름과 같아요. 안개와 구름이 본질적으로 존재합니까. 기후 변화에 따라 임시로 거미줄 치듯 한게 안개예요. 실상이 없는 것입니다. 중생들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그것과 같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제대로 사는 게 아니지요. 이렇게 망상속에서 사는 중생을 고통이 없는 상락아정의 세계로 데려다 놔야겠다는 분이 부처님입니다. 뱃사공이지요. 우리 능력으로는 강을 못 건너가기에 부처님 법력을 빌리는 겁니다. 진여의 세계에서는 집착도 끊어지고 망상심도 사그라집니다.

여러분의 현재 모습과 삶은 다겁생래에 한 행위에 의한 업보 때문이예요. 영하로 내려가면 물이 얼음이 되는 것과 같아요. 얼음을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라 얼음이 생긴 것이고 또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물로 돌아가지요.

이세상 존재물 모두가 그런 이치입니다. 이것을 인연법이라 합니다. 인연 소치로써 존재하는 것이지요.

사바세계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사람의 도리를 지켜야 합니다. 사람의 도리를 지킨다는 것은 사람다운 짓을 하라는 것이지요. 사람임에도 짐승다운 짓을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대단히 어지럽고 삭막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바세계가 원래 고통스런 세계는 아닌데 이 생명의 존재물들이 사고를 그렇게 하고 행동을 그렇게 해서 온갖 고통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얼음이 언 것이지요. 얼음때문에 생명의 존재물들이 기지개를 펴고 놀지 못하도록 한 세계가 중생들이 만들어 논 세계죠. 이제 봄이 왔으니까 얼음이 녹을 때가 다 된 것 아닙니까.

선행을 닦아 착한 행을 하면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도 모르게 명원가피를 주십니다. 명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알지 못하게 우연히 오는 것으로, 사람들은 횡재 만났다고 그러지요. 횡재가 아니라 착한 일을 하면 금생에 아니면 내생이라도 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빨리 받을 수도 있고 늦게 받을 수도 있는데 전생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는가. 첫째 모든 악을 짓지말아야 합니다. 모든 악한 행실은 당초에 생각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고, 남에게 도움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다 행하고 그 생각을 저버리지 말자.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면 세살먹은 어린애도 아는 얘기라고 우습게 여기고 지나쳐 버리기 쉬워요.

당송팔대문장가중 하나인 백낙천이 도림선사와 나눈 문답이 유명하지요. 백낙천이 천하 학문 다 뱃속에 집어넣고 다니니까 이 세상 모두가 우습거든. 학문도 두루 해보니 별 것도 아니고 중들이 죽고살고 하는 것을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가 보자 하고 도력이 높다고 소문난 도림선사를 찾아갔어요.

“부처님 가르침의 대의가 뭡니까” 물으니 “제악(諸惡)을 막작(莫作)하고 중선(衆善)을 봉행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오.” 백낙천이 실망하고 속으로 공연히 왔다, 그런 말은 세살먹은 아이도 할 수 있는 말인데 이렇게 멀리 힘들게 찾아와 겨우 그따위 소리나 듣다니 하고 “스님, 그 소리는 삼척동자도 할 수 있는 소린데 그 소리 들으러 온줄 아십니까?” 하니 도림선사가 “삼척동자라도 말은 할 수 있지만 팔십노인이라도 행하기는 어려운 말이오” 이 소리가 귀에 탁 들어오자마자 천지가 캄캄해요. 자기는 천하학문을 다 닦았다고 자부했는데 선을 실제로 행한 적은 없고 입으로만 좔좔 했거든. 여기에 대단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도림선사에게 삼배를 드리고 제자가 되기를 자청해 훌륭한 불제자가 되었고 최고의 부처님 찬양시도 남겼어요.

백낙천이 대단히 영리한 분이지요. 도림선사의 한마디에 번쩍 깨달았거든. 우리 사람들도 간절한 생각을 가져야 해요. 근데 중생들은 귀로 들어가면 그냥 끝난 것으로 알고 덤덤하게 지나쳐 버리는데 그리고 잠을 줄입시다. 나는 잠을 많이 안 잡니다, 한 3~4시간 잡니다. 우리 국민들도 잠을 줄이고 근면하고 거짓없이 진실을 가지고 사는 국민이 됐을 때 선진국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원사 한암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받고 안거철에 선방을 찾을 때 외에는 나는 70평생 직지사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직지사는 예전부터 선방이 유명합니다. 수행하는 납자들은 여름에는 금강산으로 가 안거를 나고 겨울에는 직지사 황악산선원에서 정진을 하곤 했습니다. 직지사에 수련원을 만드니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련을 합니다. 어린이들부터 일반 신도까지 부처님법을 따르고 진실되게 살겠다고 열심히 수련하는 것을 보면 흐뭇합니다. 불자들은 항상 자기점검을 하며 부처님 가르침에 맞게 사는지 자기를 돌아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불심이고 이것이 부처님마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며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될 길입니다.

지금 직지사에서 행자들 3백명이 합동행자교육을 받고있는데 기초부터 잘 배워 지금 가진 그 초발심을 그대로 견지해 훌륭한 스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불교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요.

수행자는 항상 배우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일이 정진이요, 출가할 때의 초발심을 그대로 견지하는 것이 부처님의 제자로서 바른 수행자의 길을 가는 것이지요. 승가의 본분을 저버리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항상 승가의 위계를 확립하겠다는 원력으로 화합해야 해요. 그리고 출가를 하면 내몸이 아니예요. 집착하는 마음과 이기적인 사고를 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자비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출가수행자는 자기를 가장 낮춰야 합니다. 중생의 고통을 나누고 구제하려면 항상 넓은 아량과 겸양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양보의 미덕이 필요합니다. 남을 용서하고 화합하고 인욕정신을 배워야 해요. 인욕이란 단순히 참는다는 의미를 넘어서,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넓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승가뿐 아니라 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화합과 인욕입니다. 정리=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지 항상 점검”
“내뜻과 다른 사람마저 포용하고 화합”

무엇이든 돈독하고 진지하게 해보아야 합니다. 학문을 하고 뭘 하더라도 돈독한 정성을 기울여야 해요.

부처님은 왕이 될 신분인데도 한 나라와 한 가족만을 위해서 존재할 게 아니라 온 중생을 위해 부처가 돼야겠다 하고 고행 끝에 부처님이 되셨지요. 3천년 전에 나투어 육신은 없어졌어도 지금 우리가 그 이름만 들어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따르는 것은 부처님께서 진실한 법을 깨닫고 중생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지요. 일생동안 진실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진실의 빛이예요. 가장 불행한 것은 거짓과 위선입니다. 금년부터는 상하 모두가 거짓이 없고 모든 지구촌이 진실하게 살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나의 수행일기



오 종 근 〈호원대학교 교수〉

‘천천클럽’ 조직 불우이웃에 자비손길
국어사전등 불교왜곡 내용 개선 노력

불교에 귀의 한 것은 대학시절이다. 그 전에는 ‘나 자신밖에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노력한 만큼만 원한다’는 것이 내 방식의 종교관이었다. 이런 생각이 바로 부처님의 근본 사상임을 깨닫게 되면서 불자가 됐다.

사실 나는 불자보다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다. 기독교재단 중학교를 다니면서 3년간 예배와 성경공부를 했고, 6년여간 교직생활도 했을 정도로 종교적 환경은 기독교 일색이었다. 적지 않은 세월을 기독교와 함께 하면서도 내 마음의 불심이 변하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면 전생에 불법과의 인연이 대단했던 것 같다.

불교에 심취하기 시작한 것은 전북불교회관 원감 회일스님을 만나면서부터다. 97년 전북불교회관 자원봉사자 총간사장을 맡아 불교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비로소 신행생활을 알게 되었고 내가 가야할 종교적 방향을 설정하였다. 먼저 불교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화엄불교대학에 입학했고, 아내와 함께 부부 포교사가 됐다.



지난해 우리는선우 전주지회에서는 초발심자경문 등 경전공부를 했고, 전주소년원 법회에 참여하는등 부처님의 정법을 배우고 전하는데 진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수련대회 도우미, 남원 실상사의 무공해 농산물 판매대행 등을 통해 참다운 불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모니터 부문에서 제일 큰 성과는 우리나라 모든 국어사전들이 불기(佛紀)를 잘못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한글학회를 포함한 국어사전을 발행하는 출판사와 교계에 국어사전 정정운동을 전개하여 한글학회, 민중서림 등의 국내 최대의 국어사전 출판사들의 사과와 정정하겠다는 회신을 받아냈다. 이를 계기로 조계종 총무원에서 국어사전 검토팀을 운영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과 환희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최근에는 ‘천천클럽’을 조직하여 사회의 그늘진 곳곳에 자비의 손길을 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천천클럽은 관세음보살이 천수천안으로 중생에게 베푸시는 원력을 실천으로 행하기 위하여 한달에 천원씩 내는 소년소녀가장과 소년원 및 독거노인을 도우려는 운동이다. 앞으로 이 자비실천운동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복지법인도 설립할 계획이다.

이러한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아쉽고 해야할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얼마전 점심공양을 하는 자리에서 한 동료교수가 ‘불교가 무엇이냐, 왜 절을 하느냐, 불상은 우상이 아니냐’는 등의 질문을 해왔다. 그동안 배운 지식으로 차분히 설명해 주었더니 “불교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내가 불법을 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언젠가 도법스님께서 법문을 하면서 “불교를 한다는 사람이 불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셨을 때 왜 불교를 ‘믿는다’고 하시지 않고 ‘한다’고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의문을 가졌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렴풋이 그 의미를 알게 됐다.

나는 불자로서는 늦깍기다. 그런만큼 다른 불자들보다 몇배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최근 불교를 하려면 실천불교, 사회와 더불어 사는 불교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하나씩 실천하고 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지옥이 고갈되고, 아귀가 배부르고, 수라가 조복하는데 보탬이 되는 불교를 하고 싶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는 말과 같이 미력하지만 불교를 위하여 나의 정열을 바치며 무소의 뿔처럼 굳건히 정진할 것이다.

문의 354-6204 전국서점에 있습니다

봉성기획

박찬호,
20승할까? 못할까?



30분만 따라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설날, 온가족이 모여 함께 따라해 보세요

■ 벽산스님(불명 : 道日) 약력 1968 합천 해인사 입산, 1973 부산 범어사 (송파 대화상 은사로 득도, 1975~76 통도사/봉선사 강원 대교과수료, 1977 동국대 역경원 원장 운허 대종사 법좌하에서 수학, 1977~86 서울 성내동 자은 포교당 주지, 부산 정수사/소림사/화엄사 주지, 現 합천 청성암 주지, 부산 금정구 생활 선원 주지

「벽산스님 따라하기」 50쪽만 따라읽으면 누구나 쉽게 괘를 뽑을 수 있습니다.

▶ 6가지 괘 뽑는 법 쌀로 괘 뽑는 법 책페이지로 괘 뽑는 법 바둑돌로 괘 뽑는 법 동전으로 괘 뽑는 법 생활속의 숫자(이피트호수, 주민등록번호, 차표 등)로 괘 뽑는 법 · 일진, 년, 월, 시로 괘 뽑는 법
▶ 14가지 항목별 괘풀이의 예 투자/주식 2개월간 수요일을 노리라 의약, 식품 주식이 좋다 시험/학문 다시 재정비하라 마음만 앞서기고 있는 상태다 고과서, 참고서, 기출문제를 연구하고 7일동안 정신수련이 꼭 필요한 시절이다 부동산매매 타인, 중개인 앞만 믿고 함부로 계약하지 말라 3개월만 참으면 좋은 계약이 이루어진다 사업 새사업은 6개월 뒤에 시작하는게 좋다 소자본으로 재별 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된다 자신감을 가져라



10,000명의 실전상담을 통해 한국적 상황에 맞게 풀어쓴 생활주역
30분만 보면 점쟁이 뺨친다
벽산스님 따라하기

신국판 상,하권 / 값 각권 12,000원

노인 급증…사회불안·세대갈등 심각

2000년을 여는
불교 지상포럼
4

고령화사회

지난 92년 국제연합(UN)은 매년 10월1일을 '세계노인의 날'로 정했다. 또 1999년을 '세계노인의 해'로 선포한 뒤 국가마다 정부와 민간단체가 협력해 노인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엔은 노인의 해 기본이념을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사회'로 명시, 노인의 사회참여와 세대간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범지구적인 사회문제로 부상되고 있는 21세기의 노령화 사회에 대비, 각 국가는 노인복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장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강한 권고의 메시지이다.

'고령화 사회'의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우리에게도 노인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IMF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가 우리 사회를 엄습한 지난 1년간 탑골공원, 남산 등을 배회하면서 급식소에서 주는 한끼의 식사로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결식노인들을 보면서 노인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절감한 한 해이기도 했다. 〈편집자 주〉

기획취재팀
정성운 차장
한명우 기자
김재경 기자
오종욱 기자

■세계의 노인문제

세계인구 60억명중 80세이상의 초고령자는 6천1백만명이나 된다. 인구 1백명당 거의 한명인 셈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점차 심화하고 있어 21세기 중반인 서기 2050년에는 80세이상 노인이 지금보다 5배나 많은 3억1천1백만명에 이른다는 것이 유엔의 추산이다. 이때가 되면 세계인구가 90억명에 달할 것이므로 30명당 한명이 80세 이상인 초고령화시대가 된다는 계산이다.

고령화는 보통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노년인구 비율을 지표로 삼는다. 노년인구 비율이 7%를 초과하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를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다. 대부분의 서방 선진국들은 금세기 초를 전후해 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70년대에 고령사회가 됐다. 일본의 경우는 70년에 고령화사회로, 이어 94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백5만1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6.6%다. 2000년에 고령화사회가 될 전망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를 맞을 것이 예상된다는 사실이다. 20세기는 선 후진국을 막론하고 경제발전의 시대였고 그와 더불어 인구의 고령화도 진행됐다.



◇한국의 노인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서울 탑골공원. 하루 평균 5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노인들이 몰려 이들의 쉴자리 마련이 시급하다.

복지제도 강구 빈곤·질병·소외등 4苦 해결
"일체 중생 내 부모" 孝의 사회화운동 전개

인구의 노령화는 노동력의 노후화와 세대간 갈등 등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또 노령층의 절반 가량이 도시에 살고 있어 도시화 가속과 인구이동·사회불안 등의 문제도 발생시킨다. 특히 전세계 노령층의 80% 이상이 살고 있고 노령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사회복지제도나 대책이 거의 무방비 상태여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선진국에서조차 21세기에는 연금 부담자와 수혜자의 역전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인인구는 일반적으로 역할의 상실에서 오는 공허감과 소외감, 신체적 노쇠에서 발생하는 병고, 소득의 감소로 인한 생활수준의 저하 등 동시다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노인문제의 특성때문에 선진 복지국가일수록 황혼기의 여생을 무난히 보낼 수 있도록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노인복지에 각별한 법제적 배려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노인문화와 여가활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한국 결식노인 42만명

노인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대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강남대 노인복지학과 고양곤 교수팀이 최근 서울 탑골공원에서 조사한 결과 하루에 한끼만 먹는 노인이 전체의 4%, 두끼를 때우는 노인이 1(%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42만여명의 노인이 끼니를 거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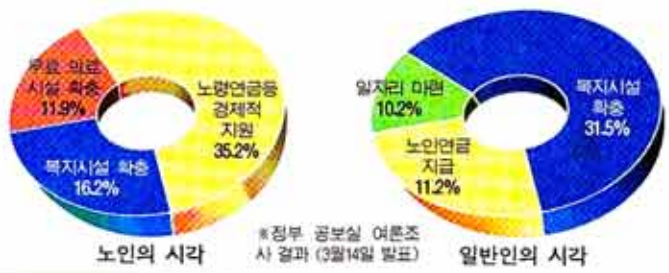
사회복지학자들은 호적상 부양의무자가 있어 생보자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양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이 50만~1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65세이상의 노인인구는 2000년에는 약 7%, 2022년에는 14.3%에 달해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로 가족의 부양기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의 약 87%가 장기간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당뇨, 관절통, 고혈압 등 질환을 앓고 있다. 중증와상노인이나 치매노인도 약 38만명에 이른다. 그렇지만 이들을 위한 재가보건복지서비스는 매우 미약하다. 양로·요양시설 역시 전국 1백66개소에서 약 1만3천명의 노인만이 보호받을 뿐이다. 이는 전체 노인수의 0.42%로 선진국 수준(3~5%)의 10분의1에 불과하다.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노인의료비도 우리 사회보장체계를 위협하고 있다.

현재 노인의 약 55%는 월 평균 20만원이하의 소득으로 열악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경로연금 지급대상 확대 및 급액 인상 등을 통해 생활안정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결국 한국의 노인은 수입 중단, 건강 악화, 역할 상실(권위 추락 및 노동생산성 저하 등), 고립과 소외 등 4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에게 필요한 건 숙식뿐만 아니라 의료 문화서비스 등 종합적인 복지시스템이라고 지적한다. 국가 기업 병원 등이 삼위일체가 돼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간다면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는미풍양속에 못지 않은 실질적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



※정부 공보실 여론조사 결과 (3월14일 발표)

■불교적 해법

어느날 싯달타 태자는 가비라성의 동·남·서·북 4문으로 나가셨는데, 동문에서는 늙은 이를 보고, 남문에서는 병든 이를 보고, 서문에서는 죽은 사람을 보고, 북문에 나가서는 사문을 보고 드디어 출가의 뜻을 세웠다고 한다. 즉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노인을 본 것이 출가의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이다.

이처럼 노인의 고(苦)는 불교의 중요한 테마중의 하나였다. 즉 노인문제의 4고(苦)로 불리는 빈곤, 질병, 고독, 무위도 따지고 보면 불교의 8고(생·로·병·사·怨憎會苦·愛別離苦·救不得苦·五陰盛苦) 속에 포함되는 것이다.

노인복지는 단순히 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소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화복지, 정신복지를 추구해야 한다. 나아가 이타행을 통한 자기의 완성, 지혜의 완성으로 모든 노인들이 보살행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부모 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진정한 효라고 보는 불교의 효사상을 현대 사회에 맞는 새로운 효의 개념으로 정립해 노인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인복지사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불교노인복지 현황

전국 사찰 복지요람으로

교계 노인시설 35곳뿐
급식·병원·상담소 늘려야

우리나라 전체의 노인복지시설은 98년 10월 현재 1백85개(무료 1백52개, 유료 17개, 실비 16개). 여기서 노인 전용의 불교복지시설은 35개소로 전체 시설수의 약 19%에 해당된다. 물론 비인가시설을 포함하면 불교계의 노인복지시설은 이보다 훨씬 많다. 인덕노인복지회관 등 4개의 노인종합복지관(진각복지회와 인덕원이 최근 서울시로부터 수탁한 노인종합복지관은 제외), 연꽃마을에서 운영하는 12개의 무료 노인병원, 대구보살선원 등 5개의 유료 노인복지주택, 용인양로원 등 17개의 무료양로시설, 성지원 등 5개의 요양시설 등 50여개 이상의 불교노인복지시설이 있다.



◇사진은 불교사회봉사회의 서울 종묘공원 무료점심 공양 장면.

이밖에 노인전용 복지시설을 포함, 다른 복지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복합복지시설도 많다. 사찰 및 각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20여개의 노인대학과 40여개의 경로식당, 5개의 복지관 노인의집(노인 그룹홈)을 비롯 복지관의 노인주간보호소, 무료진료소, 노인상담전화, 이동목욕서비스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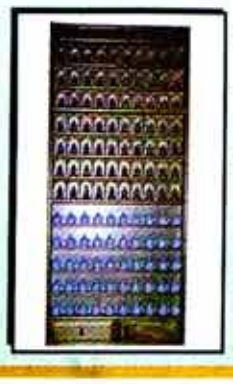
그러나 불교노인복지시설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 아직은 노인복지의 초보단계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교계의 복지정책도 이제는 무의탁 양로원이나 보육원같은 수용시설보다는 일반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센터의 확충과 무료급식소, 무료병원, 노인문제 상담실 등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 사찰이 노인복지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전국의 주지스님들이 '효의 사회화운동'을 전개하는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불교 신도의 상당수를 점유하는 노인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위안을 줄 수 있는 생활불교·실천불교로 거듭날때 불교는 21세기 고령화사회를 선도하는 종교가 될 것이다.

사찰등(燈) 장엄불사 -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종이 팔각등과 혼돈하지 마십시오" 100% 재활용 재질 사용
연등규격(지름) : 6.5cm, 8.5cm, 10.5cm, 13cm, 17cm, 30cm(대등), 실크등, 공단등


◀새디자인의 팔모 조립등
간편하며 눈비에 파손되지 않는 실용적인 팔모 조립등이 곧 출시됩니다.
· 규격 : 13cm


(조립 팔모등) (원 통 등) (차걸이등) (연 등)
♣ T자형 전선 제작, 판매합니다 ♣
연등가격을 공장도 가격으로 대폭 인하 납품하여 드리겠습니다.

◀인 등
※각종 인등 주문제작
※천불전 조성합니다.
■찬덕연등 장엄사찰
조계사(서 울) 용주사(화성군) 금산사(김제) 선본사(팔공산) 동화사(팔공산) 갓바위(팔공산) 약천사(제주) 봉선사(남양주) 운주사(화순군) 그외다수
■법당 1년등 설치 전문업체
T자형 케이블 전선 생산, 반영구적 보전, 고정형 설치, 분리형 설치
· 원하시는 사찰에는 견본등을 우송하여 드립니다
· 장엄등을 설치할 사찰은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여 등개수 및 설치위치를 조언하여 드립니다.
제작 및 설치문의
0347)792-6288, 794-4055 / FAX 0347)792-6288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찬 덕 연 등 제 작 사 대표 김 기 찬 합장

20세기의 기적. 그날로 氣치료 능력자가 된다.
레이키
수련을 하지 않고도 그날로 氣치료 능력자가 되는 비법이 있습니다. 레이키(REIKI)법이 그것입니다. 확실한 자격이 있는 레이키 마스터에게서 전수(어튠먼트)를 받기만 하면 그날로 氣치료 능력이 발현됩니다. 「20세기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이 비법(레이키법)은 근세 일본의 도동자 우스이 미카오씨에 의해 발견되고 계발된 이래 1930년대에 하와오따카타 이사에 의해 미국으로 도입되어 급속하게 그 방법이 과학화, 표준화, 간략화, 민주화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이 비법은 인류의 새로운 「氣치료법」으로서, 새로운 「氣문화 자산」으로서, 새로운 「氣과학」으로서 전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계의 의료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 오스트랄리아, 캐나다, 독일 등을 중심으로 하여 보급이 확산되면서 氣치료 능력자를 양성하는 방법으로서, 질병을 치료하는 요법으로서 보급이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미국의 1백만명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3백만명 이상의 레이키 요법가(氣치료 능력자)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나(박희준)의 레이키 마스터로서의 자격
나는 젊와 질신세계 관련 번역 서술가로서 20년 가까이 활동하다가 1985년부터 세계의 간행물을 통해 「레이키계」의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가 국민의 의료복지의 향상을 위해 이를 도입해주로 마음 먹었습니다. 1987년부터 도합 7~8차례 일본을 오가면서 일본의 「Reiki Ore 협회협회」의 아오키(青木)선생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 特別 레이키의 우에노선생, 가이어 레이키의 노사카 선생, 카루나레이키의 오스트랄리계의 일어든 카루루라선생, 영국계의 마키트리스 선생에게서 일본 고유의 전통적 레이키법, 미국에서 표준화된 서양식 레이키법, 1985년에 미국에서 새로 등장한 카루나(자비) 레이키법(심인법과 정신의 개입에 더욱 높은 초점을 맞추고있는 전수법)이 세계의 「레이키 분파」를 폭넓게 터득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유일하게 다재로운 레이키법 전문 교육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 능력도 탁월할정도 향상하고 있어 최근에 레이키법을 전수받는 분들에게는 아홉 많은 質問할 신비체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참고하십시오.
· 여타의 氣치료법과 다른 레이키요법의 특징
1 자기가 자기의 병을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다.
2 원격치료를 쉽게 할 수 있다.
3 한자 한 사람에게 여러 사람이 집단 치료를 할 수 있다.
4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이 정해져 있어 쉽게 배울 수 있다.
5 질병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의 레이키(氣)를 자유자재로 끌어다 쓸 수 있다.
6 부작용이 없고 氣가 소모되지 않는다.
· 레이키법의 전수 절차
능력의 전수는 어튠먼트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몇 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 1단계 : 2일, 제2단계 + 제3단계 : 2일,
▶전문임상응용단계 : 2일 + 2일 ※무료 재교육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레이키요법의 유효 분야
2만가지 이상이나 된다는 사람의 질병 대다수는 작건 크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으며 레이키요법은 이런 질병 모두에 대하여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가벼운 질환등에 대하여는 즉효성의 효과도 발휘하고, 응급 상황과 정신신경과 질환 일반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간호부야와 호스피스에서도 유효하게 쓰일 수 있음이 미국 등지의 증합 병원에서 속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체험담
1. 여느 기공사(42세) 어튠먼트를 받을 때 박희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더니 그것이 몸의 중앙(추석)을 관통하는 것을 느꼈다. 전동은 더욱 깊은 속에서 일어났고 더욱 정밀한 파장으로 느껴졌다. 매 회로부터 신선하고 상쾌한 기운이 몸의 안팎으로 마치 폭포수 같이 흘러 내린 것을 느꼈다. 천수받고 난 후에 길을 걸을 때에도 하늘과 땅과가 氣의 기둥으로 이어진 느낌이었다.
2. 여느 보살(48세) 어튠먼트를 받는 순간 자세의 흔들 같은 것이 희뿌하늘 소용돌이를 치면서 내 이마로 들어오는 듯하더니 몸 전체에 가냘프게 전동이 일어났다. 그 와무다는 찬전히 황홀경 속에 잠겨 있다가 다 끝났으니 눈을 뜨라는 선생님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다시 나로 돌아올 수 있었다. 말로만 듣던 투아경을 실제로 맛보고 나니 당장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았다.
3. 여느 보살(63세) 어튠먼트를 받을 때 가슴 한가운데서 파란 불길이 일어나는 것 같더니 한 순간에 얼장과 멧된 한이 싹 씻겨 나가는 듯한 후련함을 느꼈다. 배탈과 멀만이 정말로 있는 것이라면 이 순간이야말로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한다.
4. 여느 스님(40세) 어튠먼트를 받는 순간에 우주와 나 사이에 백이 없이지면서 宇宙即我 我即宇宙의 일체감과 안심입명의 경지 같은 것을 맛보았다. 기공수련도 이것이것 해 보았지만 레이키법이아말로 진짜이다. 천수받은 다음 날부터 갈의 도반스님과 신도 몇 분을 치료해 주었는데 병이 죽죽 잘 낫는 것을 보니 레이키 종을 새로 창출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5. 한 물자(38세) 국내외의 여러 기공법들을 섭렵하면서 주국의 장모라 하는 기공사에게서 氣도 받아 보았다 그 氣는 몸에 작용하는 힘은 컸겠지 센 것 같았지만 마음에 주는 울림은 없었다. 그러나 박희준 선생님의 레이키는 가냘픈 듯하면서도 나의 감정과 마음, 영혼속으로 깊이 파고들면서 찬찬하게 작용을 미쳐 나도 모르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입죽 엎드려서 감사의 큰 절을 드렸다.
6. 여느스님(56세) 제3단계의 어튠먼트를 받고 최고의 상징을 선생님에게서 전해 받았을 때 비로자나불과 대일여래로 상징되는 근원적 우주 생명에너지와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비결이 레이키법에 잇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 문의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구 한국레이키요법 연구학회)
전화 (02)720-5682, 725-2311, 핸드폰 019)392-2557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빌딩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내가 짓고 받는 것이니 녹이는 것도 내탓

주인공에 못놓고 망설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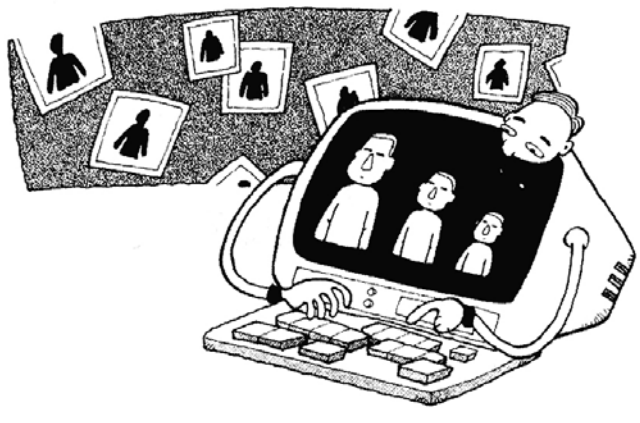
문 매주 현대불교신문을 통하여 스님 말씀 잘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 말씀 감명 깊게 듣고나서 나도 스님 말씀대로 모든 것 일체를 주인공에게 맡겨 놓고 살아야겠구나 생각했다가도, 어떤 경계에 부딪치면 주인공에게 맡기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것 어떻게 하지' 하고 망설여집니다.
- 예를 들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주인공에 맡겨야 하는지요. 계획이 확정되면 실행을 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 잘 될지 잘 안 될지 마음이 갈팡질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딸들이 남편을 가지게 됐고 좀 살만하니 이 늙은이들은 짐이 되니까 이젠 점점 멀리 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또 잘못이 있겠지요. 잘못 키운 죄가 있겠지요. 처녀 때는 엄마를 그렇게 따르고 없으면 못 살듯이 하더니 이젠 후회만 남습니다. 왜 내 살 길을 찾지 않고 자식들에게만 연연하고, 너나 살아라 나는 아무렇게 돼도 괜찮다 했는데 사람 마음이 달라집니다.

너희들이 이제 살만하니 부모도 좀 생각해라 하면 뭘 해 줬느냐고 화를 냅니다. 남편 역시 어떻게 일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없이 그냥 그날그날 주는 밥만 먹고 잠이나 자는 아주 게으른 사람입니다.

저 역시 늙은 몸이라 남편이란 짐을 지고 외면하는 자식들을 보면서 어찌 살아야 할지요. 혼자 몸으로 훌쩍 떠나고 싶을때도 있습니다만 용기도 잃고 삶의 의욕마저도 잃고 있는데 마침 현대불교 신문을 읽고 또 대행 스님의 구도의 글이 담긴 한마음요전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답답합니다. 저는 어찌하면 좋을까요? 마음을 비우라지만 잘 안됩니다. 갈 길을 알려 주십시오.

이제 늙어서인지 몸이 어느 구석이 안 아픈데가 없습니다. 다니던 공장도 못 다니고 있습니다. 부디 부탁입니다. 길을 인도해 주세요. 아침 저녁(밤) 기도도 합니다.


그림 · 최주현

일어나는 일체 생각 · 느낌 · 감정
과거 내가 입력해 놓은 것이니
다시 놓아서 지워야 합니다

답 계획도 세우고 열심히 노력도 해야지요. 주인공에 놓고 말기라 한다고 될대로 되라하는게 아닙니다. 맡겨 놓고 열심히 뛰는 겁니다. 하인이 주인을 믿고 자기는 열심히 일만 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놓고 말기라니까 잘 되느니 잘 못되느니 하고 따지려 듭니다. 맡겨 놓았는데 왜 안되느냐는 거지요.
- 시자가 주인에게 그걸 따집디까? 그건 주인의 몫이고 주인이 알아서 할뿐이고 나는 열심히 정진 했을 뿐입니다.
아, 일이 계획대로 안됐다 칩시다. 그것도 주인 몫이니 되놓으라는 겁니다. '잘 되게 하는 것도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지' 하고 말입니다.

딸들이 늙은이라 멀리해요

문 저는 64세의 늙은이옵니다. 무슨 죄가 많아서인지요,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나간 삶들을 어떻게 견뎌왔는지 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미 이런 고뇌를 감내하면서 살더라도 자식들이나마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딸 셋을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그 딸들이 나를 기둥 삼아 따랐고 무엇이든 요구하면 힘닿는데까지 해 줬습니다.

답 우리가 걸어갈때 한발짝 떼어놓고 또 떼어놓으면서 뒷발자국을 생각하면서 걷던가요? 그냥 한발 내어딛고 또 한발 내어딛고 할 뿐이지요. 지나간 발자국은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건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돌아가는데 그걸 억지로 붙잡으려 드니까 일도 안풀리고 몸에 병도 생기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한번 왔다가 한 철 살고 가는 인생인데 그냥 놓고 사시지요. 자식들에게 뭘 바라시지 말고 저들도 마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마음을 내주시면서 말입니다. 낳아서 길러주는 것도 소중하지만 몸뚱이만 키워주기보다 더 도리를 배워주는게 두고두고 빛이 되질 않겠습니까?

불효하고 있다는 생각 들어요

문 저는 큰스님께서 생활의 모든 고는 자기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을 별 생각없이 듣고 있던 중 어느 날 관을 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를 주인공이 가르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생했을까 생각하니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작은 재산을 잃었다고 남을 원망하고 애를 끓이며 남편을 미워도 했었는데 지금은 주인공을 사랑한다는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년째 생활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문득 이것도 부모님께 불효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게 잘 돌아가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만히 보면 작은 일에도 보상을 은근히 바라는 그 마음에 속이 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없앨 수 있는지요? 큰 스님의 가르침을 한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답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내게 묻는 군요.
믿고 놓고 관하라. 그것 아닙니까? 모든 경계가 자기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았으면 되놓는 것도 아실 겁니다. 결과를 바라지 말고 열심히 놓고 또 놓고 관해 보세요.

피부가 안좋아 고민입니다

문 큰스님 저는 요즘 거울만보면 고민에 빠집니다. 제 피부때문입니다. 직업이 사람들을 많이 접하는 것인데 피부때문에 사람들을 대하는데 자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외적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타이르기도 하지만 좀처럼 고민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큰스님께 여쭤보고 싶은것은 이런 마음이 욕심인지요. 그리고 이런문제가 과거의 업인지,그리고 업이라면 없앨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큰스님의 가르침을 책을 통해 읽고했는데 이런일로 큰스님께 질문을 드린다는것이 부끄럽기도합니다.그렇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큰스님께 여쭙니다.

답 욕심이라고 할것까지야 없겠죠. 또 업이라는 생각에 끄달릴 것도 없어요. 그게 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내 속에 짊어지고 나온 것이니 얼마든지 녹일수 있는 겁니다. '주인공! 너만이 좋아지게 할 수 있잖아!' 하고 굳게 믿고 맡겨 놓으세요. 거울을 볼적마다 그렇게 해도 좋고, 한번 무겁게 맡겨놓고 그걸로 끝내셔도 좋고요. 다만 맡겨놓았다고 하면서도 거울을 볼 적마다 끌탕을 하고 속상해 한다면 그건 맡기는게 아니라 맡겼다가 도로 빼앗아 왔다가 하는 것이니까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너만이' 할때에 내 자생중생들하고 두루 통신이 되어서 좋아질겁니다. 반드시.

결단 내리려면 마음 약해져

문 삶이 참으로 소중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실이 어려울때 쉽게 마음이 상하고 포기를 하게됩니다. 주인공 자리에 믿고 맡기고자 해도 현실에만 마음을 쓰게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자 하는데 마음이 자꾸 약해지기만 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일체 모든것을 주인공자리에 맡기고자 하는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 내속에 거대한 컴퓨터가 들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기기에다 내가 일거수 일투족, 또는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을 낱낱이 입력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컴퓨터에서는 입력했던 것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때든지 두드리는대로 말입니다. 그와같이 우리들의 의식세계에도 과거에, 찰나전도 과거입니다만, 과거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게 모두 입력이 되어 있다가 기회가 닿으면 솔솔 풀려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입력되었던걸 지우지 않는한 그게 풀려 나오는 건 독안에 숨어도 면할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생각, 느낌, 감정이 다 과거에 내가 입력해 놓았던 거기, 그 자리에서 나오는 줄을 알고 나오는 족족 다시 놓아서 입력된 걸 지우는 일입니다. 그러자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것이니 녹일 수 있는 것도 내 탓이다, 나 하기 나름이다라고 믿는 것 말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이럴까 저럴까 하게되고 그렇게 흔들리면 놓아지지도 않을뿐 아니라 놓아진듯 싶다가도 다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안되는 것도 네 몫이다. 자꾸 약해진 것도 거기서 밖에는 해결할 수 없으니 주인공이 알아서 해! 하고 무겁게 놓는게 중요하죠. 그렇게 놓고 나는 그저 열심히 뛰면 됩니다. 믿고 맡기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하고 거기에 무슨 군더더기가 따르겠습니까? 무조건이죠, 무조건.

친구와 싸운뒤 무척 힘들어요

문 안녕하세요 큰스님!
저는 6살까지 안양본원에 다녔던 학생이예요. 7살때 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부산에 와서 지내고 있었는데 5학년때 우연히 같은반 아이와 같이 종교이야기를 하다가 6살까진 안양한마음선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부산에 와서 못다니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아이도 한마음선원에 다닌다고 해서 같이 부산지원에 다니게 되었어요. 큰스님이 말씀하셨죠? 주인공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저 지금도 절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너무힘들어요 아이들이랑 싸워서 기분도 나쁘고 공부도 않되고 그래서... 주인공자리에 놓을려고 해도 그게 잘 안돼요. 어떻게 하는게 주인공 자리에 놓는거죠?
꼭 가르쳐 주세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 아이들이랑 싸워서 기분 나쁘고 공부도 잘 안되고 그러는게 모두 다 주인공이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는 겁니

☞ 16면으로 계속

모든 경계는 나를 성숙시키는 공부재료
고정된 것은 없으니 항상 변하고 흐를 뿐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211)

나쁜 환경은 곧 나를 가르치려는 배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많은 경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 경계는 밖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고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것도 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경계가 어디서 일어났든간에 결국에는 그 경계란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다.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경계들도 우선은 내가 거기에 있음으로서 겪게 되는데 내가 겪게 되는 경계란 결국 내가 수억겁 전으로부터 지어온 것의 결과로서 나의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어제의 업이 경계가 되고 오늘의 경계가 업이 되어 내일의 경계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경계 속에서 그것을 싫어하거나 좋아하고, 미워하거나 사랑하고 한다면 그 경계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무게를 보태어 미래라는 창고에 저장되었다가 나를 향해 안팎으로 다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경계를 결코 둘로 보지 말라. 나와 상대, 주와 객으로 나눠 보지 말라. 어떤 아름다운 모습에도 현혹되지 말고 어떤 위대한 것에도 굴하지 말라. 내가 있기에 세계가 있는 것이다. 내가 있기에 온갖 경계가 있는 것이다. 모든 경계는 필경 나와 다르지 않은 것이니 우주 일체가 한마음인 때문이다. 결코 동요하지 말라. 부처든 마왕이든 신중이든 모든 것은 나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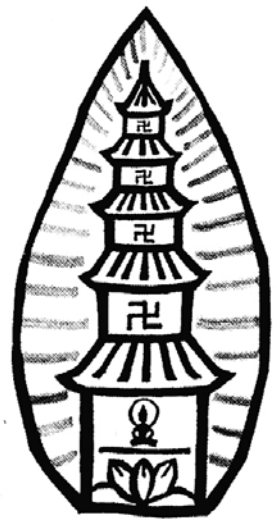
알고 보면 경계가 경계로 되는 것은 바로 거짓 자기 때문이니, '나' '나의 것' 이라는 관념이 없다면 그 어떤 경계도 맑은 거울에 비친 풍경과 같을 것이다. 오직 비춰 보일 뿐 애증이나 호오에 판단이 따르지 않으면 미혹과 번뇌도 붙을 자리가 없는 것이다.

다가온 경계에 쩔쩔매지 말라. 다가온 경계를 붙들고 끙끙거리지 말라. 그것이 비록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여 두 번 괴로워할 것인가. 경계가 닥치니 괴롭고 그 경계에 얽매이니 또 괴로운지라 무엇 때문에 괴로움을 자초하려는가

역경계에 부딪혔을 때 '내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가.' 하고 의기소침할 일이 아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제야 성숙할 기회를 맞았구나.' 하고 생각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는 문제가 곧 자기의 미래를 좌우한다. 결정권은 바로 지금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

역경을 싫어하고 순경을 반가워하는 것은 바로 간택하는 마음이니 중생심이다. 주인공으로서의 마음은 툭 틔어 밝은 허공과 같아서 어떤 경계에도 집착하는 바가 없다. 고로 순경에 애착을 두어 주인공과 만나고자 하는 생각은 도리어 중생심은 북돋을 뿐이니 공한 도리를 알지 못함이라, 도에는 군더더기 하나 붙을 자리 없다. 도는 활발하고 드높고 시원시원하다고 말할 수 있다.

나쁜 환경이란 사실은 나를 가르치려는



주인공의 다른 모습인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에 치어서 본래의 마음을 잃어 버리는 것이 변명이 될 수도 없고 당연시되어서도 안된다. 그것은 알고 보면 주인공의 배려이니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가르치려는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지나치지만 않는다면, 아니 지나치다 그렇지 않다 할 것도 없지만 역경계가 닥쳤을 때 공부하는 바가 더 많다. 고로 역경계가 닥치거든 공부하는 기회로 알고 넘기도록 해야 한다. 넘기 힘든 고개가 넘고 나면 더 보람된 법이다.

모난 돌을 쪼는데 정을 쓰듯이 경계란 것은 나로 하여금 둘 아닌 도리를 알게 하는 것이다. 주인공이 나를 둥글게 다스르기 위해 이심전심으로 상대를 통해 나를 치는 것이다. 그러니 어떤 경계가 닥쳐온들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일이니 남을 증오할 것도 배신할 것도 없다. 오직 주인공에 감사하는 환희의 웃음 띤 얼굴만이 공부하는 이의 모습일 것이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순경계가 오면 좋아하고 깨달은 사람은 역경계가 닥치더라도 껄껄 웃어버린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역경계가 닥치면 슬퍼하고 안절부절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순경계가 와도 묵연히 흘려 보낸다. 닥쳐오는 경계는 같건만 그것에 응대함은 어찌 이리도 셔로 다르겠는가. 실로 수행자의 도덕은 경계에 닥쳐서야 분명하게 드러난다.

경계를 묵연히 수용한다 함은 참는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경계조차도 본성이 공하다는 것을 알고, 또 그 경계는 자신이 유발한 것임을 알고, 나아가 그 경계란 곧 나를 단련시키는 길잡이로서 나는 그것을 통해 진화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지 억울하지만 꾹 참고 나아간다는 뜻은 아니다. 경계를 마음으로 거부하지 않는 것이 수행자의 묵연한 자세인 것이다.

어떠한 경계도 그 실체를 찾아보면 공이다. 어떠한 번뇌도 그 실체를 찾아보면 공이다. 어떠한 탐욕, 죄업, 갈애도 그 실체를 찾아보면 공이다. 본래 텅 빈 허공의 환으로 생긴 신기루처럼 일어난 것이다. 흰구름처럼, 번갯불처럼 일어난 것이다. 눈병 난 사람이 멀쩡한 허공에 꽃보라가 날리는 것으로 보는 것처럼 모든 안팎의 경계는 그러한 것이다.

모든 경계가 필경은 나와 다르지 않다. 자기에게 닥쳐오는 숱한 문제들은 결코 피하려 한다고 피해지지 않는다. 결코 둘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놓고 맡길 때 모든 경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것을 직시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그 경계를 통해 불멸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게 된다.

협찬 : 주 인 공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마음의 벽 · 고정관념 허물때 자유인 돼요

☞ 15면에서 계속

다. 말하자면 나를 가르쳐서 좀 더 지혜롭게 만들려는 것이지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주인공은 좋은 일, 즐거운 일로도 가르치지만 나쁜 일, 언짢은 일로도 가르칩니다. 선생님이, 부모님이 야단을 치실때 잘되라고 야단치시지 잘못되라고 하진 않으시지요. 주인공을 그렇게 살펴준다고 믿으세요. 그러니 늘 감사할 일이 아닌가요.

사회활동과 수행 병행되는지

문 큰스님께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스님 저는 사회에서의 성공과 일상생활에서의 수행이 같이 병행될 수 있는지,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의 주위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란 매우 바쁘게 살아가고 있으며, 거의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란 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수행을 할만한 여유는 더욱 없어보이는데요.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본모습을 찾아나가는 것이 인생의 근본목적이라면 이러한 사회활동에 투자하는 시간을 줄이고 수행 정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사회생활을 통해서 배워 나가는 것도 수행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부와 높은 지위를 얻는 것하고는 이러한 생활을 통한 배움과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지고 오히려 상반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들보다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싶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인게 과연 이러한 사회생활이 헛된 것이고 불교의 진리와는 상반된 것인지 이에 대한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답 이 공부한다고 누가 돈을 벌지 말랬나요. 자리에 앉지 말랬나요. 다만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발목이 묶여서 끄달리며 살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건 다 상대적인 겁니다. 하나도 고정된게 없고 그저 항상 변하고 흐르는 것일 뿐이지요. 우리가 고정되게 '나'라고 생각하는 실체가 있다고 믿지만 그 '나' 조차도 이거 했다가 저거했다가, 금방 이 생각 했다가 금방 저 생각하고 그렇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래는 자유인이요 자재권을 가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고정된 틀에 묶어놓고 너는 이래야 된다, 너는 마땅히 크게 되고 높이 되어야 한다고 하니 그게 다 욕심이고 집착이란 말입니다. 나를, 내 발목을 묶는 노예의 쇠사슬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이 그냥 살면서, 먹고 자고 사랑도 하고 돈도 벌고 그렇게 살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참으로 무엇일까를 되돌아 보고 그러는 가운데 나를 알고 너를 알고 인생을 알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수행따로, 생활따로 이겠습니까? 생활을 떠나 따로 무엇을 구한다면 뭘 구하자는 것이고 또 구한들 뭣에 쓰겠습니까? 그래서 24시간 생활이 그대로 참선이요 수행이지 생활을 떠나 따로 수행이라는 게 있지도 않습니다. 이 공부는 자유인이 되는 공부입니다. 본래 거칠게 없이 자유인인데 고정관념 때문에, 집착과 욕심, 아만·아상 같은 것 때문에 자유를 잃고 사니 그 자유를 다시 찾자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놓고 살라 하는 것이지요. 허무에 빠지라는게 아닙니다. 무상이라는 건 고정된게 하나도 없는 줄 알라는 뜻이지 아예 외면하고 목석같이 되라는게 아닙니다. 잘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천도재 필요한 이유

문 큰스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족하다 봅니다.
그런데 기도가 있으며 절이 있으며 제사과 그 제단위에 올려진 사과 배 등 과일이 있읍니다. 그리고 천도재인가 뭔가도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요? 법형제회등의 사진을 보건대 법형제회가 사교모임으로 변하지 않았나요? 진정 해탈을 위해선 오직 참선과 봉사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스님의 말씀외의 것이 무엇때문에 필요한지 답해주세요…

답 절을 하는게 저 법당의 불상을 보고하는게 아니라 내가 내게 절을 하는거라고 했지요? 내 한마음 기울여서 예경하고 공양을 올리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체제불의 마음이 내 한마음이요, 그 몸이, 형상이 내 몸이요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둘 아니게 둥글려서 내 몸같이 내 마음같이 안다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할 것도 없이 그냥 인의롭게 하나로 감싸안을수 있게 되겠지요. 그게 바로 생활이요 참선이 아닐까요. 해탈의 길이기도 하구요. 내 말이라는 것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걸 가르쳐 보자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정진 · 좌선 수행의 요체는…

문 정진이란 대행스님께서 강조하신 주인공에 돌려놓기 작업인가요? 실제 좌선을 수행한다고 할때 잡념이 들어도 그냥 관하기만 하는 것 이것이 좌선 수행의 요체인가요?

답 그러면 달리 어떻게 하는게 좌선이라고 보십니까? 일체가 들고 나는 그 자리에 놓고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다' '주인공 너만이 네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할대에 그게 관입니다. 잡념이 든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그 자리에서 들고나는 것이니 놓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이거, 잡념이 들어서 안되지' 한다면 놓은게 아니라 집은것 아닙니까? 그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안나오게 하는것도, 나오는 것도 다 그 자리다 하는 백장선사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1.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야 벗어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부터는 그런 일에는(이사 날짜, 방향 등) 저촉을 받지 않고 살아왔는데, 정말 방향이 안 좋아 못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참, 어느분인지 몰라도 잘못 생각하고 있군요. 주인공 자리에서 막는다니 말입니다. 아니, 너와 내가 본래 둘이 아니고 어디 한군데 도량 아닌데가 없고 부처 마음이 내마음이요 내 마음이 부처마음인데 막기는 뭘 막는단 말입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막는 거지 내가 한생각 돌려 턱 놓고 말기는데 막고 말고 할게 어디있습니까. 내가 귀신 짓을 하면 귀신이 있는거고 내가 마구니 짓을 하면 마구니가 되고 그러는 것이지 어디 귀신 마구니가 따로 있어서 그러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 아예 그런 생각일랑 마세요. 그리고 벗어나긴 어디서 무얼 벗어 납니까. 이 몸뚱이는 때가 되면 갈아 입을 것이고, 본래로 누가 나를 붙잡아매지 않았는데 어디로부터 벗어납니까? 내가 스스로 마음으로 벽을 쌓고 고정관념을 놓질 못해서 그렇지 고정관념의 벽을 스스로 허문다면 그 순간부터 자유인이지요. 우주 삼천대천 세계를 활보할 수 있는 자유인요. 백장선사의 법문을 듣고 벗어났다는 그분, 딴데서 벗어난게 아니라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난 겁니다.

짐되는 장애인 신세 괴로워요

문 저는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지쓰는 것은 지금 저는 너무 혼란스럽고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나이가 30대이지만 저는 아직도 집에서 무위도식하면서 놀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이젠 많이 늙으셨고 효도 한번 못하고 오히려 짐만 되는 제 자신이 자꾸만 비참해지고 하루, 하루가 지나가는 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짐만 되는 저도 살아야 하는지 이젠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굴하게 계속 살아야 하는지 저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답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경계는 다 나를 성숙시키기 위한 공부의 재료입니다. 특히 병고액난 같은 괴로움은 더욱 그렇지요. 사람이 편하고 즐겁기만해서는 마음공부를 하기 어렵습니다. 내게 닥친 고통은 늘 말씀드리듯이 수억겁을 거쳐오면서 내가 지었던 것이 유전성 업보성 영계성 등으로 내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피한다고 해결이 되질 않지요. 전자에 입력한걸 지우려면 다시 그 자리에 놓아야 하듯이 현실의 고통을 무겁게, 진실되게 주인공자리에 되놓고 관해야 합니다. 샘물은 거기서만 솟아납니다. 잊지마세요.

마음도 쓰지않으면 썩는지요

문 한마음 요전을 읽다가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마음을 쓰지 않으면 썩게 된다는 말씀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을 쓰지 않는다고 썩기까지 하는지요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써야하는지요

답 무엇하나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나투며 돌아간다고 했지요. 집에서 아버지 노릇하다 남편노릇하고 아들 노릇도 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난 아버지 노릇 안한다, 남편 노릇만 하겠다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되겠습니까? 이미 아버지고 아들이고 형제고 남편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고집부린다면 다들 정신이 어떻게 되었다고 하겠지요. 그와 같습니다.

주인공과 생각의 차이점

문 수행이 매사에 참고 견디는 쪽으로 발전합니다.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생각한 그 때일뿐 욕망이나 욕정에 무너져 버립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어떤것인가요? 주인공은 생각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그리고 선원에 나가면 쉽게 큰스님을 뵐 수 있나요?

답 항상 나를 되돌아보는 점이 있어야 하고 되돌아보면 놓고 관해야 합니다. 생각으로만 놓았다고 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건성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지극한 마음으로 놓고 관할때 놓고 관하는 마음이 내 뿌리에 닿게될때 열심히 노력하세요.(첫째주나 셋째주 일요일에 정기 법회가 열립니다. 언제든지 직접 질문하실수 있습니다)

집안 어려워 공부 잘 안돼요

문 저는 마음공부를 시작한지 1년도 안된 25살의 여대생입니다. 그전에 다니던 대학을 관두고 제가 다니고 싶어했던 지금의 대학으로 다시 입학하느라고 아직도 2학년입니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집안형편이 어려워 거의 매일 아르바이트를 다니느라고 제가 오래전부터 목표로 하고 있는 시험공부는 몇년째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합니다. 요새는 자꾸 신경질이 나고 시험준비를 할수 있는 기회가 영영 안 올것만 같습니다. 목표를 이루기에는 제 현실의 짐이 무겁습니다. 길을 알려주십시요.

답 안되는 것도 법이고 되는것도 법입니다. 전쟁을 하는데도 전진만 있는게 아니라 후퇴도 있습니다. 살기위해서 후퇴할 때가 있지요. 그러니 안되는건 안되는 것대로 한생각 돌려서 놓고 되는건 되는 것대로 감사히 생각하며 놓고 가야합니다.
그렇다고 목표를 갖지 말라거나 계획도 없이 마구잡이로 몰대로 되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목표도 세우고 계획도 갖기는 갖되 거기에 착을 두지 말고 찰나찰나 가는 인연 붙잡지 말고 오는 인연 막지 말고 또 거기에도 착을 두지말고 닥치는대로 주어 삼키며 놓고 가라는 말입니다.

뭇생명 한자리에 있다는 뜻

문 삼가 큰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어찌해서 그런 큰마음 큰 뜻으로 중생들을 제접하고 계시는지요… 감히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큰 뜻 헤아리기 어려우나 어쨌든 진실을 알아야만 하겠기에 주인공을 잡고 마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 갑니다…
질문을 올리고 싶은 것은, 수많은 생명들이 언제나 한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뜻은 무엇인지요…큰스님… 참눈물 한방울을 흘릴수 있는 참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답 멀리 보실것 없이 내 몸뚱이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우글거리고 있나? 우리 몸 속에 수십억 생명들이 제각끔 살면서 서로 돕고 한자리 하면서 연방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체로서 공식하고 공용하고 공생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공심이고요, 또 어디 우리 몸뚱이 뿐입니까.
이 지구라는 별도 그렇고 이 우주의 모든 별성들도 서로가 서로를 돕고 먹이고 지탱해 주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제 착각이라면 한시인들 공존할 수 있을것 같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삼세가 다 한찰나에 있고 삼천대천세계가 나의 근본과 직결되어 있으니 모두가 그냥 한자리요 한마음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생긴 건 제 각각이고 어제 오늘이 본명히 다르다하면서도 근본에 있어서는 둘이 아니니 이 도리를 알면 그냥 한도량 한자리이지요. 그래서 부처의 발은 경발이다 했습니다.

마음의 눈귀로 보고 듣는 법

문 항상 큰스님의 말씀을 마음 지극히 믿고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주인공이 보는 눈과 마음으로 보는 눈이 다른지요 어떻게 다른지요 주인공이 귀로 듣는 것과 마음의 귀로 듣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요. 스님 법문에 마음의 귀로 들으라 하셨는데 그 뜻과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 주인공이 보는 눈이다, 마음의 눈이다 또는 귀없는 귀 눈없는 눈이다 하는게 모두 같은 말입니다. 말로 하자니 여러가지 표현이 나온 거지요. 그건 뭐냐하면 내가 한다,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제일이다 하면서 항상 '내가, 내가' 하는데 그 '나'라는게 빠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에 얽매여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고정관념에서 나오게 되는데 모두를 그걸 모르니까 눈없는 눈으로 보고 귀없는 귀로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걸 따지고 드는 그것 까지도 주인공 자리에 놓고 가세요. 이건 주인공이 듣는 걸까 내가 듣는 걸까 하지마시고 몽땅 주인공 몫으로 돌리고 다만 관하도록 하세요.



그림 · 최주현

생활을 떠나 따로 수행 없으니
그냥 먹고 자고 돈벌고 사랑하며
나와 너를 알고 인생을 알아야죠

내몸같이 하나로 감싸 안을때 해탈 맛봐
그냥 나오는 족족 놓고 놓는게 바로 정진

자심삼매 성취하는 길

문 경전을 보면 미륵보살이 과거생에 자심삼매를 성취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답 누구나 99% 부처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면 말입니다. 자심삼매란 나오는대로 놓고 또 놓아서 과거의식과 현재의식이 계합이 된 걸 말하는데 누구나 부처될 가능성이 있으니 어디 자심삼매 뿐이겠습니까? 육조스님께서 이렇게 말하신걸 들어보셨겠지요?

· 자성이 본래 청정한줄 내 어찌 알았으리까!
· 자성이 본래 여여한줄을 내 어찌 알았으리까.
· 자성이 본래 만법을 들이고 냄을 내 어찌 알았으리까?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사가는데 방향 안좋아 고민

문 큰 스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파트가 분양되어 이사를 할려니 살고 있는 집이 처분이 안되어 못 가고 있는데, 같은 도반말이 방향이 안 좋아 못 가게 주인공 자리에서 막는다고 하는데, 백장 선사는 오백생을 뱀의 허물을 벗지 못하다가 어떤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순간 벗어 났다고 하셨는데, 저도 없이 마구잡이로 몰대로 되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목표도 세우고 계획도 갖기는 갖되 거기에 착을 두지 말고 찰나찰나 가는 인연 붙잡지 말고 오는 인연 막지 말고 또 거기에도 착을 두지말고 닥치는대로 주어 삼키며 놓고 가라는 말입니다.

뭇생명 한자리에 있다는 뜻

문 삼가 큰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어찌해서 그런 큰마음 큰 뜻으로 중생들을 제접하고 계시는지요… 감히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큰 뜻 헤아리기 어려우나 어쨌든 진실을 알아야만 하겠기에 주인공을 잡고 마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 갑니다…
질문을 올리고 싶은 것은, 수많은 생명들이 언제나 한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뜻은 무엇인지요…큰스님… 참눈물 한방울을 흘릴수 있는 참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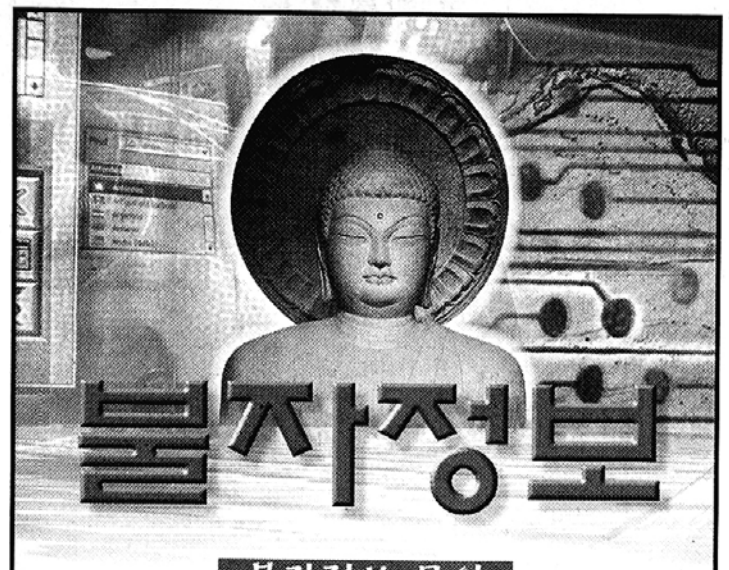
답 멀리 보실것 없이 내 몸뚱이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우글거리고 있나? 우리 몸 속에 수십억 생명들이 제각끔 살면서 서로 돕고 한자리 하면서 연방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공체로서 공식하고 공용하고 공생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공심이고요, 또 어디 우리 몸뚱이 뿐입니까.
이 지구라는 별도 그렇고 이 우주의 모든 별성들도 서로가 서로를 돕고 먹이고 지탱해 주면서 돌아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제 착각이라면 한시인들 공존할 수 있을것 같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삼세가 다 한찰나에 있고 삼천대천세계가 나의 근본과 직결되어 있으니 모두가 그냥 한자리요 한마음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생긴 건 제 각각이고 어제 오늘이 본명히 다르다하면서도 근본에 있어서는 둘이 아니니 이 도리를 알면 그냥 한도량 한자리이지요. 그래서 부처의 발은 경발이다 했습니다.

마음의 눈귀로 보고 듣는 법

문 항상 큰스님의 말씀을 마음 지극히 믿고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주인공이 보는 눈과 마음으로 보는 눈이 다른지요 어떻게 다른지요 주인공이 귀로 듣는 것과 마음의 귀로 듣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요. 스님 법문에 마음의 귀로 들으라 하셨는데 그 뜻과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 주인공이 보는 눈이다, 마음의 눈이다 또는 귀없는 귀 눈없는 눈이다 하는게 모두 같은 말입니다. 말로 하자니 여러가지 표현이 나온 거지요. 그건 뭐냐하면 내가 한다,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제일이다 하면서 항상 '내가, 내가' 하는데 그 '나'라는게 빠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에 얽매여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고정관념에서 나오게 되는데 모두를 그걸 모르니까 눈없는 눈으로 보고 귀없는 귀로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걸 따지고 드는 그것 까지도 주인공 자리에 놓고 가세요. 이건 주인공이 듣는 걸까 내가 듣는 걸까 하지마시고 몽땅 주인공 몫으로 돌리고 다만 관하도록 하세요.

협찬 주인공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598-1015

간병인이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02)363-7884
017)247-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간병인회

당뇨완치
대한불교원융종 **세운정사**
0671)626-4984
011)696-4848
전북 남원시 하정동 226번지

강좌

易학교육전문학원 육성교재
집에서 배우는 **易학 학습지**
8주 완성
좋은 스승, 좋은 교재를 만나야 제대로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역학계의 혜성 박규병 (전직교사·59)원장이 만들었습니다. 믿으십시오. 믿는 것도 인연이지만….
농협 037-01-298413 (예금주) 글향기
易학교육전문학원 (02)332-7001 (042)525-5774

사주 명리수강생 모집
⊙사주·신수·궁합·택일·작명·방위
⊙진로 선택 등을 자신있게 간명할수 있도록 책임지도 합니다.
⊙저렴한 수강료에 강의는 최고수준
⊙주3회 (1회2시간씩) 3개월 완성
⊙초급 중급 상급 각 1개월씩
⊙수시개강, 연중계속강의
마포구 대흥동 801-57
한국명리연구원 02)713-4852-3

동양사상 공부하실 분
◆과목 : 참선지도, 불교경전, 역원문, 노장사상, 관상, 육효, 사주, 풍수지리, 가상(家相)
※전강 탄허스님 문하에서 수학
◆강사 : 김 소 호 거사
어려운 시대에 무엇이 문제인가?(출장상담도 해드림)
서울 성북구 정릉동 266-112호 **달마정사선원**
011)755-5333/02)914-6551

전통불교의식 확인및 문화강좌 수강생 모집
▣ 기본과정 : 도량석, 종송, 예경, 불공시식 등
▣ 중급과정 : 대령, 관욕, 신중작법, 특별의식
▣ 어산작법반(속성반) : 상주권공, 요잡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도량게, 다게나비무
※불교제반(49재, 천도재, 점안식 등)의식을 전통의식으로 봉행함
▣ 원왕생 봉시회원 모집 : 불교식 장의장례의식(교육후 봉사활동)
※각 과정 통신수강 가능
▣ 문화강좌 : 사경기도법회 및 기초교리강좌, 사물놀이, 생활불교의식, 서예, 아나파나사티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7-1 원방BD 4층 (봉은사옆)
전통불교의식연구원 ☎02)511-0108

자미두수교실
신령스러운 **자미경의 저자 김석훈 선생**의 자미두수 수강생 모집.
★자미두수란★동양의 점성학. 북극성(자미)을 중심한 남북두의 별로 인간의 미래를 내다보는 학문.
문의 ☎02)3413-0232~1
개인상담 문의도 전화 바랍니다.

구인

사 원 모 집
불교음반 전문 유통업체인 송강기획과 함께 일할 사원을 모집합니다.
■분야 : 영업직 ■성별 : 男
■구비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희망급여 명기. 전화 반드시 기재
■보낼 곳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84-37 3층
※서류심사후 합격자 개별통보 예정 (보내는 서류 일체 반환 없음)

스님을 찾습니다.
1978~79년에 운문사 강원에 계시면서 방학을 맞아 음성 은사스님 사찰로 가시기 위해 상주포교당에서 쉬어 가시던 키가 아주 작은 비구니 스님 연락 바랍니다.
053)473-8952

경주시 황용산 토굴에 사는 비구승입니다.
탁발을 위해 천도재, 49재, 기도 및 법회 보아 드립니다.
필요하신 사찰이나 뜻있는 불자은 도움 주시는 마음으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561)773-8640
동로 합장

오후에 학원 다니며 공부할 수 있는 도량을 찾습니다.
회룡 합장
011)454-0140
0575)873-5596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서울 도봉산 **천축사**
02)954-1474

절운영 맡겨주실 분
◆모든 불치병치료 능통함.
◆기치료법 전수함.
광 명 스 님
016)385-7455

선오·선재스님이 선요스님을 찾습니다.
안거처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0561)773-0773

사찰관리 부전소임 원함
법일 합장
011)688-5046

토굴에서 정진하는 스님입니다.
중고 승용차가 필요하니 시주 하실 분 기다립니다.
016)579-1008
원유 합장

스님이 없는 절에 스님 필요하신 분 연락 바랍니다
011)806-8467

기도하는 마음으로 절을 맡아 운영하실 비구니스님을 모십니다.
(5년이상 수행하신 분)
0595)882-4849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기도·공부·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기타

정신병 신병 집중치료
환자 및 가족비밀 절대보장
1.약물 치료가 아님
1.가정에서 관리 어려운 환자
1.요양치료가 필요한 환자
1.병명없이 아픈 사람
1.돈을 마구 쓰며 구타를 일삼는 사람
1.굿을 하고 이상이 생긴사람
1.신병 들린 사람
1.약을 써도 효과가 없는 사람
1.병명이 바뀌는 사람
본 스님은 27년간 수도한 분
묵계사 고찰정법 기도도량
0595)884-1789/011)883-9144

수맥찾기 강좌
1.신비추 L-로드 사용법(목요일)
2.저렴하고 간단한 수맥차단제 판매
3.사찰요청시 무료수맥점검 실시
4.수맥상담 및 기타문의 환영
02)734-2118
011)239-6817
대붕 氣 살림

당신의 자녀 무엇이 문제입니까?
키! 성적! 정신적 스트레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18)326-5998

국산 토종 목암주 묘목
※염가분양※
02)222-6003(주간)
02)224-8895(주간)
02)234-0095(야간)

개발지(땅) 투자
국제공항, 항만, 공단 배후신도시 상업지 및 주거예정지
02)539-3232
017)310-4153
담당 : 박 수 진 (법명: 명주)

전통사찰 건축 불사
문화재 관리국 기능보유자 등록 제 962호
4불사 대웅전, 선방, 요사채, 종각, 산신각, 기둥은 육송만 사용. 그리고 4미터 이하도 육송을 사용해 드립니다.
▶시공사찰
용주사 용화사 성남사 지장사 구원사 대인사 비봉사 승가사 진관사 그외등등 현재 은선사 천운사 불사중
■공장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주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서부3리 28번지 가든아파트 가동 202호
0572)636-2509/011)507-3629
이 민 과 합장

大慈大悲 달마도는 자연의 기운입니다
(KBS 2TV 달마도의 신비출연-98.7.24)

▶수성사
02)540-5926
무하합장
이사, 삼재 차량운행
수맥차단
5회의 불보살님 견불후 불교미술탱화 입문 12년<관음보살도 보급중>

벽지 ◑ 바닥재 버티칼·페인트
도매시장 가격으로 시공해 드립니다.
※ 출장견적 환영
해인 인테리어
02)2201-1470
019)369-8000

사찰안내

사찰 운영안내
◇위치 : 부 산
◇부지 : 300평 ◇법당 : 26평
◇요사 : 38평 ◇가액 : 2억 9천
⊙ 전국 사찰·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사찰 전세 안내
◆위치 : 서울 서대문구
◆법당 : 15평(즉시법회가능)
◆부처님 삼존불, 방2, 주방 2, 화장실 1
◆가격 : 스님과 면담후 아주 저렴한 전세가로 드립니다.
※탁발하시는 스님 원합니다.※
02)823-0788
019)218-0788

사찰안내
■위치 : 전남
■법당 : 33평(목조)
■요사 : 90평 ■부지 : 2,300평
■가액 : 4억 5천만원
● 전국 포교당 및 사찰 다량보유
● 사찰 양도 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지리산 터
◆위치 : 경남 하동군 청학동 근처
◆임야 3000평 밭 560평 준 농림지
◆계곡 옆 차량 출입가능
◆가액 : 5500만원
0593)853-4096
018)413-4096
※유압식 중고 황토벽돌 기계 구합니다.

양평 서종 부지
◆소재 :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408번지 409번지
◆지목 : 토임 630평(2필지)
◆가액 : 1억2천
◆특징 : 서울에서 40-50분거리
0338)772-7235
016)341-7235

포교당 안내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동 (89번 버스종점옆)
◆평수 : 법당 40평
◆삼존불, 영가단, 삼성각, 방2, 주방, 샤워장
◆가격 : 보증금 1,500만원-월 7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2)521-7512
017)339-0566

사찰 급 안내
◆위치: 전남 고흥군 과역면 소재지 5분거리
◆부지: 대지 약 500평+전 700평 대웅전 및 요사 80평, 부지창고 및 사위실 10평, 종각 및 미륵3불, 석등15평
◆한국감정평가: 1억5천 (50%이상 상환절충가)시설비 1000만원
1. 1994년 1월 준공된 시찰
2. 포교 중심 최적지
3. 시찰입구까지 차량진입 (아스팔트)
4. 교통요충지 (고속터미널, 차량1분거리)
02)836-3822/019)277-7072
0666)832-3903, 3904

사찰(급) 운영하실 분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감천 바닷가
◆부지 : 200평(대지)
◆법당 : 25평 ◆요사 : 40평(방4칸)
◆주차시설 완비, 즉시 입주가능
◆가격 : 매매·전세 가능 (담사후 절충요망- 최저가격으로 드림)
◆특징 : 감천 앞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천마산 기도도량
051)291-8483
011)560-8483

사찰(급)안내
◆위치 : 진주시
◆부지 : 142평, 대지(등기필)
◆법당, 요사 : 37평
◆가액 : 1억 3천만원
◆특징 : 진주시내 10분거리 소재, 교통편리, 준공 4년, 고급 전원주택 (임법당), 시설일체 무상기증
080)048-4848
011)488-3339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산청군 금서면
◆부지 : 약 2113평
◆건물 : 5동 (법당, 신신각, 요사채2동 샬터, 창고 및 화장실1동)
◆가액 : 2억 5천만원
◆특징 : 소박 편안하며 조용한 지리산 자락으로 식수에 수질이 좋고 양이 풍부함, 사찰경내까지 도로 포장 및 주차장 있음
053)651-9363

사찰 안내
◆위치 : 전남 담양군 삼다리
◆대지 : 500평 ◆법당 : 30평
◆요사채 : 15평
◆가액 : 1억 (절충가능)
019)640-0215
062)524-0215

사찰·토굴 구하시는 스님
◆위치 : 덕유산 앞 삼봉산 구천동, 거창군 30km, 무주군 30km, 경계선
◆대지 : 215평 ◆건평 : 25평
◆신축 벽돌 스라브, 현대식 건물
0657)322-1240
053)473-8952

사찰 안내
◆위치 : 경기도 이천소재 (서울 약1시간대)
◆대지 : 약 430평
◆법당 : 15평(방 3)
◆법전 : 27평(선방 겸 사무실 포함)
◆요사채 : 43평(방 11개)
◆가액 : 3억 5천만원
◆특징 : 취락 발전 요충지 확정, 고속도 신설, 서울 근린지역
0336)643-9051/0595)882-6407

사찰 안내
◆위치 : 천안 옥천
◆부지 : 약 1천평(종중땅)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용궁, 칠성각, 요사채 2동, 석물미륵, 탑등
◆가액 : 8천만원(절충가)
02)838-2929
0417)566-5892

포교원 안내
◆위치 : 도봉구 방학2동
◆평수 : 25평
◆법당 주방시설 스님거처할방1
◆가격 : 전세 280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2)954-1289

사찰 안내
◆위치 : 신길5동(우신극장 옆)
◆평수 : 8평 2층
◆가액 : 시설비 포함 5백만원 (월 15만원)
011)747-9061
※ 현재 철학원 운영중

사찰 안내
◆ 수도권 및 전국일원 사찰이나 암자를 양도, 양수 하실분을 찾습니다.
◆ 수도, 정진할 수 있는 사찰, 암자를 구하시는 분
◆ 전화 상담자의 상담 내용을 철저히 보안유지합니다.
◆ 사찰, 포교당, 실내공사 상담환영
한국불사연구소 (02)561-7020

사찰 안내
◆위치: 서울시내
◆부지: 약 500평 ◆법당 40평
◆요사: 30평 ◆가액: 2억 7천만원
◐ 오백나한 불사중
◐ 주차시설 완비
좋은인연 (02)561-7791

사찰(포교원) 안내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지 : 430평
◆건평 : 100평(아래층 75평, 위층 25평)
◆ 가격 : 1억 9천(가격절충)
◆ 덕산온천 옆(교통편리함)
0458)337-6348

사찰(급)안내
◆위치 : 경 남 창녕
◆평수 : 120평
◆교통편리지역임
0559)526-2488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합천군 묘산면 (면에서 5분거리))
◆평수 : 대지 300평,법당 10평, 요사채 2동(삼존불, 산신각, 칠성각 모셔져 있음, 용왕당)
◆사찰 경내 차량진입 가능
◆가격 : 7천 7백만원(절충가능)
0599)932-6278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마산 지역내 교통중심지
◆부지 : 500평 이상(주차장 포함)
◆법당 : 31평(목조건물,단층필,3포5포)
◆요사채 : 100평, 주지실 10평, 명부전 15평(단층필)
※시설일체 무상기증, 주차무제한
※경남지역 개인사찰 또는 규모가 가장 큰 도량으로 스님의 신병으로 인하여 불교발전을 위해 정법대로 운영하실 스님께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층공사비 13억이나, 병환관계상 8억 5천만원으로 드림
011)885-2876 정수스님
※장난전화 사절

포교원 안내
◇ 위 치: 부산 온천3동 수덕포교원(최고위치)
◇ 건물: 30평
◇ 가액 : 전세5천, 월세가능 (시설비 일체포함)
051)503-0177
018)311-3744

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민방위교육 45세까지

생활 정부와 여당은 민방위대원 편성연령을 내년부터 50세에서 45세로 단축하고 교육기간은 올해부터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지문 △발행일 △발급기관명 등 7개 항목을 담은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16대 총선 전인 2000년 3월까지 17세 이상 인구 3천5백만명에게 발급키로 했다.

"회화나무 받아가세요"

학국경제신문과 주택은행이 8~9일 회화나무를 무료로 나눠준다. 이번 행사는 양사(社)가 공동으로 벌이는 '새천년 새희망 회화나무를 심자'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8일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까지, 9일에는 충정로 한국경제신문 사옥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나눠준다. (02)3604~785

운전면허증 우편교부제

교통 서울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운전면허 최종 합격자증 희망자들에 한해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우송해 주는 '운전면허증 우편교부제' 실시에 들어갔다. 희망자들은 자신이 최종 합격한 면허시험장에서 합격당일 우편요금(1170원)을 내고 면허증을 받을 수 있는 곳의 주소를 적어내면 된다.

김포공항 주차비 인하

김포공항 주차요금이 이달부터 최고 80%까지 인하됐다. 한국공항공단은 하루 4시간 이상 주차시키는 승객이 많아 국제선 1,2청사의 일반 주차장에 장기주차요금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형차 주차료는 24시간 이용시 4만원에서 8천원으로, 48시간 이용시 8만원에서 1만6천원으로 낮아진다.

22일 새벽 별똥별 보는 날

과학 22일 새벽은 별똥별을 보는 날이다. 이날 해뜨기 한두 시간쯤 일찍 일어나서 동쪽 하늘을 보면 한 시간에 열개 남짓한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거문고자리 유성우'로 알려진 이 별똥별들은 무척 밝고 빠른 것이 특징. 또 화성은 4월 동안 밝기가 점점 밝아져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가장 밝게 빛을 낸다.

21세기 NGO의 역할

방송 EBS-TV는 4월 '일요 초청 특강'을 마련, '21세기 NGO의 역할'이란 주제로 각 분야별 핵심 지도자를 초청해 핵심 이슈를 듣는다. △11일 경제분야와 리더, 강철규(경실련 중앙 위원회 위원장) △18일 환경분야와 리더,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25일 언론분야와 리더, 김주언(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무분별 생명복제 규제하자"

생명윤리학회 '1999년 서울선언' 발표
의협 "인간복제 목적 연구 자체 징계"

"사람이 어떤 일에만 치중한 나머지 그 밖의 다른 것을 모두 무시해 버린다면 그것은 대단한 장애라고 진리에 도달한 사람은 말한다" 〈숫타니파타〉

자기의 입장이나 집단의 입장만을 절대화하여 거기에서 사물을 보려고 하면, 자기 편리한 대로밖에 볼 수 없다. 이처럼 독단적으로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견(見)'이라고 한다. 악견(惡見) 사견(邪見) 편견 선입견 등이 이를 말한다. 그리고 불교는 이런 '견'들을 멀리하라고 가르친다.

불교적 시각에서 보면 20세기말 최대이슈가 되고 있는 생명복제는 생명의 존엄성과 윤리를 무시한 일부 학자들의 악견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인류발전은 창조하려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도전으로 이뤄져 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과 자연이 지니고 있는 본래 가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생명복제와 의료윤리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지난해 창립된 생명윤리학회(회장 박이문·포항공대 교수)가 지난달 27, 28일 서울대 호암생활관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첫 워크숍을 열었다. 그리고 30일에 '인간개체 복원을 위한 모든 연구와 시술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1999년 서울선언'을 발표한 것은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이 '정견(正見)'을 찾고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생명윤리학회는 생명복제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과학자들과 윤리학을 연구하는 국내 철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단체. 이번 워크숍에서 토론된 내용을 종합하면 인간복제에 대해서는 참석자 전원이 반대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리고 참석자들은 '생명복제를 포함한 생명공학의 윤리적 문제를 심의 감독하기 위한 '생명윤리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으로 설치하고, 또 이를 연구하는 전문기관 설치를 촉구했다. 인류를 위한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그 위험성과 윤리문제는 반드시 따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워크숍에서 도출된 결론이다.

이번 워크숍과 '1999년 서울선언'은 생명복제 문제는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될 '우리 사회'의 문제임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도 16일 '생명복제 기술과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독특한 형태의 회의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1일 '인간개체 복제를 목적으로 인간의 체세포나 생식세포 복제 연구 등을 금하는 등의 윤리지침을 발표하고 인간복제를 목적으로 연구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키로 했다.

■ '1999년 서울선언' 내용

생명복제에 관한 연구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거나 식량 증산 등 인류복지에 도움을 주는 면도 있으나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도 낳고 있다. 따라서 생명윤리학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 생명복제 연구에 관해서 검토하고 감독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아래와 같이 뜻을 모아 선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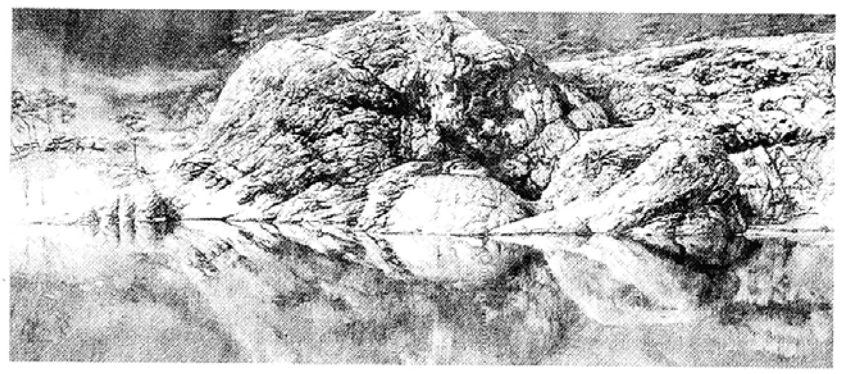
1.우리는 인간복제와 인간복제에 관한 연구를 금지할 것을 선언한다.

2.우리는 생명복제 실험과 연구에 관련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청한다.

3.우리는 생명복제에 관한 실험과 연구를 윤리적으로,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검토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정부에 이를 위한 전담 기구가 설치되기를 요청한다.

이젠 불교계도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활발한 논의를 벌여야 할 때다. 휴정스님은 "현실에만 맹종하는 것은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물인 줄 알고 찾아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무분별한 생명복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를 모두 무시해 버리는 어리석음임을 꾸짖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동강' 그림 세워보면 합장하는 모자상

동강 어라연 계곡을 그린 김재홍씨의 근작. 옆으로 세워 보면 합장하는 인물의 형상이 나타난다.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

6가족 12명 신장기증 릴레이

만성신부전증에 걸린 환자들의 가족들이 잇따라 보은의 장기기증을 해 6가족 12명이 수술을 받는 국내 최다 '사랑의 장기기증 릴레이'가 결쳐지고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장기 릴레이가 처음 시작된 것은 한 목사가 1년째 복막투석으로 생명을 이어오던 한 환자에게 장기를 기증하면서부터. 이에 감사한 환자의 남편은 다시 다른 환자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이 환자의 손아랫동서는 또 다른 환자에게, 그 환자의 부인은 다시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장기를 기증한 것이다. 그리고 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환자의 부인은 7년간 투병생활을 해온 환자에게 3월27일 신장을 이식해 주었고, 이식수술을 받은 환자의 부인도 신장을 기증, 4일 뒤인 31일 대학을 갓 졸업한 한 젊은이에게 신장을 이식함으로써 새 생명을 찾게 해주었다.

〈출요경〉에 "제 몸보다는 남을 사랑하고 제 목숨으로 남의 목숨을 견주라"는 말씀이 있다. 이들이야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임이 틀림없다. 한명우 기자

시론

쉽게 사는 세상



정동수 〈소설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가끔 육필로 원고지 한칸 한칸을 메꿔나가던 시절을 생각할 때가 있다. 그 당시는 한번 쓴 원고를 고친다는 것이 여간 수고롭지가 않았다. 더구나 응모작품일 때는 심사위원이 쉽게, 분명히 알아 볼 수 있도록 써야 하므로 글자 한 자 한자에 정성을 들이지 않을 수 없다. 단편소설 한편을 정서하는 데도 이틀을 잡아야 했다.

한편을 다 쓰고 나면 손가락에 힘을 줄 수 없을 정도로 진이 빠졌다. 그에 비하면 요즘 컴퓨터로 하는 작업은 그야말로 일도 아니다. 고치고 지우고 아래 위로 바꾸는 것이 식은 죽 먹기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작업을 하다보니 묘한 타성이 붙게됐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쉽게 고칠 수 있다는 생각에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우선 써놓고 보려는 습관이다.

습관은 때로는 병이 될 수도 있다. 아니, 좋지 못한 습관은 이미 고질의 병인 것이다. 깊은 생각없이 저질러 놓고 쉽게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이 이미 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요즘 우리 사회에는 매사 쉽게 생각하고 쉬운 것만을 쫓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경향은 곳곳에서 이미 심각한 병세로 나타나고 있다.

실력을 쌓아 대처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쉽게 점수를 따서 대학에 입학하려는 발상이 고액 족집게 과외로 가는 것이고, 한 단계 한단계 차근차근 밟아 단단하게 해야 할 공사를 쉽게 쉽게 하려다보니 부실공사를 하게되는 것이다.

문제는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 '문제를 깊이 아는 사람은 개혁을 할 수 없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환자의 병을 아는 사람이 수술을 할 수 없다면, 맥도 모르는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면 살인을 하는 것이다. 본질을 피해가지 말아야 한다. 과정을 생략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결코 쉬운 제도는 아니다. 수렴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제도이다. 그래서 민주(民主)다. 화백은 왜 만장일치여야 했던가. 흑백으로 가르자는 것, 획일화 하자는 것이 아니었다. 설득과 양해의 과정을 수렴해야 했던 것이다. 피해 가려는 것은 주인의식이 아닌 또돌이 근성이다. 수처작주(隨處作主)라 하지 않았는가. 어떻한 난제, 경계 앞에서도 탐구해서 해결하고 물러서지 않으려는 정신, 지금 우리에겐 그것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 "쉬운 것만이 좋은 것 아니다 뿌리 튼튼해야 결실도 많은 법"

수술을 할 환자가 있으면 병을 알고 수술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을 어렵게라도 찾아야한다. 정 사람이 없다면 기술을 익히고 실력을 쌓아 가게 해야한다.

새우젓 국물 맛이 어쩐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업협정을 하게 해 놓고 잘못하니까 잘못 입력된 글자 찾아 고치듯 다시 협상을 하는 꼴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너무 쉽게들 생각한다. 이러다간 정말 컴퓨터 몸체까지 모두 빼앗기고 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되지 않을수 없다.

이따금 컴퓨터 전원을 꼬고 빛바랜 원고지를 마주하고 앉을 때가 있다. 깊이 생각하여 쓰고 싶을 때, 다시 응모하는 심정이 되고 싶을때, 혼신의 힘을 기울여 정신의 모든 에너지를 불태우고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 그럴 때 나는 글을 쓰는 일에 보다 정성을 드리고 싶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내 생애 모든 시간을 그렇게만 채울 수는 없다. 속도와 능률을 필요로 할 때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원고를 주지 않을수 있는 정신도 필요한 것이다. 문제는 그것을 무시하고 무용한 것이라고 버리려는 데에 있다.

병은 늘 한 곳으로 치우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임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를 포함한 오늘의 세상 고통을 감안하고 이겨내서 극복하고 성취하는 재미가 더 큰 것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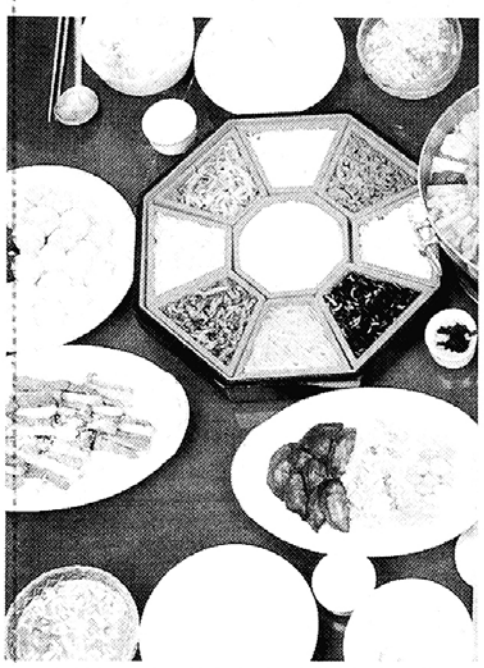
초등·중졸·고졸(4·5·8월 실시)
검정고시
▶좋은 교재·질높은 교육
▶체계적인 학습관리 시스템
검정고시에 대한 가슴 흐뭇한 숨은 이야기는 많습니다. 누구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분/비밀보장)
변경사항
고입 · 사회(국사 포함)
대입 · 공통사회(정치, 경제, 한국지리 통합) · 공통과학(과학 I, 과학 II 통합)
(등록시 제공되는 유영검정고시 강사진이 집필하고 본원이 제작한 최신교재)
한글반 읽고, 쓰고, 외우고
중검반 속성, 초등학교 과정
고검반 속성 중 학 교 과정
대검반 속성, 고등학교 과정
시 험 안 내
· 주관 각시도 교육위원회
· 40점 이상 평균 60점이상 합격 (과목합격 제도)
· 100%객관식(4개중 1개 고르기)
· 정규학교 졸업과 동등인정
상급학교 진학가능
저렴한 가격으로 질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교육기관
한국직업교육원
전국무료전화 ☎ 080)010-4100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진달래
누구에게 보이려
꽃방울 피웠나
곱디고운 모습으로
함박 웃음 머금고
분홍빛 드리운
솜털 구름위로
그대 그리워 바라보며
분홍빛 가슴으로
얼굴 묻는다.
원장 이 영 숙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 결혼 연구원
원장 이 영 숙 (법명:無生子)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55호 팀골공원 맞은편 시사영어사 뒷편 효원빌딩 502호
☎ 대표전화 : (02)2275-5592~3
핸 드 폰 : 018-277-5592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반 야 심 경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難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운장법사의 초능력적인 「신비의 禪筆」 최초로 공개.
⊙신기·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 그림, 難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특 전
전수중 일정한 기간에 불교문화원 회원과 한국불교 선묵가협회 초대 작가로 추천함.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 (주)(02)2242-0331,2242-0255
(아)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심야전력기기
IMF·고유가시대 기름값 걱정해소방법
■ 심야전력기기란 :
「한국전력공사」에서 야간시간에 남아도는 전기를 일반전기의 약 1/4~1/1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전기로 일반 기름 보일러보다 약 1/3~1/4 수준의 난방비로 따뜻하고 쾌적한 24시간 난방을 할 수 있는 전기 보일러, 온돌, 온수기, 온풍기등을 말합니다.
■ 심야전력기기는 목조건물이 많은 사찰의 특성상, 가장 경제적인 난방비로 연료주입, 저장의 불편함이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청정난방기기입니다.
한국전력공사협력업체
겨울철난방비를 70% 이상 절약합니다.
▶심야전기 보일러 기존 기름보일러와 교체공사만으로 값싼 심야전기 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돌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열손실이 없고, 동파의 염려가 없습니다.
▶심야전기 온수기 미리 저장된 온수를 사용함으로 추운 날씨에도 일시에 많은 양의 온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야전기 온풍기 화재의 위험이 없고 깨끗한 실내 공기를 유지함으로 마루법당 난방에 적합합니다.
전국사찰 심야전력기기·전력공사 전문업체
금강산업·금강기전
"심야전기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 문의전화 ■
☎ 02)883-7400(代)
· 영업부 : 02)877-6090
· FAX : 02)876-3378

"담백·향긋…마음까지 평안"



◇고기와 오신채, 인공조미료를 쓰지않는 사찰요리는 담백함으로 식후에도 향긋한 풍미가 남는 것이 특징이다.

오부치총리가 맛본 해인사 별미

탕평채·구절판등 5종
버섯·야채가 주요 재료

전통사찰음식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 21일 일본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총리가 해인사에서 26가지의 사찰음식을 대접받고 깔끔하고 담백한 사찰음식에 감탄하면서 전통사찰음식에 세인들의 관심이 쏠린 것.

사찰요리는 고기와 오신채(파·마늘·생강·부추·홍거), 인공조미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아 담백할뿐 아니라 식후에도 구수하고 향긋한 풍미가 오랫동안 입언저리를 감도는 것이 특징. 또 자극적이지 않고 깨끗해 먹는이의 마음까지도 평안하게 해준다. 오부치 총리가 해인사 정수당(正修堂·식당)에서 맛본 탕수이와 구절판, 탕평채, 인삼·대추튀김 등을 준비한 최옥숙 보살(52·대구시 수성구)은 "버섯과 야채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비결"이라며 "현대인의 입맛에 맞도록 치즈·피망·브로콜리 등을 이용해 봤다"고 밝힌다.

사찰요리는 일반가정에서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 봄을 맞아 가족의 건강식으로 준비해 본다면 식탁에 봄을 불러올 수 있을 듯하다.

△탕평채

● 재료=청포묵, 미나리, 숙주나물, 표고버섯 등

● 조리법=청포묵과 미나리를 길이 5㎝ 두께 7㎜로 썰어서 끓는물에 살짝 데친 후 소금과 참기름으로 간을 맞춘다. 숙주나물 역시 다듬은 후 끓는물에 살짝 데쳐 소금과 참기름으로 간을 맞춘다. 표고버섯은 물에 불린 후 채썰어서 소금과 참기름으로 간을 맞춘다. 위의 재료를 식초와 소금, 설탕에 버무려 고명을 얹어 내놓으면 된다.

△탕수이

● 재료=표고버섯, 밤, 고구마, 청피망, 홍피망, 프로콜리, 크리플라워, 당근 오이 등

● 조리법=표고버섯을 물에 불린 다음 먹기좋게 자른 후 양념을 해둔다. 고구마와 밤, 야채를 먹기좋은 크기로 잘라둔다. 녹말가루를 물에 푼 다음 식초, 설탕, 소금, 진간장, 파인애플즙을 넣은 후 끓여 소스를 만든다(정종을 약간 넣으면 더욱 좋음). 소스와 야채를 섞어서 약간 끓인다. 표고버섯과 고구마, 밤에 녹말가루를 발라 튀긴후 소스를 얹어 내놓으면 된다.

△구절판

● 재료=표고버섯, 팽이버섯, 석이버섯, 오이, 당근, 피망, 밤, 무 등

● 조리법=표고와 팽이, 석이버섯을 데치거나 불린 후 소금과 참기름으로 간을 해둔다. 무를 얇게 자른 후 소금, 식초, 설탕을 섞은 물에 살짝 절인다. 무 위에 재료를 얹은 후 돌돌 말아서 내놓는다. 겨자에 찍어 먹는다. 밀가루 전병에 싸서 먹어도 된다.

△인삼·대추튀김

● 재료=인삼, 대추, 치즈, 당근, 김

● 조리법=김을 ¼ 크기로 잘라서 그 위에 치즈를 깐다. 다시 인삼과 당근을 적당한 크기고 잘라서 얹은 후 돌돌 만다. 찹쌀가루 등에 묻혀서 튀겨낸다. 씨를 뺀 대추 속에 인삼과 당근을 채썰어 넣은 후 찹쌀가루 등에 묻혀 튀겨낸다.

△피망전

● 재료=두부, 당근, 표고버섯, 청피망, 홍피망

● 조리법=두부, 당근, 표고버섯을 다져서 섞은 후 소금과 참기름으로 간을 한다. 피망을 0.7㎝ 굵기로 가로로 자른다음 위의 재료를 넣은 후 마른가루를 묻혀서 굽는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명사들의 건강비결 ⑩



심 우 성 〈공주민속극박물관장〉

새벽 2시간 경전·교양서 읽어 오후엔 가벼운 일로 활력 찾아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일일부작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

공주민속극박물관 심우성 관장(66)은 백장 회해선사의 이 말을 건강비결의 으뜸으로 삼고 있다. 또 경전읽기를 통해 마음을 맑게 하는 것도 비결중의 하나다. 외견상으로는 평범하다. 하지만 거기에는 심관장만의 비법(?)이 숨어있다.

심관장은 오전에는 책상에 앉아 박물관 업무를 처리하지만 오후가 되면 관장이라는 직함을 벗어던지고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박물관 잔디의 풀을 뽑고 나무를 가꾸는 것은 습관처럼 돼버린 일상이다. 심관장은 그렇게 '노동'을 즐긴다. 심관장의 '하루 일'에는 정신노동 외에 육체노동이 반드시 포함된다. 정신노동은 사람을 쉽게 지치게 하고 권태롭게 만들지만, 그런 가운데에서의 육체노동은 삶의 활력이 된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면 심신이 자유롭고 오히려 욕심이 없어지게 되며, 그러면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 평소 지론이다.

심관장은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를 연다. 이때부터 2시간동안 경전이나 교양서를 읽고, 원고도 쓴다. 정신노동은 정신이 가장 맑을 때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습관대로 생활한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나름대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여기기에 삼매에 빠져들려고 노력한다. 특히 경전은 마음을 넓히고 세상보는 지혜를 배우게 함으로써 삶을 여유롭고 편안하게 해주기에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읽는다.

하지만 오후의 육체노동과 오전의 정신노동을 단순히 실행하는 것은 아니다. 심관장은 그것을 철저히 즐긴다. 그러면서 삼매에 빠져든다. 삼매에 빠져들면 일을 하면서도 일을 잊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니 스트레스니 과로니 하는 현대인을 괴롭히는 주범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규칙적인 생활습관도 심관장에겐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한 방법이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청소년 문화상담지 '속삭임' 폐간위기

11일 '후원' 하루찻집



"〈속삭임〉을 살리자!"

창간 1년만에 중단 위기를 맞은 '10대 청소년을 위한 상담지' 〈선재들의속삭임〉을 후원하기 위한 하루찻집이 11일 오전10시~오후 7시까지 조계사 산중다원에서 마련된다.

선재연구모임(회장 덕진스님)이 지난해 1월 창간한 〈선재들의속삭임〉은 청소년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과 심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지침서다.

창간 당시 16면 칼라로 2만여부를 제작, 배포했지만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후원금으로 제작에서 발송까지 드는 비용 4백만원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 결국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선재들의속삭임〉은 현재 제작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정은 기자

"어른들 비뚤어진 성문화 바로잡자"

인천 청교련 '청소년 원조교제 근절 토론회'

스포츠·정보지 음란전화 광고게재 처벌 주장도

인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청소년을 위한 어른들의 모임은 3월26일 인천대에서 '청소년 원조교제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1 발표자로 나선 이미경 사무국장(청교련 인천지부)은 "IMF 이후 심리적 공황상태에 빠진 30~40대 남성들의 의식부재가 10대 원조교재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남성의 성문화 부재현상을 바로잡는 한편 가정과 학교는 가족간의 역할훈련과 현행 성교육의 맹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씨(前 청소년사랑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는 "기존 청소년법을 대폭 손질해 업소와 매개역할을 하는 스포츠신문과 지역생활정보지가 매매춘으로 단속될 경우 '매춘알선혐의'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윤수씨(성문화대책위 아버지감시단)는 "성을 놀이형태로 도구화하는 것을 막아야하며, 남성의 성문화가 건전해질 때 청소년들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인천지역 생활정보지 '인천광장' 남상영 사장이 참석해 "700과 080 서비스가 허위, 불건전 정보광고를 실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논의할 것"을 약속했다.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여성불자지도자 연수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여성불자 지도자 양성을 위한 연수교육'을 21~22일 청주시 대한불교수도원에서 갖는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교계 여성불교 단체들의 조직적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교육으로 △여성단체의 사상적 기원과 한국여성정책(이영애·단국대/안승신·방송대) △불교사회운동과 여성(연기영·동국대/최정희·현대불교) △여성단체 활동방향 대토론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제4차 대의원 정기총회와 함께 공림사, 법주사, 장곡사 등 충북지역 사찰순례도 함께 진행된다. (02)738-5586

해동중 축구부 재창단

종립 해동중학교(교장 오석부)는 23년만에 축구부를 재창단하며 축구를 통한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3월 27일 재창단식을 가진 해동중학교 축구부(감독 김영운)는 1954년 창단이후 22년동안 활동하면서 68~70년 전국 중·고 축구대회에서 3년연속 우승을 차지해 명성을 대내외에 떨쳤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교법사단 창립 54돌 행사

전국교법사단(단장 고우익)은 10일 오후 3시 동국대학교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창설 54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제1부 기념법회에서는 조계종 포교원장 정련스님의 축하법문과 함께 손승현(광동종고) 영석(보문고) 이동배(정광고) 신임교법사 품수식을 갖고, 제2부 기념세미나에서는 '경전상에 나타난 청소년 교화의 방법론'을 주제로 이학주 법사(명성여고)가 발표한다.

또 종립학교 교육자료 발표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0351)873-9113

단 신

광동여고 급식 실시



광동여자고등학교(교장 윤종희)가 의정부·양주지역 고등학교로는 처음으로 학교 급식을 실시, 3월29일 급식소를 개원했다. 학생·교직원 등 1천50여명의 급식을 실시하게 될 급식소는 90평 규모로, 29일 오전 11시30분 개원식을 가졌다.

'자기표현 훈련' 강좌

목동청소년회관(관장 명우스님)은 '자기표현 훈련' 참가자를 모집한다. '자기표현 훈련'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소집단 내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으로, 대인관계와 자신의 감정표현에 자신감을 갖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며 참가비는 3만6천원.

(02)646-6815

2기 명예기자를 찾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우리 생활과 밀착된 살아있는 불교정보를 제공하고 신심을 북돋우기 위해 명예기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왕성한 활동력을 보여준 1기 명예기자에 이어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생활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취재하여 정보를 제공해 주실 2기 명예기자를 찾습니다.

◇자 격: 주부, 직장 및 불교단체 종사자(지역 무관)
◇인 원: ○○명
◇활동내용: 취재 및 제보
◇대 우: 채택된 기사 원고료 지급
◇접수마감: 4월 17일 오후 5시까지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 수 처: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02)722-4162

건통황토방 특허 출원중

"흙은 만물의 모체다"

황토에는 병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데....
순수 황토만으로 시공하며 화학재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음.



그 옛날 시골 초가삼간을 기억하십니까?
흙 냄새 몸에 젖는 황토방에서의 생활을,

자연과 인간 + 흙과 인간 = 건강한 내일

※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황토방으로 개조하며, 도배나 장판을 깔지 않음.

흙 벽돌 생산판매 및 흙 벽돌 집 건축 함

지정황토산업
TEL : 032)427-7898, 7899
FAX : 032)427-5634
PCS : 016)360-2236
智井 송백호 합장

국제합동 Avatar 아봐타-코스

KOREA INTENSIVE AVATAR COURSE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자성이 본래 모든 만물을 낳고 자성이 본래 오고감이 없음을 당신은 아봐타 코스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1999년 5월 1일~5월 9일까지 올림픽공원 올림픽 파크호텔에서 대규모 합동 아봐타코스를 개최합니다.

국제트레이너 세분을 초청하여 열리는 이 코스는 최고의 영적깨달음의 축제가 될 것이며 참가자 전원이 함께 숙박을 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는 아봐타 행법을 9일간 계속하게 됩니다. 참가비는 200만원이며(숙박포함) 신청자는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적인
아봐타코스에서 깨달음의 진수를 체험하십시오.

☞전화주시는 분에게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신청마감은 4월 20일까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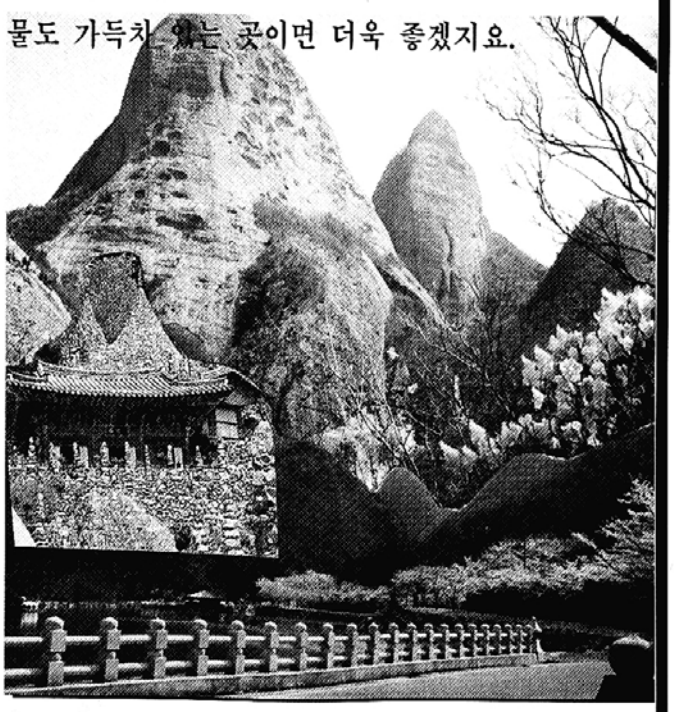
慧元 아봐타 센터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30-3 은혜빌딩 2층
·TeL : 02)579-9379, 02)575-5576 FAX : 02)572-5514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관광과 방생을 한 곳에서·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 (0655)33-2900, 0303
(0655)32-0652, 0072

■약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몰·부다피아

http://mall.buddhapia.co.kr

주문전화

02-732-1522

대표전화 : 02-737-8881

인터넷 불교 백화점 mall. buddhapia는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몰. 부다피아에서 만나십시오.

다기함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126,000
크기 : 50×39×15cm

찻 상1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54,000
크기 : 52×38×8cm

찻 상2
재질 : 소나무 / 가 격 : ₩ 54,000
크기 : 52×38×8cm

수암옥 단주
가 격 ₩ 45,000

수암옥 장미, 옥팔찌, 반지 세트
가 격 : ₩ 49,000

천연의 건강보석 수암옥 염주 세트
가 격 : ₩ 98,000

생광석 108염주
가격 : ₩ 35,000

생광석 단주
가격 ₩ 10,000

반야심경 종 차걸이
가격
낱개 ₩ 9,000
색상 :금색, 검정

현상공덕 향
관세음보살 향 석가모니 향 지장보살 향
가격 ₩ 9,500 (1개당)

서옹 큰스님 불(佛)자 액자
재질 동
특징 수공예 작품
규격 39㎝×43㎝
가격
₩ 50,000

츰부다라니 불
재질 동
특징 수공예 작품
규격 39㎝×43㎝
가격
₩ 50,000

우리 기술로 만든 한방 미용 비누
가격 : ₩ 18,000 (1세트 : 3개)

거산 죽염
원산지 국산 가격 ₩ 30,000

쑥 액기스
가격 : ₩ 50,000 (100g×60개입)

참선 명상 방석
· 실용신안 1998-025009
· 의장등록 14387
·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 보호
휴대가 간편함
가격 : ₩ 27,000
규격 39㎝×43㎝

경 · 상
가격 : ₩ 85,000 / 재질 ASH(느릅원목)
규격 72㎝(가로)×34㎝(세로)×32㎝(높이)

반야심경 자개경판
가격 : ₩ 600,000

기도 청자 세트
₩ 25,000
· 청자향로(8㎝×5㎝) 1개 · 청자촛대(6㎝×4㎝) 2개
· 앙초, 향 각 한점, 촛대 바람막이2개

건강 옥 염주
종 류 청옥 · 백옥염주(小) ₩ 30,000
청옥 · 백옥염주(大) ₩ 40,000

수월관음좌상
가격
₩ 120,000

사군자
가격 ₩ 120,000
최고급 양장
타블로이드 판 / 253쪽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가격 (코팅형, 골동품칭)₩ 350,000
(개금)₩ 580,000

경전카드
가격 : ₩ 15,000 순금 99.9%

무비스님 특강 녹음테잎
■ 금강경 강의 : 45,000원
■ 지장경 강의 : 45,000원
■ 진심직설 강의 : 45,000원

묘법연화경(전7권)
가격 : ₩ 140,000 (복장용)

차 시
재질 : 참나무,고목,등 / 가격 : ₩ 15,000(1개)

화엄큰스님의 달마도
가 격
₩ 20,000
순금 99.9%

기도포
가격 ₩ 1,600 / 기장 84㎝ 폭 39㎝

다포
기장 50㎝ 폭 39㎝
재질 면
가격 ₩ 800

고산다기
가 격 : ₩ 120,000

대나무 잔
크기 9(세로) 5~7(지름)㎝ 가격 : 낱개 ₩ 8,000

리틀 향초
가격(10개입) : ₩ 5,000

연꽃 향초
가격 : ₩ 2,500

단주 열쇠고리
종 류 검정, 밤색, 투명 /가격 : 낱개 ₩ 3,000

반야심경 향로
가격 : ₩ 25,000
크기 : 4(높이)×7(지름)cm

관세음보살보문품 족자
색상 진녹, 검정
크기 55㎝(기로) 140㎝(세로)
가격
₩ 30,000
(족자걸이 포함)

육바라밀 시계
가격
₩ 15,000

헨드폰 걸이
종류
거북이 ₩ 2,000
만 자 ₩ 4,000
무 상 ₩ 4,000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가격 ₩ 70,000 (가방 포함)

청화대선사 법회 비디오
가격 : ₩ 15,000

부처님 일대기
가격 : ₩ 10,000
어린이용
만화 비디오 테잎

강화사자발쑥
· 1달분 1통(1,500정) ₩ 55,000
· 2달분 2통(3,000정) ₩ 80,000

작설차 (우전 · 세작)
우전 ₩ 80,000 / 세작 ₩ 45,000

작설차 (중작 · 대작)
중작 ₩ 60,000 / 대작 ₩ 40,000
(2통 한세트)

한국불교 총람
4×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가격 ₩ 120,000

한국불교 총람 CD롬
가격 ₩ 60,000

참 선(명상의 말씀)
가격 ₩ 9,500 (CD)

일면스님 경
가격 ₩ 9,500 (CD)

유해 전자파 제거 장치
가격 : ₩ 9,000(1세트)

珍珠佛像 및 動物像

상품설명
1) 진주 불상 및 동물상은 순수 진주로 장식한 국내 유일의 작품입니다.
2) 작품에 사용한 진주는 민물 담수 조개에서 채취한 것이며 다섯가지 색상 표현이 가능합니다.
3) 아름다운 진주를 다발로 묶어 像에 장식하는 고정을 거친후 국내 유일의 작품이 만들어 집니다.
※진주 감정평가서 첨부
4) 진주 채취기간 : 4~8년

관음상(中) ₩ 1,146,000 /15㎝×11㎝×39㎝
관음상(小) ₩ 836,000 /13㎝×7㎝×30㎝
소(大) ₩ 594,000 / 38㎝×12㎝×20㎝
소(中) ₩ 458,000 / 30㎝×10㎝×15㎝
돼지 ₩ 606,000 / 35㎝×12㎝×21㎝
호랑이(大) ₩ 1,215,000 / 70㎝×20㎝×45㎝
호랑이(中) ₩ 472,000 / 45㎝×23㎝×15㎝
사슴(大) ₩ 634,000 / 50㎝×20㎝×22㎝
사슴(中) ₩ 476,000 / 31㎝×20㎝×22㎝
사슴(小) ₩ 282,000 / 18㎝×7㎝×22㎝
말(大) ₩ 620,000 / 35㎝×11㎝×36㎝
말(中) ₩ 440,000 / 25㎝×9㎝×26㎝
토끼(大) ₩ 486,000 / 33㎝×15㎝×16㎝
토끼(中) ₩ 418,000 / 11㎝×14㎝×25㎝

지상갤러리

작가 : 최재수(崔在洙)
한국 공모전특선 3회, 입선 3회
일본 국제공모미전 입선 1회
/일본 미전 특별상/국제교류 H.M.A전(백상갤러리)
KOREA H.M.A 회원 /일본 국제공모미전 회원
/국제공모미전 수상작가초대전(롯데미술관)

1 3 2 4 5

초대가 ₩ 120,000 / 고급액자 포함 ₩ 170,000

법회안내



무진장스님(동산법회 법주) 13일 화요일 오전 11시 서울 역삼동 보리사 화요특별법회. (02)562-9939



법장스님(무진법장사 주지) 11일 오전 11시 개원 8주년 기념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가족합동법회. 매일 새벽 4시 새벽기도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어린이법회. (02)932-2333



법공스님(광명사 주지) 매월 셋째주 토요일 밤 9시 3천배 참회기도법회. 매월 음력 19일 오전 10시 30분 영가천도대법회. (0344)978-9782



강건기 교수(전북대 철학과) 7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법당 4월 다보법회. (02)703-0108



윤구병씨(농군) 10일 오후 3시 우리는 선우 토요법회. (02)2278-8672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4월7일 (수)

■**김용선박사 '회교' 강의**=대한불교진흥원 제96회 다보문화강좌가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열린다. 회교를 주제로 한국외대 김용선박사가 강연한다. (02)703-0108

4월8일 (목)

■**어린이 법회교사를 위한 목요학당**=한국불교어린이포교연합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조계종 포교원 지하강당에서 어린이 법회교사를 위한 '목요학당'을 연다. (02)725-2201

4월9일 (금)

■**'불교계 언론 현주소'**=범불교연대회의 주최 오후 5시 종단협회의실에서 '불교계 언론의 현주소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불교언론 조명을 위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02)737-6183

■**근현대 불교사 강좌**=5월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조계사문화교육관에서 한국불교근대사연구모임 주관으로 근현대 불교사 강좌가 진행된다. (02)736-0386

■**금강정사 마곡사·갑사 성지순례**=금강정사는 오전 7시 마곡사와 갑사로 4월 성지순례를 떠난다. (02)893-2700

4월10일 (토)

■**길상사 주말 선수련회**=길상사는 11일까지 1박2일간 직장인과 일반인을 위한 주말 선수련회를 실시한다. (02)3672-5945

■**석굴암 일출과 경주 벚꽃길 기행**=터사랑은 무박 2일간 석굴암 일출을 감상하고, 석굴사원인 사찰건축을 조명하는 기행을 떠난다. 경주 벚꽃길을 따라 신라의 낭산 자락도 감상한다. 밤 9시에 출발한다. (02)725-1284



◇천년고도 신라의 향기가 묻어나는 경주 석굴암을 찾아가자.

■**포교사단 전문화 교육**=오후 3시 조계종 포교원 4층 강의실에서 어린이, 청소년, 대학 청년포교와 관련 포교사단 전문화교육을 실시한다. (02)737-7588

■**왕산 비로자나불 공양법회**=상주법우회(회장 김종하)는 상주 왕산에서 왕산비로자나불공양법회를 봉행한다. 011-512-4972 이종철

■**향일암 철야·여천 흥국사 참배**=용진신행회는 11일까지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한 여수 향일암에서 철야법회를 갖고, 여천 흥국사를 참배한다. 오전 7시에 출발한다. (02)2279-1191

■**전국교법사단 창립 54주년 기념법회**=오후 3시 동국대학교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전국교법사단 창립 54주년 기념법회가 열린다. (0351)873-9113

4월11일 (일)

■**통도사 성보박물관 개관법회**=오후 2시 통도사 성보박물관 개관법회가 열린다. (0523)384-0020

■**칠장사 사찰순례**=한국불교연구원 서울구도회와 전국교사불자회는 오전 8시30분 경기도 안성 칠장사로 사찰순례를 떠난다. (02)3411-6167

■**탑골공원 무료투약 자원봉사**=서울불교청년회는 불자약사회 보리회와 공동으로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탑골공원에서 실직자 및 불우노인 무료투약자원봉사를 실시한다. (02)730-9108

■**청소년불교소식지 〈속삭임〉후원 하루찻집**=선재마을은 청소년불교소식지 〈속삭임〉 후원을 위한 하루찻집을 오전 10시~오후 7시 조계사 산중다원에서 연다. (02)433-1506

4월12일 (월)

■**군승단 군승후보생 집체교육**=18일까지 군승단 군승후보생 집체교육이 호국 원광사에서 진행된다. (02)749-8646

4월13일 (화)

■**생명나눔실천회 5주년 기념법회**=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대회실에서 생명나눔실천회 5주년 기념법회가 거행된다. (02)734-8050

■**선운사 도솔암 답사기행**=국토문화연구회는 고창 선운사 도솔암으로 답사기행을 떠난다. 선운사 동백숲과 도솔암, 신재효 생가 등을 둘러본다. (02)2261-1313

종단소식

조계종

백양사 실직자 수행결사

장성 백양사(주지 다정)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6일부터 30일까지 4박5일간 선불당에서 제6기 실직자를 위한 참사람 수행결사를 개최한다. 또 7기 수행결사는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0685)92-7502

관음사 4·3 망혼 천도

제주 관음사(주지 중원)는 3일 대웅전에서 4·3망혼영가천도재를 개최했다. 4·3발생 51주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천도재에는 희생자 가족등이 참가했다. 관음사는 이어 5일까지 천도기도를 봉행했다.

태고종

종무원장 간부 연석회의

전국 시도 교구 종무원장 및 종단 간부 연석회의가 7일 오후 1시 서울 종무처 설법전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20일 봉행되는 수륙영산대법회 봉행에 관한 사항, 제77회 임시중앙종회 안건, 종단 재무구조 개선방안 등 각종 현안이 심도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경남종무원장 광진스님

경남교구종무원 제9대 종무원장 광진스님(마산 석봉암 주지) 취임식이 3월31일 마산 원각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경남교구종무원 사회국장에는 호정스님(사천 세심사 주지) 사정국장에는 법성스님(함안 법성사 주지), 연수국장에 종안스님(마산 무학사 주지) 교무국장에 지운스님(마산 대운사 주지)이 각각 임명됐다.

천태종

김천 금강사 낙성식

김천 금강사(주지 지도) 낙성식이 3월 28일 오전 11시 종정 도용스님과 총무원장 운덕스님 등 종단 간부들과 신도 등 사부대중 6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지난 96년 기공 이래 3년만에 완공된 금강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총 건평 585평 규모이다. 낙성식에 앞서 오전 10시부터는 3층 대불보전에서 관음존상 봉안식이 봉행됐다.



진각종

20~21일 춘기 스승 강공

진기 53년 춘기 스승강공이 20~21일 성북구 총인원에서 열린다. 종단 산하 스승들과 종립학교 정교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춘기 스승강공의 주제는 '교법수행과 실천'이다.

총화종

8월 수진사에 강원 개설

중앙종회는 3월30일 남양주 수진사에서 정기종회를 열고 8월경 수진사에 강원을 개설키로 했다. 또 행자교육을 강화하고 7월 21일~23일 수진사에서 청소년 및 일반신도, 승려 합동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종회의원 25명 중 18명이 참석했다.

부산종무원장 효담스님

부산종무원장 효담스님 취임식 및 국난극복대법회가 3월27일 부산 대신공원에서 2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대한법화종

원융학림 창립법회



대한법화종(총무원장서리 법찬)은 3월 16일 성북구 총무원 회의실에서 법화종 부설 원융학림(총재 혜관)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원융학림은 법화경 일승도 사상 고취를 목적으로 다양한 연구와 신행활동을 펴 나가게 된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게시판

♣ 알림

▲**도서출판 운주사**는 3일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은빌딩으로 이사했다. (02)3672-7181

▲**산모도우미 파견사업**=신도림복지관은 산간의 어려움을 겪는 산모를 도울 도우미 파견사업을 전개한다. (02)631-9792

♣ 강좌

▲**지능·적성·성격검사**=목동청소년회관은 만 5세~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격검사 등을 실시한다. 검사료는 각 1만원. (02)646-8341

▲**영어선불교강좌**=한국불교선학연구원 무불선원은 19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7시~9시 화계사 현각스님의 지도로 영어선불교강좌를 실시한다. 〈선의 나침반(The Compass of Zen)〉 교재만 구입하면 되며, 강의료는 무료다. (02)541-0002

▲**금석학·선전강독·범어원전**=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부설 불교원전전문학림 삼학원에서는 불교원전 강좌를 마련했다. 원장 지관스님이 직접 지도하는 한국불교금석학 강좌와 선전강독 강좌를 비롯 범어원전 강좌가 진행된다. (02)765-9602

▲**관음사 꽃꽂이 교실**=관음사 깨우침의 집에서는 12일부터 3개월간 꽃꽂이 교실 기초반 교실을 연다. 교육비는 월 2만 5천원. 011-805-7686

▲**금화사불교대학**=금화사불교대학이 14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불교기초교리, 경전강좌를 시작한다. 야간반은 15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연다. (051)582-3042

▲**선기공·팔리어불전이해·삼국유사**=원효학당은 선기공, 팔리어불전이해, 서경, 삼국유사, 불교란무엇인가, 대승기신론연구 등의 통신강좌를 진행한다. (02)3411-6167

▲**기초교리강좌**=무진법장사는 매주 화, 목요일 저녁 7시에 직장인과 성인남녀, 청년불자를 위한 저녁반 기초교리강좌를 22일부터 실시한다. (02)932-2333

▲**컴퓨터 인터넷반**=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 수, 금요일 오전 10시 컴퓨터 인터넷반 강좌를 실시한다. 강의료는 월 2만8천원. (02)817-8052

▲**수화교실**=신도림복지관은 매주 화·목요일 저녁 7시 수화교실을 연다. (02)631-9792

♣ 모집

▲**감수성 훈련 참가자**=목동청소년수련관은 감수성훈련 참가자를 모집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1시에 실시한다. (02)646-8341

▲**독거노인 후원자**=연꽃마을 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송파구내 무의탁독거노인과 후원자를 연결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해 줄 후원자를 모집한다. (02)203-3677

▲**자비헌혈봉사단**=생명나눔실천회 광주지역본부는 16일까지 자비헌혈봉사단을 모집한다. 혈소판 공여 및 생명나눔실천운동을 하게된다. (062)234-6601

▲**목욕서비스 자원봉사자**=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화, 금요일 목욕서비스에 동참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817-8052

▲**수(水)치료 이용자**=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뇌성마비, 발달장애 아동 등을 대상으로 물의 부력을 이용해 운동기능을 향상 시키고, 재활에 도움을 주기위한 수치료 이용자를 모집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과 목요일 2시 20분에 실시한다. (02)989-4215

▲**나눔의 집 후원자**=정신대 할머니들의 안식처 나눔의 집에서는 정기 후원자를 모집한다.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 (0347)768-0064

♣ 화촉

▲**자민련불자회 박철언회장의 장녀 지영양**이 12일 오후 1시 63빌딩 2층 국제회의장에서 이상원씨와 화촉을 밝힌다.

현대불교 '98년도 합본 제4집 발간 안내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21세기 희망찬 내일 불교의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현대불교신문」에서 '98년도 합본 제4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어느 해 보다 더욱 더 다사다난했던 '98년도의 불교계 모든 소식들을 만날 수 있으며 또한 쉽게 친견하기 어려운 큰스님들의 법문은 물론 불자들에게 유익한 생활의 정보와 지혜의 내용을 함께 모았습니다.

포교와 수행의 지침이 될 「현대불교신문」을 보관하시고자 하시는 여러 스님들과 불자님들을 의해 '98년 1월 1일자(157호)부터 12월 30일자(204호)까지 총 48호 1,172페이지로 불교를 쉽게 배우고자 하시는 불자님들께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3집('97년판)과 제4집('98년판)을 한정 판매하오니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과 주위에 법보시 하실 분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입금 확인 후 3일 이내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자님 계신 곳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입안내

○ 합본 제4집 : 1998년 1월 1일자(157호)~1998년 12월 30일자(204호) 총48호
▶ 1,172페이지, 신문판형『크기: 40㎝×55㎝』
○ 구입 가격 : 1권 6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제3.4집 : 11만원(발송비 5천원 별도)
▶ '99.1월에 신청하시는 현대불교신문 구독자에게는 발송비를 면제해 드립니다.
○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01-227471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우 체 국 010041-025524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문의 및 신청 : 경영관리국 기획관리부(담당자 이신정)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 신속한 발송을 위하여 입금 후 꼭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가득 차게 함입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서로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 재
· 팔 괘 : 고급나무 조각 목판 팔각형
· 만다라 : 특수금속판에 직접 색채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 규 격 : 45Cm×45Cm

◎ 보급가 : ₩ 300,000 ⇒₩ 18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8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34-9490, 3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약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점이나 가게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수맥파의 영향이 완전히 차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맥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맥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증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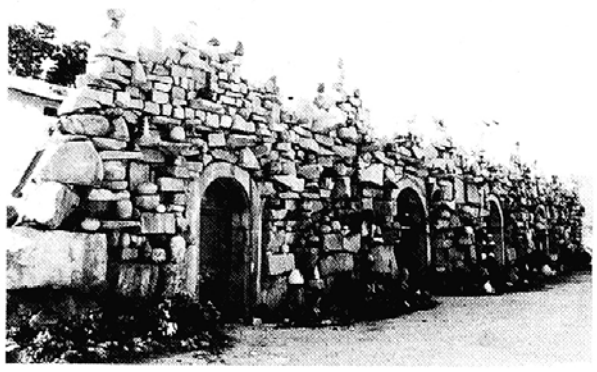
· 불자들간의 선물 · 생일선물 · 개업선물 · 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필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

무애원 전통문화연수원 건립

"불교와 예술혼 느껴보세요"

참선·도예 실수…청소년 예절·놀이지도



◇전통문화연수원을 건립중인 강화 무애원 전경.

매달 청소년 2천여명이 불교 전래놀이 예절 언어순화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배우고 체험 할 수 있는 곳. 또 정기적으로 1박 2일간 '이등병의 날'을 정해 군불자들에게 불교문화의 포근한 맛을 느끼게 하는 곳.

강화 무애원(주지 설봉)은 수련원, 교육관, 도예원, 전통 도예가마 등 갖춘 전통문화연수원을 건립하고 있다. 5천평의 부지에 현재 1백50평규모의 강당과 숙소 등을 갖춘 교육관이 이미 완공됐으며, 50평의 전통가마와 2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불사도 막 끝마친 상태다.

특히 1백50평의 수련원과 1백평의 도예원건물은 설봉스님이 주변에 버려진 석재를 직접 쌓아 예술적인 향기가 물씬 풍기고 있다. 건물 표면에는 도자기를 전시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둘러보는 주변명소로 부각됐다.

무애원은 법당및 운동장을 마련하고 1차 공사가 마무리될 9월부터 2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90평의 요사채와 1천명 수용규모의 대강당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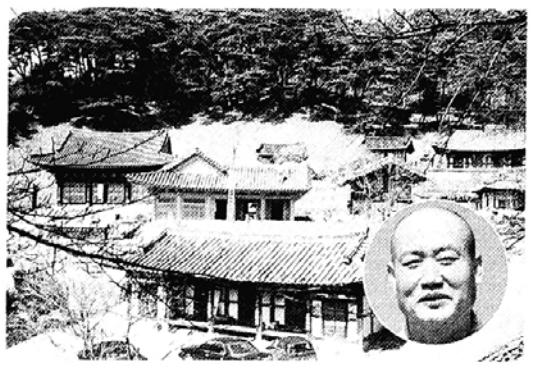
설봉스님은 사찰이나 불자단체, 불자가족들이 나들이를 겸해 무애원을 찾아 낮에는 전통도예를 배우고 밤에는 참선정진 하는 선농(禪農)의 도량이 되기를 기원하며 봄·가을은 학생들을 위해 학생야외학습, 여름·겨울은 수련회를 주로 실시한다. 방학동안에는 교사들을 상대로 도예실습과 참선교육도 한다.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의 초등학교와 연결, 매일 참선 전래놀이 예절 언어순화등 전통문화프로그램을 실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군대에 입영한 5백명의 이등병을 수련시킨데 이어 올해에도 7백명의 군인들을 초청, 무료로 수련대회를 개최한다. 또 타종교인과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불교를 이해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도예는 흙을 빚는 것이 아니라 삶을 빚는다'는 요지의 도예강의를 불교교리와 접목하여 포교하는 설봉스님은 "도예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전통의 우리문화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새싹불자포교와 전통문화선양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의 (032) 932-5087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우리절 불사 문경 김룡사



◇일제시대 31본산의 하나였던 김룡사가 출·재가 수행도량의 복원을 위해 중창불사를 하고 있다. 원내는 자광스님.

국내 최대 온돌방 설선당 복원

성철·서암·서옹스님 수행처
요사채·2층누각등 내달 착공

일제시대 50개 말사를 거느렸던 전국 31본산의 하나인 문경 김룡사(주지 자광). 한때 성철 서옹 서암스님이 주석했던 수행처로 유명한 김룡사에 중창불사의 열기가 뿜어 오르고 있다.

김룡사는 이번 중창불사를 계기로 소백산 5대 나한도량과 대도량의 면모를 일신, 스님들의 수행처와 전국사찰이나 불자들에게 수련장으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97년 12월 화재로 소실된 설선당(說禪堂)을 비롯하여 요사채 해운암(海雲庵), 누각복원이 본궤도에 올라 5월초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김룡사는 1억6천만원을 들여 이미 대웅전 서까래와 기와를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해운암과 설선당 설계를 끝마친 상태다.

옛 경흥강원 설선당은 자연지층을 그대로 이용해 조성된 국내최대의 온돌방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복원되는 설선당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구들을 설치해 오늘날에 다시 수선사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월에 착공한 60평의 요사채 해운암은 유려한 다자 모양으로 황토로 내부를 마감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와 원형복원에 힘쓰고 있다.

또 2층 목조누각은 38평 규모로 해운암과 설선당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이어 불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룡사 해운암과 설선당 복원불사에는 국비 6억, 지방비 6억, 사찰예산 5억등 총 17억원이 소요된다.

588년 신라 진평왕때 운달스님이 창건한 김룡사는 고승들의 수행처로 이름이 높다. 특히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는 동전은 성철 서옹 서암스님등 조계종 종정스님들이 차례로 거처하며 수행하던 토굴이다.

한편 절아래 사하촌도 50여명의 마을주민이 출가할 정도로 불심이 깊은 마을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김룡사 주지 자광스님은 "복원불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움준 사부대중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며 "창건이후 7번째 중창불사인 새불사를 계기로 옛 전통을 살려 많은 사부대중이 정진할 수 있는 도량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5년간 장기기증 서약 4155명

생명나눔회 창립 5돌 … 회원 3천9백명

'삶을 나눕시다, 생명을 나눕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94년 첫발을 디딘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스님)가 4월로 창립 5돌을 맞았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생명나눔실천회는 낙후돼 있던 불교계 복지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생명나눔실천회의 주요사업은 장기기증자 발굴하고 장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적절히 배분하는 일. 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생명나눔실천회가 확보한 장기기증자 서약인 수는 모두 4천155명으로 연평균 829명에 이르며, 이중 111명에게 장기이식을 주선해 새 삶을 찾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성과를 얻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몸으로 부딪치면서 하나하나 극복해냈다. 가두에 나가 캠페인을 벌이는 것은 물론, 기금마련을 위해 하루찻집을 열기도 하고, 각 사찰 및 불교단체와 연계해 법회를 개최해 현재 전체 회원수가 3천9백여명이다. 또 장기기증자를 위한 천도재를 봉행하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에게는 치료비는 물론 생필품도 제공했다. 올해 2월부터는 전국 각 사찰을 돌며 불자들을 대상으로 '화장서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도 적지 않다. 장기기증에 대한 불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보니 장기기증자를 발굴과 부족한 예산, 인력도 보다 활발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편 생명나눔실천회는 13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립 5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한명우 기자

금산사 매향의식 재현

1400돌기념 6백년만에…미륵불 하생기원

조선초이후 중단된 매향의식이 금산사에서 재현된다.

미륵신앙의 중심본찰인 김제 금산사(주지 도영)는 개산·1400주년을 맞이하여 10일 오전 10시 매향의식 재현및 매향이운식을 개최한다.

매향은 향을 땅에 묻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업장소멸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며 미륵부처님의 하생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이날 금산사가 6백년만에 재현하는 매향의식은 우리고유의 향나무를 금산사로 옮겨 미륵부처님께 고하는 이운식을 마친뒤 산골짜기의 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인 부안 격포에 묻게 된다.

매향의식에 동참한 신도의 명단은 매향기념비에 세기게 되며 매향비는 향을 묻은 장소와 취지를 자세하게 기록하여 후세에 남기게 된다. 매향기념비는 금산사 1400주년 대제때 제막식을 갖는다.

이날의 매향의식은 KBS-TV가 촬영하여 5월 부처님오신날 특집으로 방영될 예정이다.

김원우 기자

광주교도소 찬불가대회
광주불교능인회 주최

광주불교능인회(회장 김두원)는 3월 31일 광주교도소에서 재소자 독경및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5백여명의 재소자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김두원 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26명의 재소자가 독경 및 찬불가 '다생의 죄악'등을 발표하며 새롭게 태어날것을 부처님전에 발원했다.

한편 이날 경연대회는 여성불교연합 광주지부가 후원했다.

김원우 기자

경제난 극복 천도재
광주 광덕사 7~9일

불국원 광덕사(주지 능인)는 10일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우리사회에 마음과 평화를 주고 그물처럼 맺어진 인연고리를 풀기위한 영가천도대법회를 개최한다.

불국원(이사장 안진오) 이사들이 전액 경비를 지원하는 이번 천도재는 무료이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또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광덕사 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기도정진도 갖는다.

불국원 이중표원장(전남대 교수)은 "모든 영가의 왕생극락을 기원하여 우리 또한 안정과 희망을 얻고자 천도재를 마련했다"며 "동참하여 고통받는 모든생명이 부처님의 가피로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 652-6050.

김원우 기자

양산 미타암석굴 균열 누수 심각

보물 998호인 경남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 미타암 아미타불 석불입상이 안치돼 있는 석굴의 천장과 벽면에 금이 가고 물이 스며들어 보수가 시급하다.

31일 양산시에 따르면 통일신라시대때 것으로 추정되는 미타암 석아미타불 입상이 안치된 석굴(길이 7m 높이 4m)이 최근 자연풍화와 관광객들로 인해 훼손이 가속화되면서 천장과 벽면 등 동굴내부 곳곳에 크고 작은 균열이 발생해 붕괴위험마저 우려되고 있다. 또 보관중인 입상석불도 누수로 인해 본모습이 점차 훼손되고 있어 보수가 요구되고 있다.

오종욱 기자

대광맹인회 갓바위산행

대구 대광맹인불자회(회장 박석규)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18일 제8회 팔공산 관봉(갓바위) 산행대회를 개최한다.

이번산행에는 대광맹인불자회 회원과 장애인불자, 대구개인택시 정법회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등 3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 (053)256-0114.

이윤호 기자

경주지역 4대종교 합동 청소년 작은 음악회 연다

경주지역 4대종교가 합동으로 청소년을 위한 작은 음악감상회를 개최한다. 경주 향림사(주지 법명)는 샛별교회 성건성당 원불교 경주교당과 함께 17일 오후 4시 경주예술극장에서 '제 2회 청소년을 위한 작은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감상회는 음악전문가를 초청하여 해설과 함께 클래식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4대종교가 마련한 음악회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문화선도와 올바른 정서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또 종교를 초월한 자연스런 만남을 통해 서로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부수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향림사주지 법명 스님은 "앞으로 영화상영도 하고 청소년영상제도 개최하는등 청소년포교에 앞장서겠다"고 음악회 개최취지를 밝혔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감로사 삼천배 기도
불자 2천여명 동참

부산 감로사(주지 혜총)는 3월 31일 삼천불 삼천배 참회기도및 영가천도법회 회향식을 개최했다.

3월27일 입제식을 갖고 5일동안 계속된 삼천배 참회기도에는 2천여명의 불자가 동참했다.

첫날 범어사 前주지 정관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5일동안 진행된 큰 스님 초청법문은 지관스님 혜인스님 금담스님 홍선스님등 12명의 법사스님이 감로법문을 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코스

밝은길 아바타센터

◐이용터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통편 : 서울역, 사당역,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마스터 / 워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익수영진고 시판개시!

선(仙:神仙)자를 파자(破字)하면 '山人', 즉 산에 사는 사람이다. 예로부터 산에 사는 사람인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신선의 주식(主食)이 사계절에 푸르름(靑綠)을 자랑하는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효능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으랴. 그러므로 소나무는 나무중의 나무이다.

오행상생(五行相生)은 오행이 서로 생(生)한다는 말인데, 생한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다. 동양의학은 오행상생 원리로 도와주도록 하여 병을 다스려 고친다. 오행중의 물(水)·불(火)·흙(土)·쇠(金), 네가지는 상생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소멸하지 않지만 나무(木)는 자기 몸을 완전히 불태움으로써 희생·소멸하여 자식격인 불을 생하기 때문에 나무가 거룩한 어머니 사랑의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한민족은 오행으로 38목(木)인 동방(東方)에 살았던 덕분에 나무처럼 원래 마음이 어질고 자질(資質)이 뛰어나 동방의 예의를 숭상하는 나라(東方禮義之國)로 세상의 우러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 중의 나무인 소나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무이다.

우리나라 4대명산(四大名山)의 하나이고 신선들이 사는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智異山)은 우리민족과 인류의 거룩한 어머니가 사시는 사람의 성모산(聖母山)이다.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

사찰과 민간의 비전(秘傳)된 처방을 많이 아는 여래(如來)한방진료병원장 시연스님과 성모 지리산에서 공해(公害)가 하나도 없는 6백미터 이상 고지(高地)의 소나무 자생군락(自生群落) 청정지역에서 30년간 소나무연구의 오직 한 길을 걸어온 토송자 소나무농장주가 이번에 힘을 합해서 거룩한 어머니 마음으로 소나무 종합영양강정(強精) 식품인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과 「솔선식(松仙食)」을 만들었다.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씨방·솔마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복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흙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숙성시켜 수천 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종합영양 강장식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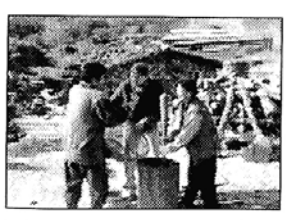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가지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들었으므로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음식이다. 그래서 일체의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솔선식」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기적의 솔음식으로 3개월만 복용하여도 비만의 몸은 체중이 10Kg 이상이 빠지고 당뇨에 특효가 있고 성인병과 난치병도 치료되며 몸이 날아갈듯이 가벼워지는 기적의 어떤 휴유증도 없는 다이어트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 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의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번호 (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이며, 건강보조식품허가(98.3.31)를 받았다.

앞으로 기적의 우리 지리산 소나무 종합강정 건강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 본사제품
솔선식, 효소정액,
익수영진고
(KBS 6시내고향
99.1.28 방영)

솔효소정액
원액 2,800㎖
(700㎖ 4병분량,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

솔선식
환약 2개월분
정가 ₩700,000원
〈회원등록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

익수영진고
옛날 방법으로 1개월간 은은하게 달이며 600g(한근정도)
최고급 보약중의 보약
₩1,000,000원
(약 2개월 분)

■ 구입문의 : 053)628-9145, 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한방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감로법문으로 봄을 맞는다" 전국서 큰스님 법회 잇달아

"우리 각자 자신이 온 우주의 모든 만물과 유기적 관계에 있음을 깨닫고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의 사회와 세계는 다시 아름답고 조화로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고통 또한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원인과 그 해결책을 잘 일러줍니다."

3월 31일 오후 2시 부산 혜원정사(주지 효명) 대법당에서 펼쳐진 화엄산림 대법회. 법당을 가득 메운 2백여 불자들은 백운스님(미륵암 주지)의 법문에 저마다 고개가 끄덕여졌다.

봄을 맞아 전국에서 연일 법비가 내리고 있다. 이러한 법회들은 지난해 종단사태로 속앓이를 했던 불자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고, 다시 한번 불교의 저력을 결집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불자들의 호응도 높다.

정토회(회주 법륜)는 3월 14일부터 6월 21일까지 현대인을 위한 깨달음의 강좌 '새로운 문명 창조와 정토세상만들기'를 주제로 백일법문을 진행한다. 매 월요일~금요일 오전 11시, 오후 8시 깨달음의 강좌를 법륜스님이 직접 진행하고, 토요특별강좌와 큰스님 초청 일요특별법문도 연다.

서울 송파 불광사(주지 지암)는 3월 7일부터 16일까지 매주 일요일 원로스님을 초청, 지난 3월 입적한 광덕대선사 추모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11일은 무진장스님(동산반야회 법주)이, 16일에는 혜암스님(조계종 종정)이 법문할 예정이다. 서울 역삼동 보리사(회주 종하)는 3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큰 스님 초청법회를 열고 있으며,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남지심 박광서)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선우토요법회를 상설해 신행활동의 토대를 법회를 통해 다져나가고 있다.

전국염불만일회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혜경스님(무설정사 주지)의 정토법회를 통해 염불신앙 운동의 확산을 도모한다. 한국불교선학연구원 무불선원도 3월부터 매월 큰스님을 초청, 15일엔 서암스님(前 조계종 종정), 5월 21일엔 성수스님(법수선원 조실)이 법석에 오른다.

대전보현문화회관 역시 4일부터 우룡스님(학성선원 조실)을 초청, 〈서장〉 특별대법회를 시작했다. 이밖에 경남 창원 성주사(주지 원정)와 안성 도피안사(주지 송암)에서 큰스님 초청법회가 열렸으며, 3일에는 서울 신림동 대명사에서 청화스님(前 태안사 조실) 법회가 열려 메마른 현대인의 가슴을 촉촉한 감로법우로 적셨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법회 일정

법사	날짜	장소	전화번호
덕민스님	4월7일	혜원정사	(051)866-7771
인환스님	4월8, 9일	〃	〃
고산스님	4월10일	〃	〃
대행스님	4월11일	정토회	(02)587-8992
청화스님	4월18일	〃	〃
서암스님	4월25일	〃	〃
성수스님	5월9일	〃	〃
무진장스님	4월11일	불광사	(02)413-6060
혜암스님	4월16일	〃	〃
무진장스님	4월13일	보리사	(02)562-9939
정락스님	4월27일	〃	〃
혜경스님	매주 일요일	동산교육회관	(02)732-1206
서암스님	4월15일	한국불교선학연구원	(02)541-0002
성수스님	5월21일	〃	〃
우룡스님	4월9일까지	대전보현문화회관	(042)624-6555



◇불교장기수후원회가 3월30일 장기수들이 사는 갈현동 만남의 집을 방문, 격려했다.

"마음 열면 통일발원 한마음"

불교장기수후원회 '갈현동 만남의집' 방문

"그동안 사람들이 얼씬도 안했는데 이렇게 같이 앉아 웃으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불교장기수후원회가 활동재개와 함께 3월 30일 미전향 장기수들이 머물고 있는 갈현동 '제2 만남의 집'을 방문하자 이곳에 살고있는 미전향 장기수 우용각 박왕규 양정호 김익진 장병락씨가 반갑게 맞았다. 한달전에 출소한 이들은 거주처를 못구해 어려움을 겪던중 자신의 집을 제공한 배예민씨(前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간사)의 도움으로 제2 만남의 집에 둥지를 틀게 됐다.

불교장기수후원회 운영위원장 혜조스님은 "서로 마음을 열고 편한 만남을 자주 갖도록 하자"고 따뜻한 위로를 했다. 40년만에 출소한 우용각씨는 "출소하던 날 아무런 생각없이 가슴만 북받쳐 해인사 법장스님과 안고 울었다"고 털어놨다. 양정호씨는 "분단의 아픔은 우리세대만으로 충분하다"며 "다시는 우리민족이 아픔을 겪지 않도록 남북관계도 믿음을 바탕으로 통일문제까지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강산 사찰 복원문제 얘기가 나오자 우용각씨는 "6·25 당시 신계사에 스님이 20분 계셨는데 절이 폭격으로 완파되자 스님들이 산등성이에 암자를 얼기설기 지어 부처님을 모셔와 불공드리는 모습을 봤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불교장기수후원회는 이날 제2 만남의 집에 TV와 비디오, 과일, 식용류 등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장기수후원회는 전국불교운동연합 실천승가회 새불교운동승가회 청년여래회 어울림산악회등이 참가하고 있으며, 재정 확립을 위해 후원사찰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02)720-6763

김원우 기자(wwkim@buddhapia.com)

뉴스 & 뉴스

자비의 쌀 130포대 전달

전국 2천6백여 사암이 쌀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인곡)은 1차 자비의 쌀 보내기 행사를 3월 30일 성북구 일대에서 펼쳤다. 태고종 총무원은 지난 2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 자비의 쌀모으기 운동본부에 모여진 쌀 25kg들이 130여 포대를 성북구청으로부터 추천받은 실직자가정, 독거노인 등 불우 가정들에 직접 전달했다. 이경숙 기자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연수

태고종 전국비구니회 연수교육이 3월 29~31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개최됐다. 40여명의 비구니스님들이 참석한 이날 연수교육은 29일 입재식에 이어 태고사상의 이론 정립에 따른 실천방안, 한국불교의 발전방향, 시대에 부응하는 신도조직관리와 교화방법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좌선, 간경 등의 시간이 마련됐다. 30일 분과토의 시간에는 비구니회 운영방안과 조직강화를 모색하는 토론이 벌어졌다.

이경숙 기자(gslee@buddhapia.com)

염불만일회 기념탑 조성

전국염불만일회는 3월 30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99 간담회를 열고, 6차 염불만일회 기념탑 조성, 사단법인화 추진 등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염불만일회는 올 8월 2일~4일 건봉사에서 성지대회를 연다. 이에 앞서 5월 2일~7일 중국 아미타 불교성지순례를 통해 정토종의 발상지인 여산 동림사와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계획이다. 9월에는 부산에서 정토학술세미나를 12월에는 전국염불만일회와 더불어 결성된 아미타무용단이 인도 네팔 등지서 아미타 춤공양법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은자 기자

포교논문 현상공모 실시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은 포교에 대한 교계 내외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종단의 포교활성화를 위한 포교논문 현상공모를 실시한다.

응모분야는 △종단의 포교활성화 방안 연구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일반신도 노년층 등 계층별 포교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별 포교 활성화 방안 연구 △포교 방법론 및 실천 사례 연구 △특수 포교 사례 및 방법론 연구 △외국의 포교 활성 사례와 종단적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등. 누구나 응모 가능. (02)720-7064

김재경 기자

승가원 PC동호회 결성

승가원(대표이사 현성)이 지난 97년 PC통신 나우누리에 개설했던 '사회복지정보센터'에 '사회복지인 동호회'가 결성됐다. 승가원은 1일 '사회복지정보센터'의 제한된 자료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센터를 이용하는 네티즌 1백3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동호회를 개설했다. 한명우 기자

자원봉사자 관리 전산망 구축

연꽃마을, 운영 시작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이 법인 사무국내에 산하 30개 부설기관 자원봉사자를 통합관리하는 전산망을 구축,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연꽃마을은 부설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던 자원봉사자 관리업무를 법인사무국에서 총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와 각 시설의 체계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설치된 통합관리 전산망은 자원봉사자의 인적사항, 활동경력 등 개인 정보 외에 활동시간 및 횟수와 내용 등 1일 자원봉사 현황 등의 기록을 중앙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각종 제도·정책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받게 된다.

연꽃마을은 현재 양로원, 노인무료병원, 경로식당, 각종 복지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무료직업소개소 등 30개 기관에서 1천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연인원 150여만명의 노인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한명우 기자

"불교자정-개혁 재가 앞장서자"

재가연대 창립법회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는 3월 28일 2백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불교계 자정과 개혁을 위하여 재가불자들이 앞장서 나갈 것을 천명했다. 재가연대는 구체적 사업으로 종단, 사찰의 재정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는등 종단권력 모니터운동을 결처냄과 함께 재가불자들의 조직화를 통한 종단참여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관련기사 6면>

김원우 기자

진각복지회·인덕원 노인복지관 수탁

진각복지회와 인덕원이 29일 서울시가 위탁 운영할 5개 노인종합복지관 중 성북구와 은평구 2곳의 운영권을 따냈다.

진각복지회(대표이사 성초)는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을 6월중 개관해, 지역복지를 통한 포교에 주력할 방침이다. 성북노인종합복지관은 건평 785평에 지하 1층 지상5층의 규모다.

인덕원(원장 성운)은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을 수탁하게 됨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덕노인복지회관을 저소득층과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주대상으로 한 치매요양원 및 치매단기보호소로 변경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덕원은 이달부터 상주 의사 및 간병인력,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장비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은 건평 8백평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통도사 성보박물관 11일 개관

국보 1점·보물 8점등 1만여 성보 전시

통도사 본 말사의 성보 1만여점을 보존·전시하게 될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범하)이 11일 개관된다. 통도사성보박물관은 5천여평의 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로 총 1300평의 실내전시공간과 학예연구실, 유물수장고, 자료실, 보존관리실, 문화센터 등을 갖추고, 연 관람인원 1백50만명에게 불교전통문화를 가까이 접하고 이해하는 특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불교회화 전문 박물관으로 국내 박물관으로는 유일하게 높이 12m의 대형 괘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대가 중앙홀에 마련되어 이색적이다.

소장하게될 유물은 국가지정 국보1점, 보물 8점, 지방유형문화재 32점등 약 1만여점, 이중에는 4백여점의 불교회화가 포함돼 있어 국내 박물관 가운데 양적으로 가장 풍부한 성보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 금동삼존불을 비롯 석정스님 기증 유물, 역대스님들의 친필 2백여점, 고문서 2만여점 등을 자랑거리로 꼽는다.

박물관측은 풍부한 소장 유물을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을 활용해 불화전문 박물관의 특색을 살리는 불화기획실을 마련 불화초본, 각종 탱화 등을 전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년에 1번 정도만 친견이 가능하던 괘불을 상설 전시하며 연차적으로 80여점의 괘불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전을 준비하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군·병원용 포교소책자 2권 발간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화암)은 최근 군장병을 위한 포교소책자 〈주머니 속의 평화〉와 병원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소책자 〈치유의 손길〉을 동시에 발간·배포했다. 〈주머니 속의 평화〉는 1만권, 〈치유의 손길〉은 5천권이 각각 배포됐으며 불자들의 법보시와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로 계속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포교원은 지난해 10월 실직자를 위해 〈소중한 인연〉이란 소책자를 발간한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청소년을 위한 〈우리들의 마니또〉와 사찰문화재 홍보용 〈가람을 찾아서〉를 발간했다. 조만간 재소자용 소책자를 마지막으로 제작한 후 포교용으로 널리 배포할 방침이다. (02)720-7064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단기 출가 선(禪) 수련회 안내

▶사찰은 무한 능력의 소유자◀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수련원에서는 직장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기 출가 선(禪)수련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1999년도 주말 선 수련회

♣ 내용 : 선(禪) 초심자의 실참실수(室參實修)와 단기 출가자로서 필요한 발우공양, 108배, 삼귀의 · 오계 수계 등 불자예법.
♣ 장소 : 성북동 길상사 설법전 ♣ 인 원 : 선착순 50명
♣ 대상 : 일반인, 직장인 ♣ 수련비 : 2만원

차수	기 간	대 상	회비
제8차	4월10일(토)~11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제9차	4월24일(토)~25일(일)	일반인, 직장인	2만원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입재 / 일요일 오후 8시 30분 회향)

※매월 2·4주에는 정기적으로 주말 수련회가 열립니다.

♣ 접수방법

1. 직접 방문시 :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
2. 팩스 이용시 : ①이름 ②생년월일, 성별 ③주소 ④연락처 전화번호 ⑤직업 ⑥수련회 경험유무 ⑦수련회 동참 소견 (꼭 쓰세요)을 적어서 팩스로 접수, 이 경우 수련회비는 외환은행 계좌 301-22-00206-0, 예금주 <길상사> 로 보내고 신청서와 입금표를 같이 보냅니다.

(수련비는 반환되지 않으나 친지나 본인이 원할 경우 원하는 차수에 언제라도 다시 동참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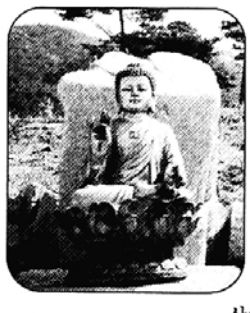
■ 자원봉사자 동참 : 수련기간 중 보살행으로 수련생을 후원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오전이나, 오후 등 봉사자의 활용 시간대에 맞춰서 편리하게 동참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하는 일은 수련회 사전준비, 공양간 찬상정리, 사무실 보조, 뒷 정리 등 자유롭게 동참합니다.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 수련원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번지 (우)136-020

전화 (02)3672-5945~6 / 팩스(02)3672-5947

불상점안 권선문



불교란 일심을 수련하여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해탈되는 것을 지상의 목표로 삼는 종교인 것입니다.

불상이란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을 표상하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귀의토록하는 집심의 존상이며 근행기원에 있어 무언의 감화와 위신력을 드리워 주는 절대의 대상인 것입니다. 불상이란 곧 부처님을 의미하는 것이며 "약수암"에서는 오랜 기도정진 끝에 수백년된 영험 있는 불상을 한분 모셔올 수 있는 귀한 인연을 맺어 여러 불자님들께서 두루 동참하실 수 있는 인연을 맺어 드리고져 점안 행사시까지 신남신녀 여러분들의원호를 바라오니 특별하신 신심으로 인연을 맺으시어 영험있는 불상복장 불사에 동참 하시어 소원 성취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 점안일시는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 약사여래 기도 도량
지리산 약수암 TEL (0671)625-6831
주지 무 각 총무 법 행 두손모음
전북 남원시 덕과면 덕촌리 산 183-2

동참금 1인당 : ₩10,000
온라인 농협 024-02-098803 엄길호
불사기간중 인생 상담 무료
접수하신 분들은 점안일시까지 특별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암·당뇨 중풍치료 비법

대체의학의 혁명 공개

수강생 모집

우리 인간은 100세 이상 살 수 있다.

모든 짐승은 자기 성장 과정의 10배 이상 살고 있다. 집에서 키우는 개는 1년안에 다 성장하여 15년을, 거북이는 100년을 성장하여 1,500년을 산다. 우리 인간도 다같은 동물이며, 그렇게 살 수 있다. 인간은 20세까지 성장하니까 10배면 따라서 200세 이상이 천수인 것이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자기 성장과정의 10배는 커녕 5배 이상도 살지 못하고 사망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은 짐승들보다 뇌가 1개 더 있다. 대뇌라는 정신충뇌 전자오락 기계의 키판과 같은 정보시스템뇌 이 뇌에 자극을 주어 내인(內因)의 병인, 암·당뇨·중풍·협심증·심근경색증등 불치병을 유발 사망에 이르게 한다. 짐승에게는 이런 병이 없다. 또 외인(外因)의 병에 대한 저항력부족의 원인으로 병에 잘걸린다.

정신적인 내인의 병(노·사·비·경·공·우), 외인의 병(풍·한·서·습·조·열·타박상·전염병) 이렇게 두가지 내인과 외인의 조절을 잘못하여 병으로 발전하며 실증과 허증으로 몸에 전의되어 오장육부에 깊이 병든다.

모든 병 치료에 앞서 내인의 병은 마음을 다스리고 약을 써야 하며, 외인의 병은 생활환경에 균형된 온도조절 청결이 필요하며 저항력을 길러야 한다. 또 식생활에서도 몸에 맞는 음식물을 먹어야 한다. 실증이면 운동량을 많이 하고 힘을 빼주고 허증이면 운동량을 많이하여 힘을 빼면 몸을 더욱 해치게 된다.

실증과 허증으로 병이 발전하면 오장 육부가 상생 상극에 에너지 공급 순행의 조화가 깨지고 곧 병으로 크게 발전하며 어떠한 부위에 자연적으로 통증이 발생한다. 이는 오장 육부가 자기병을 고쳐 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이치로 보면 된다.

실증은 화나는 일로 피가 열받아 삼조경이 막히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쁘고 열이 많으며 견비통, 요통, 복창이 오며 입맛은 좋고 여자는 멘스가 빠르다. 허증은 기운이 없고 두근두근 도동을 하며 요통 4·5번이 협착되고 어깨통증, 양기부족, 뒤가 무거운 후증기가 오고 입맛이 없고 여자는 멘스가 느리다. 이러한 증상은 원인치료가 되야 통증이 사라지고 협착 부위가 퍼진다. 아무리 통증부위 치료를 해도 임시방편이며 원인치료는 안된다. **암·당뇨·중풍 치료비법, 얼굴보고 진찰, 견진법, 오운육기, 한의착 종합편, 소림복권, 내공일지선법, 자기 스스로 치료 자발기공법, 백회타통 타인에게 발공치료법,** 교육 후 수료증, 지부설립 할 수 있습니다.

운암한의학 연구학회 사단법인 키와니스 기공협회 TEL 2238-4038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한의학 무료공개강좌 H·P : 016-221-2250

위치 : 신설동 마사회 골목 미림식당 앞 오성빌딩 201호

신행수기 당선작(관음종 총무원장상)

나의 탈바꿈 ②·끝

김형신 〈대구 달서구 상인동〉



그림 · 문병성

남편을 미워했지만 남편이 미운게 아니라 나의 욕심과 집착 아상이 문제인 걸 알았다

얼마후 또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다. 토요일에 학원에 간다고 미리 갔다는 것이었다. 사실이 아니라고 선생님께 잘 부탁드리고 막내가 오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아닌처려는 순간 이것 또한 놓치는 마음이지, 또 속는거지 하며 막내의 손을 붙잡고 조용히 이야기했다. 어머니가 너에게 절을 할때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했고 선생님한테서 온 전화 이야기, 말하지 않고 지켜 보았던 이야기를 다 풀어 놓았다. 이야기 도중에 눈물이 줄줄 흘렀다. 나도 울고 막내도 울고 서로의 마음을 터놓았다. 막내도 나의 마음을 이해했는지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는 차츰 얼굴이 펴지고 대답도 예, 아니오 단답형에서 자상하게 설명도 하고 다정하게 대한다. 예전같이 귀엽고 착한 아들로 돌아왔다. 이 사랑스러운 아들을 한 생각에 놓칠뻔 했다고 생각하니 부처님께 감사드릴 뿐이다.

모임에 나가보면 대다수가 남편에 대해 놓치 못하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들 하고 있고 그것이 토론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 이 집과 저 집이 별로 다른것 없듯이 나 또한 놓는다 놓는다 하면서도 어느샌가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나는 결혼해서 곧바로 임신과 출산으로 연년생이다 시피한 3명의 아이를 키우느라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았다. 남편에 대한 불만과 섭연치 않은 일들도 있었지만 그것을 따지고 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아이들이 조금 크고 한숨 돌릴 때쯤 되니 불만은 더욱 증폭되고 부부싸움도 곧잘 했다. 그러다가도 적당히 넘어갈 때도 있고 남편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잘 맞추어 살려고 했지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 때문에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

가끔 구타도 당하고 육설로 자존심을 건드리고 의심증 때문에 항상 불안하다보니 나 자신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 일이 쌓이다보니 자연히 병이 올 수 밖에 없었다. 항상 뒷골이 땡기고 관두통이 생기고 속이 메스껍고 심하게 어지러웠다. 그러다보니 눈의 촛점이 맞지 않아 사물이 똑똑히 보이지 않고 흐려 보였다. 병원에 가서 종합진단도 받았으나 이상이 없고 내과에 가도 이상이 없다고 신경정신과에 가라고 했다. 거기에서도 별다른 진단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아픈 증상은 그대로였다. 집을 나가보기도 하고 남편과 헤어질 생각도 했지만 나가봐야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큰 죄를 지는것 같았다.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견주며 아이들 키우는 재미로 만족하고 될수록 신경을 쓰지않고 취미생활과 운동으로 재미를 붙여가니 세월은 잘도 갔다.

지난해 막내가 말썽을 부릴때 남편과 아주 크게 싸웠다.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여지없이 뭉개졌고 큰 결단을 내릴까도 생각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 마음공부를 한다면서 해결 못할것도 없으니 공부의 재료로 삼아보자고 생각했다.

나의 생활에서 화두는 남편과 나의 관계였으며 생각날 때마다 "주인공, 당신이 이렇게 벌여 놓았으니 네가 이끌고 가" 하며 말겨놓고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해지나 지켜보기로 했다. 그 기간이 너무 길었지만 이제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면 또 반복된 고통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니 남편에 대한 내 깊은 마음속이 깨끗하고 투명해질 때까지 지켜보리라 하고 관하며 기다렸다. 처음엔 미운 마음 때문에 온갖 나쁜마음을 가졌고 그러면서도 관하고 그러니 또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 그것도 아니지 하며 또 관하니 용서가 되었다. 다음엔 억지로라도 됫모습에 대고 말없이 '당신 사랑해' 하며 무언의 통신을 보냈다.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고 유행가의 제목처럼 남편과는 '잘못 된 만남'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고정된 것이 없다고 했지 하며 자꾸 통신을 보내고 관하니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왜 미워했는지를 묻고 들어갔다. 남편은 그 자리 그대로인데 나에게 이렇게 안해주니 밉고 저렇게 하니 속상하고 그것들에 매여서 뒤범박이 되다니, 그것도 내마음의 작용인 것을….

나는 내 남편을 미워했지만 남편이 미운게 아니라 욕심과 집착, 아상 때문이란 걸 알았다. 상대가 나를 고통스럽게 했기 때문에 또는 괴롭게 했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워 한다는 극히 이기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게 됐다. 그리고 미움도 사랑도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그 둘 다를 포용해 보자고 생각했다.

긴 시간이 지나갔다. 이젠 남편과 나는 서로에게 바라는 마음에서 위해주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사월초파일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내 온몸의 겉껍질이 다 일어나는 것이었다. 놀라서 다리를 보니 껍질이 부풀어 오르고 또 팔을 보니 번지면서 껍질이 다 일어나는 것이다. 꿈속에서 얼마나 놀랐는지 일어나니 초파일 새벽이었다. 초파일과 그 이튿날까지 선원에서 뒷마무리를 하고 그 꿈을 되짚어 보았다. 곤충이 허물을 벗으면 한 단계식 새로운 모습이 되듯이 나도 마음의 허물을 벗고 또 벗어 지금의 나에서 새로운 참나로 진화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 내가 탈바꿈할 수 있는 것은 스님의 가르침과 도반들 덕분인것 같다. 모든 인연들에게 정말 감사한다. 푸른 하늘과 땅과 솔잎사이로 스쳐지나가는 바람소리에까지도.

분노와 욕심, 아만, 집착, 모든 내 무명의 껍질을 한겹 벗기고 나니 이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다. 벗어놓은 만큼 내 마음은 충만해짐을 이제야 깨달았다. 모든 좋고 나쁨이 내 마음의 작용임을 알고나니 참회와 감사의 나날이다. 잘못된 것에 대한 참회가 계속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작은 일에 감사함도 절로 생긴다. 한 생각 바꾸기가 이렇게 어렵고 바꾸고 나니 마음이 이렇게 고요할 수가 없다.

나는 이 마음공부를 하면서 뒤늦게 후회가 되는 것은 조금 일찍 인연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이다. 그랬다면 내 세 아이와 남편에게 좀더 좋은 어머니와 아내가 되었을텐데. 지금도 늦지 않으니 이를 있을때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 곤충이 허물을 벗으면 새로운 모습이 되듯 나도 마음의 허물벗고 참나로 진화 해야지

"공부하는 부모의 모습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습니다."

전통經床의 실용화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원이나 요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귀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경전 공부상의 쓰임새
· 사찰의 강원 · 스님 요사채
· 불자들의 경전 읽기 · 자녀들의 학습

■ 재질 ASH(느릅 원목)
■ 규격 가로720×세로340×높이320(단위mm)
■ 가격 8만5천원

•구입문의 :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 (02-737-0697), 인터넷 주문(http://mall.buddhapia.co.kr)

佛 반지

반야·반야

수행자의 자긍심이 함께 합니다.
· 불교를 상징하는 귀자에 16개의 큐빅은 보살의 16대력을 상징하고
· 테두리의 팔각은 팔정도를 수행하는 불자들의 자긍심을 새겼습니다.



팔정도
정견(正見),정사유(正思惟),정어(正語),정업(正業),정명(正命),정정진(正精進),정념(正念),정정(正定)

십육대력(十六大力)
지력(志力),의력(意力),행력(行力) 참력(참力),강력(强力),지력(持力),혜력(慧力),덕력(德力),변력(辯力),색력(色力),심력(心力),신족력(神足力),총명력(聰慧力),항마력(降魔力)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상징하는 만자에 16개의 큐빅으로 보살의 16대력을 표현하였으며 테두리의 팔각은 팔정도를 행하는 불자들의 자긍심을 표현

품명: 반아반지
재질: 금,큐빅(18K,14K-1.5돈)
가격: 18K-₩ 130,000, 14K-₩120,000
Size: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http://mall.buddhapia.co.kr

연등의 미학 장엄 팔각등

장엄 팔각등은 전통적 미와 현대적 감각을 조화한 은은한 산뜻한 색상과 편리한 사용, 견고함을 자랑하는 연등 입니다.
- 정성을 다해 제작한 이 전통연등을 추천합니다 -

접등은
펼칠과 조립을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한번의 동작으로 펴서 사용하고,
접어서 사용하는 팔각등입니다.

■ 팔상성도 (八相成道)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부터 열반까지의 여덟가지 중요한 중생제도를 위한 모습
①도솔래의상 :도솔천에서 내려오는 모습
②비람강생상 :룸비니동산에서 탄생하는 모습
③사문유관상 :사방의 문으로 나가서 중생들의 고통을 관찰하는 모습
④유성출가상 :성을 넘어 출가하는 모습
⑤설산수도상 :설산에서 수도하는 모습
⑥수하항마상 :보리수 아래에서 마군들을 항복시키는 모습
⑦녹원전법상 :녹야원에서 최초로 불법을 설하시는 모습
⑧쌍림열반상 :사라쌍수 아래에서 마지막 설법을 마치시고 열반에 드시는 모습

접 등
이 연등은 기술 특허 출원 중 입니다.
· 팔상성도 장엄 팔각등(원색 칼라)



· 반야심경 장엄 팔각등(원색 칼라)



◆규격 : 대 13cm
◆가격 : 2,400원
◆규격 : 표준 11cm
◆가격 : 2,200원

● 연등이 변하고 있습니다. ●
장엄팔각등은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 물리적인 힘에 찢어지거나 장대비 속에서도 결코 젖지않고 본래의 모양을 유지합니다.
● 장엄 팔각등은 기존의 팔각등과는 달리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청문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 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이 어우러진 장엄 팔각등은 선명하고 밝은 색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 기존 팔각등에서 볼 수 없는 특징으로 장기간 사용후 물세척으로 새 것처럼 깨끗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주문전화 : 02)732-1522/737-8881(대표)
● 주문팩스 : 02)737-0697
● 판 매 원 : 물 · 부다피아
● 납품방법 : 신청하신 곳으로 직배 · 택배 발송
※ 촛대, 등걸이, 이름표 포함

조 립 등
조립등은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보관되며 사용시 펴서 홈에 맞추어 넣는 간단한 방식으로 뛰어난 색감을 자랑합니다.

◐ 봉축 장엄팔각등(원색칼라)



◐ 만다라 장엄 팔각등(원색칼라)



◆규격 : 표준 11cm
◆가격 : 2,300원
◆200등 이상 주문시 10% 할인(2,070원), 사찰명 인쇄
◆500등 이상 주문시 20% 할인(1,840원), 사찰명 인쇄